

제 28회 식량안보세미나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후원 |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 28회 식량안보세미나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후원 |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사일정



|사회| 김현우 교수(고려대학교)

시 간	내 용	좌장
13:30	등 록	
14:00	개회식 개회인사 박현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축 사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주제발표>		
14:00	1. 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 ▶ 손흥석 교수(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2.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망 ▶ 김정년 이사(한국식품산업협회)	
	3.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 윤은옥 부장(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4. 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 이효정 대표(E&S 컨설팅)	
	5.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협력의 현재와 미래 ▶ 권태진 박사(GS&J 인스티튜트)	
<종합토론>		
16:00	토론자 : 신동화 교수(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박용호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원혜영 이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채수완 센터장(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한정훈 박사(Pulmuone Foods USA)	이철호 명예이사장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
17:00	폐 회	

목 차



＊ 개최인사	박현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1
＊ 축 사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3
＊ 주제발표		
	(1) 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	5
	손흥석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2)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망	29
	김정년 이사 (한국식품산업협회)	
	(3)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61
	윤은옥 부장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4) 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	79
	이효정 대표 (E&S 컨설팅)	
	(5)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협력의 현재와 미래	103
	권태진 박사 (GS&J 인스티튜트)	



*** 종합토론**

좌 장 - 이철호 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 * 토 론 자 - 신동화 교수**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131
- **박용호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137
- **원혜영 이사**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143
- **채수완 센터장**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 149
- **한정훈 박사** (Pulmuone Foods USA) 155

개 회 인 사

박 현 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회 식량안보세미나, ‘한국식품 산업의 세계 비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ZOOM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하다, 다시 대면으로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 2022년도 재단의 연구과제는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화와 지구촌 식량 및 영양안보를 위한 기여입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식품의 역사를 통해 한국식품의 현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식품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19년부터 넷플릭스 등의 OTT서비스나 유튜브 등과 같은 매체로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에서 한식이 노출되었고, 그만큼 K-foo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기생충 영화 속 짜파구리와 오징어게임에서 라면땅, SNS 불닭볶음면 챌린지 등 다양한 경로로 인해 라면수출은 2019년 대비 2021년 약 45% 상승하여 6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통해 PPL을 했던 치킨 브랜드 BBQ는 2021년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에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 브랜드 25위’ 중 5위로 소개되었고, 일본에서는 2021년 전년비 매출이 73% 성장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식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세계시장에서 호감을 받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내용과 질적 우위는 물론이려니와 세계인의 식량영양문제에 대한 선진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한류 콘텐츠 등을 통해 한식이 세계화됨에 따라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식물성 대체육 바람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불고기 등 3D 프린팅의 대체육을 포함한 한식 적용은 커지고 있는 세계 비건시장에서 한식을 알리는 데에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북한 식량사정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1969년 당시 돈으로 8백억 원에 가까운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처음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약 750톤의 해외원조용 쌀을 내보냈습니다. 원조를 받아오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2018년부터는 식량원조협약인 FAC 가입 후 1년에 쌀 5만 톤을 약 6개 식량위기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량위기국에 원조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은 향후 남북협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기후위기나 자원소비, 환경오염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 인식 변화가 서양의 낭비적 육식문화에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곡류/채식 발효문화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음식문화에 뿌리를 둔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 음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주제발표와 토론 패널로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로 한류를 통해 K컨텐츠의 바람을 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 식품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인의 음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철호 교수님과 그리고 식품 관련학회를 대표해 참석하신 토론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6월 23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박 현 진

축 사

김 명 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명철입니다.

2022년 제28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명예 이사장님과 박현진 이사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식품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물류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최초로 수출액 100억불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실적호조는 우리 식품업계가 건강중시, 간편소비 등 새로운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K-food 수출확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식품산업의 현위치와 장단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식역사를 통한 한국식품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한국 식품 및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망’ 등을 살펴보는 오늘 세미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8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K-food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3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김 명 철

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손 홍 석





Profile

손 홍 석

학력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식품바이오 전공 박사

경력

前)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연구교수

前) 동신대학교 한의예과 교수

現)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

□ 한국식품의 뿌리

- 한반도의 식품 문화는 약 70만년 전 구석기시대의 구이문화를 시작으로 형성되었으며, 해 안가 중심의 정착생활 및 토기가 개발된 신석기시대부터는 끓임, 찌개, 발효 등 다양한 식품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 한반도 인류의 식생활에서 큰 전환점이 된 토기는 물과 식재료를 조합한 요리(끓임), 식재료 저장, 식염 제조, 누룩 및 양조 제조의 도구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식품 문화를 발전시킴
- 토기와 해수를 이용한 식염의 발견 및 제조는 식품의 장기저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장기 저장 중 미생물(초산·젖산) 발효를 통해 안전성 및 기능성을 증가시킴
- 한반도의 콩 문화는 출토된 유적을 근거로 청동기시대부터 재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 할 수 있으며, 고문서들을 통해 선조들이 장(醬)과 시(豉) 등 다양한 콩 발효식품을 제조·활용했을 것으로 추측됨
- 한반도의 식생활은 동의학적 영양 이론(음양과 오행)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음식물의 음과 양의 성질, 그리고 오미를 조화롭게 배합하여 섭취함

□ 한식 세계화 사례

- 우리나라 식품의 산업화를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 8가지 상품(햇반, 김치, 신라면, 포장두부, 막걸리, 소스류, 구이김, 냉동만두)에 대한 제품 특징 및 시장 분석으로 한식 의 세계화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
- 각 8가지 상품의 국내 시장점유도가 높은 기업이 해외 시장 점유 및 매출액을 선도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음
- 신라면, 소스(장)류를 제외한 제품은 국가(현지) 소비자 식문화를 반영하여 주력 상품을 다 양화하여 현지화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화에 성공하였으나, 신라면의 경우 고유의 맛 그대로 수출하는 전략을 택하였고 현재 해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제품 개발은 물론 홍보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한국식품 및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 한식의 우수성과 경쟁력

- 한식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구성 비율이 65%:15%:20%로 권장비율에 가깝고, 다양한 반찬(채소류/생선류 등)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이 높아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함
- 파, 마늘, 생강 등과 같은 약용재료의 섭취 등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공복혈당/콜레스테롤/고혈압 등 건강기능성에 효능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어떤 식품, 어떤 영양소가 건강에 유익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영양학적 연구가 필요함
- 구이, 찜, 데치기 등의 담백한 조리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다른 음식(양식, 중식)에 비해 낮아 k-다이어트로 브랜드화의 가능성이 있음
- 된장, 고추장, 김치, 막걸리와 같은 다양한 전통 발효식품을 통해 살아있는 유익균을 섭취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발효식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한식 발효식품의 세계화가 가능함

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

2022. 6. 23.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손 홍 석



KOREA UNIVERSITY

연구과제 계획서

01 연구제목

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

02 연구목표

동북아시아 음식체계의 지리적 특수성과 발전역사를 개관하고 원시토기문화의 발상지로서
끓임문화와 발효문화에 뿌리를 둔 한국음식의 특징과 국제 경쟁력을 논하고자 함

03 연구내용 및 방법

- Part 1, 한국식품의 뿌리 : 끓임문화, 발효문화, 곡류채식문화, 콩식품문화, 동의학 식이요법
- Part 2, 한식 세계화 사례 : 햇반, 김치, 신라면, 포장두부, 막걸리, 소스류, 구이김, 냉동만두 등
- Part 3, 한식의 우수성과 경쟁력 : 한식의 특징, 영양의 균형, 건강상 이점, 저열량 식품, 전통발효 식품

04 기대성과

한국 음식의 비교우위 고찰을 통한 세계화/산업화 전략 수립의 근거 제시

한국식품의 뿌리

1.1. 끓임 문화

한반도 구이 문화와 끓임 문화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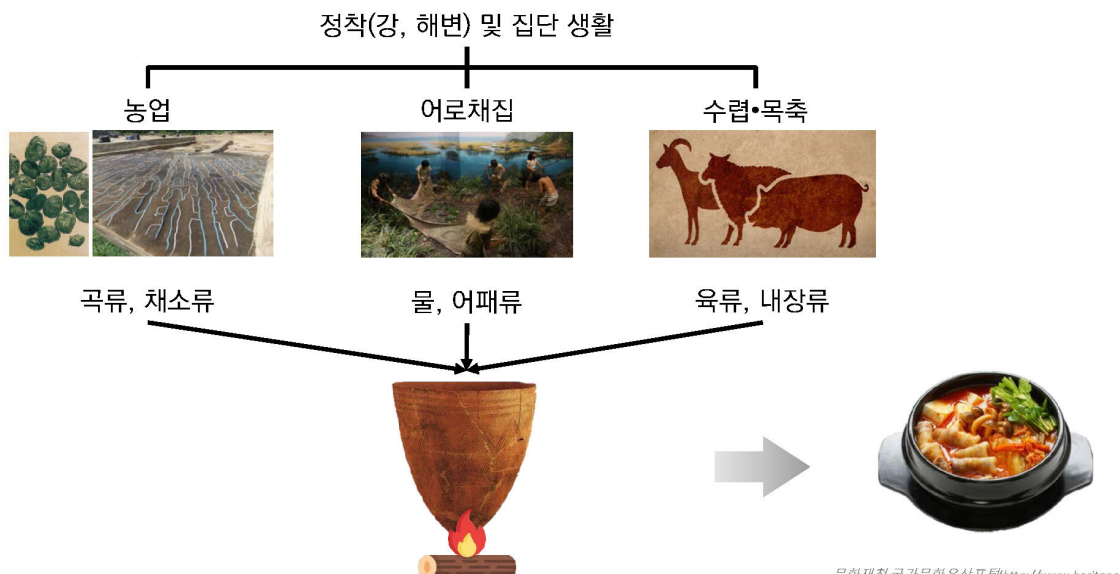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생활	이동생활	정착생활(농업 생활)
재료 수급 방법	수렵(동물), 채집(열매, 식물)	수렵, 채집, 농업, 목축업(자체 수급)
주재료	고기, 내장 열매, 뿌리채소 등	고기, 내장 열매, 채소류, 탄화곡물 등
요리도구	굵개, 밀개(뎨석기)	간석기, 토기
요리방법	구이(직화)	구이, 끓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한국식품의 뿌리

1.1. 끓임 문화

정착생활에 따른 재료의 다양성과 찌개문화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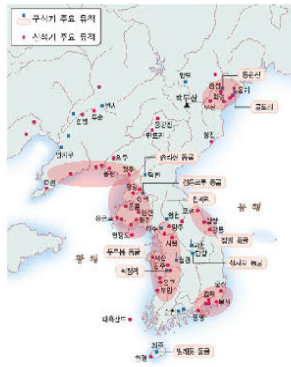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한국식품의 뿌리

1.2. 발효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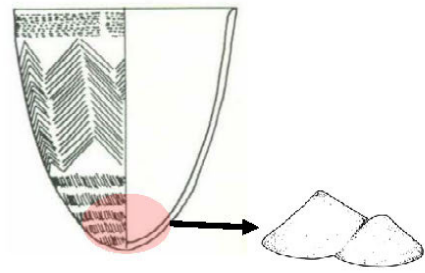
식염 제조기술의 기원



해변 정착 생활



해수 가열



증발 후 식염발견

요리도구 → 식염제조도구

해수 가열에 따른 식염 제조 기술 습득 → 식염을 활용한 요리기술 및 저장기술 상승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한국식품의 뿌리

1.2. 발효 문화

김치의 기원



저장성 ↓
안전성 ↓



해수
(염도 약 3.5%)



초산 및 젖산 발효
(산성화)

저장성 ↑
안전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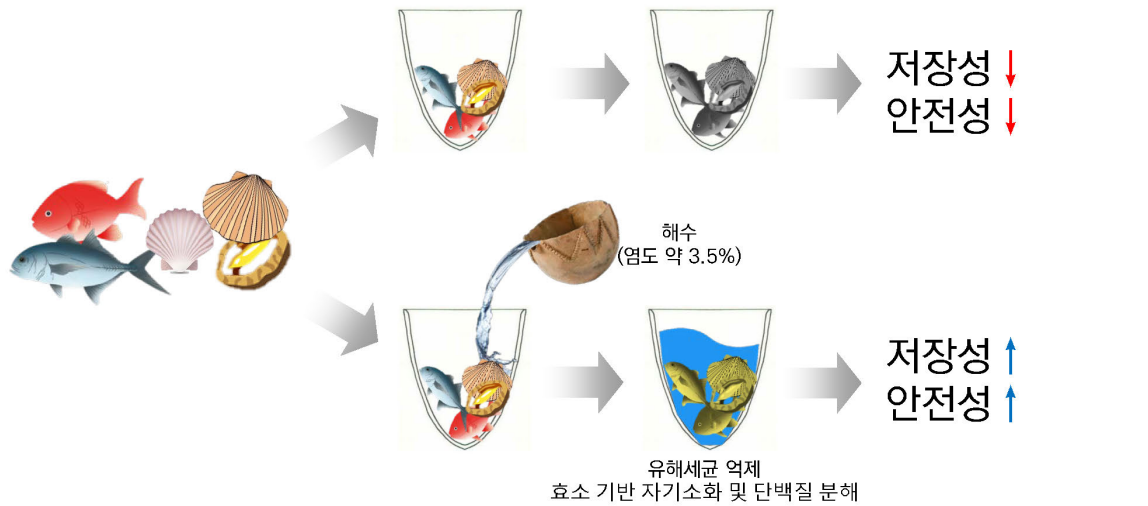
토기와 해수를 이용한 채소 저장 → 발효 진행 → 장기 저장 → 김치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한국식품의 뿌리

1.2. 발효 문화

젓갈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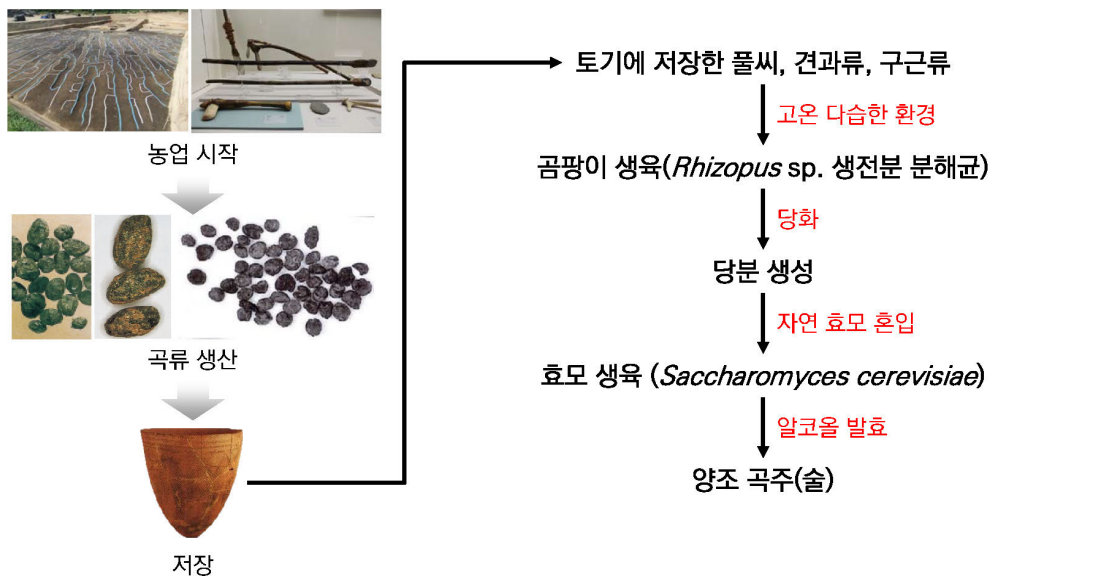
토기와 해수를 이용한 어패류 저장 → 장기 저장(유해세균 억제 & 자기소화 및 단백질 분해) → 젓갈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한국식품의 뿌리

1.3. 곡류채식 문화

누룩의 발견과 양조 발효의 기원



문화재청,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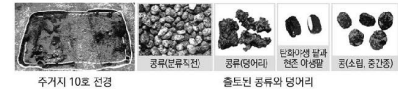
한국식품의 뿌리

1.4. 콩 식품 문화

콩의 식용 기원과 전파

한반도 내 출토된 콩의 유적

유적	종류	출토상태	시대(토기)
충북 옥천군 대천리 유적	벼겉질, 탄화미, 보리, 밀, 조, 콩과식물의 씨앗 한톨	움주거지, 갈돌, 갈판, 돌도끼.	신석기시대 (2000년 경부고속철도 공사중 발견)
경남 진주시 상촌리 유적	콩과의 탄화곡물, 밀, 보리, 조, 기장, 도토리, 머루	주거유적, 갈돌, 돌보습, 마연석기	신석기시대(빗살무늬 토기)(1996/98년 남강댐 수몰지구)
경북 포항시 원동 유적 주거지 10호	야생콩 순화콩, 재배콩 (Glycine max), 야생팥	탄화콩류 1800립, 우리나라 단일유적 출토로는 최대의 양	청동기시대 (2000-01년 토지구획 사업중 출토)
평양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 유적	조(탄화립) 기장(탄화립) 수수(탄화립) 콩(탄화립)	36호 주거지, 신석기시대의 갈돌과 갈판	청동기시대 (행이형 토기)
경기도 양평 양근리 유적	콩·팥	토기 밑바닥에 콩이 박혔던 자리	청동기시대 (팔당 수몰지)
충북 청원군 공평리 유적	탄화된 팥, 콩, 벼, 피	주거지, 토기가마 (open kiln)	청동기시대(무문토기) (1993-94년 경부고속철도 공사)
경남 진양군 대평유적, I, II.	벼, 탄화미, 조, 기장, 콩류, 팥, 녹두	주거지구, 발 유구 (1,600평), 석관묘, 석기류	청동기시대(무문토기), (남강댐공사, 1997-98)



주거지 10호 전경

공평리유적전

공평리유적전

탄화미와 콩

콩(소형, 중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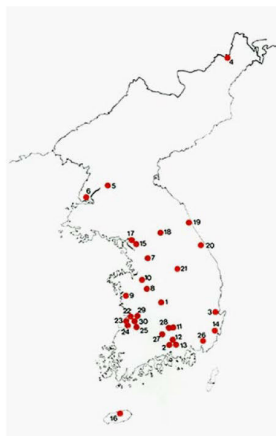
- 청동기시대 전기 : 콩의 재배 확인
- 청동기시대 후기 : 두류, 팥의 보편화

문화재청,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한국식품의 뿌리

1.4. 콩 식품 문화

콩 발효의 기원



한반도 출토 콩 관련 유적

콩을 발효하여 **장(醬)**을 만드는 기술은 콩의 식용과 거의 동시에 개발됐을 것이라 추측

- 근거 1: 기원전 6,000년경의 원시 토기문화시대에 곰팡이 활용 발효기술(누룩) 보편화
- 근거 2: 식염의 출현과 제조기술 습득

한국식품과학회 대두가공이용분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한국식품의 뿌리

1.4. 콩 식품 문화

한반도의 두장 문화(된장(醬)과 메주(豉)의 구분)



“폐백이 15수레, 쌀, 술, 기름, 꿀, 장(醬), 시(豉), 포, 식초가 135수레,
조가 150수레 였다”

〈 삼국사기 신문왕 683년 02월 (음) 〉



“장(醬)과 시(豉)는 동일한 것이 아니고 시는 장류의 일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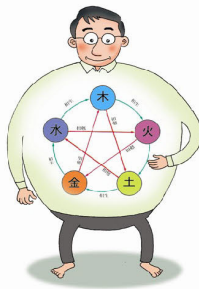
〈 아인각비(雅言覺非)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한국식품의 뿌리

1.5. 동의학 식이요법

동의학적 영양이론과 식이요법의 발전



오행의 다섯가지 맛으로
구분되어 인체의 장기, 느낌,
행동, 주위 환경과의
상극(相剋)과 상생(相生)의
관계로 연관

음식물의 음과 양의 성질
그리고
오미(五味)를 조화롭게
배합하여 섭취

음양과 오행에 따른 한국인의 식사 분석

	木(신맛)	火(쓴맛)	土(단맛)	金(매운맛)	水(짠맛)
陽(溫)	부추	쑥	냉이, 밀가루	골파, 마늘, 생강, 후추, 참깨	소금
중간 성질			물, 쌀, 콩, 조기		
陰(寒)	식초	더덕, 고사리	배추	양파	간장, 된장

대한한의학회,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한식 세계화 사례

1 햇반

상품 소개 및 시장분석

- 1996년 CJ제일제당은 국내 즉석밥(햇반) 첫 출시
- 국내 즉석밥 시장 점유율 1위로 꾸준한 선두 유지

표. 즉석밥 시장 점유율 (단위: %)

구분	CJ제일제당	오뚜기	기타
2019	70.7	28	1.3
2020	66.7	32.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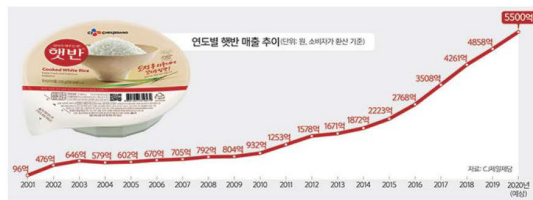


그림. 연도별 햇반 매출 추이



그림. 햇반의 역사

한식 세계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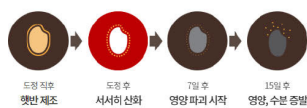
1 햇반

CJ제일제당의 햇반 특징

- 무균화 포장시스템
 - 반도체 공정 수준 클린룸에서 살균 뒤 밀봉 포장
 - 미생물 완벽 차단
 - 보존료 없이 9개월간 상온 보관 가능



- 당일 자가 도정 시스템 (24시간 내)
 - 국내 유일 당일 도정한 쌀로 제조
 - 자체 도정 설비를 통해 쌀 종류에 맞게 맞춤 도정 진행



햇반 용기

- 용기는 3중 재질, 비닐은 4중 특수 필름지로 제작
- 온·습도 영향 받지 않음
- 폴리프로필렌(PP) 소재로 환경호르몬 배출하지 않음



한식 세계화 사례

1 핫반

세계화 성공요인

- 글로벌 여행객에게 한국형 간편식(기내식) 제공
 - 한국 고유식품을 기내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핫반 외에 '핫반컵반' 제품을 통해 한국형 간편식 다양화
 - 연간 기내식 물량 500만개에 육박하는 성과



그림. 기내식으로 제공 및 판매되는 핫반, 핫반 컵반

- 국가별 시장과 소비자 니즈에 맞춤형 제품

- 제품명, 유통전략, 현지화 마케팅 차별화
- 미국 현지 자회사와 글루텐프리 표기 제품 출시 및 현지 마케팅
- 멕시코 시장용은 국내 제품 컨셉트와 유사하게 하고, 스페인어로 표기



그림. 미국 및 멕시코에 판매되는 핫반



그림. 미국 수출용으로 개발된 멀티그레인 제품

한식 세계화 사례

2 김치

상품 소개 및 시장분석

- 1988년 대상은 최초 포장김치 출시
- 1인 가구와 핵가족의 증가하는 시대 흐름과 외식 문화 확산으로 김치 소비량 감소 및 소비 트렌드 변화
- 포장김치 시장 확대 요인
 - 김장포기족의 증가, 포장김치의 품질 상승, 시판 김치 종류 다양화, K푸드 찾는 해외소비자 증가 등

표. 국가별 김치 수출액

구분	'17	'18	'19	'20	증가율	
					물량	금액
전체	81,394	97,456	104,992	144,512	34.2	37.6
일본	45,567	56,104	55,184	71,099	26	28.8
미국	7,246	8,969	14,802	23,059	66.2	55.8
홍콩	4,346	4,489	4,953	7,756	48	56.6
대만	4,440	5,099	4,781	5,871	21.4	22.8
호주	2,547	3,113	3,485	5,641	54.4	61.9
기타	17,248	19,682	21,787	31,086	137.7	42.7

자료원: KATI(AG코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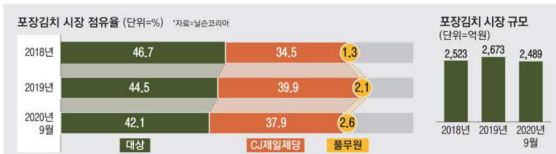


그림. 포장김치 시장 점유율 및 규모

50대 이상 '김포족' (김치포기족)의 포장김치 구매비율

2018년 61%

2019년 76%

김장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인

고된 노동과 후유증 75.1%

김치의 맛 10.6%

비용 부담 4.2%

보관 및 처리 8.6%

기타 1.5%

주부들의 올해 김장 계획

안한다 54.9%

한다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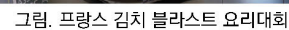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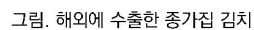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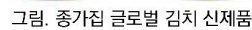
자료: '2019 대상에 총가집 김장 설문 조사' (3,115명의 주부 대상)



그림. 포장김치 및 김장 관련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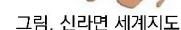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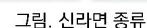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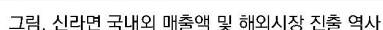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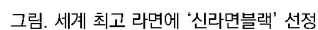
세계화 성공요인

- **김치 우수성·전통성 홍보를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활동**
 - 미국 뉴욕타임즈 지면에 '김치는 당연히 한국음식' 광고 게재
 - 김치 다큐멘터리인 '김치유니버스'를 국문·영어판 제작 및 게재
 -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글로벌 김치 요리대회 개최



상품 소개 및 시장분석

- 국내 첫 라면은 1963년 삼양식품이 '즉석 삼양라면'으로 출시
- 1986년 출시된 신라면은 1991년부터 국내 라면 업계 1위 자리 유지
- 2015년 식품업계 단일 브랜드 최초 누적매출 10조원을 돌파, 2021년 15조 3000억원 달성



한식 세계화 사례

3 신라면

세계화 성공요인

- **고유의 매운맛 그대로 수출, 마케팅은 현지 소비자 정서 반영**
 - '현지화' 전략이 아닌 신라면 고유의 매운맛 그대로 해외 수출
 - 중국 내 '농심 신라면배 바둑최강전'으로 브랜드 이미지 정착
 - 일본에서 '신라면의 날' 제정 및 '신라면 키친카' 운행
- **과감한 R&D 투자**
 - 초기 일본 기술에 의지하여 제품 생산했으나, 독자적 성장을 위해 자체 연구소 설립 및 R&D에 투자
 - 오일쇼크로 국내 경기 불황시에 안정스프링공장 준공하여 다양한 신기술과 최신 설비 적용
- **현지 유력 유통 채널 확보**
 - 온라인으로 식품 구입하는 중국 소비패턴을 활용하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등에 입점하여 판매
 - 미국에서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직거래 계약하여 미국전역에 라면 직접 공급
 - 일본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등에 입점하여 공급 물량 확대



그림. 신라면의 미국 및 이슬람 국가 수출용 제품



그림. 신라면의 중국 및 일본 현지 마케팅



한식 세계화 사례

4 포장두부

상품 소개 및 시장분석

- 1984년 풀무원은 국내 첫 포장두부를 출시
- 2011년 두부가 중소기업협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시장점유율 50%를 넘기지 못하는 등 제약이 따라,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현재까지 45~50%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풀무원 해외 진출 후 지속적인 적자였으나, 2020년 미국, 중국 법인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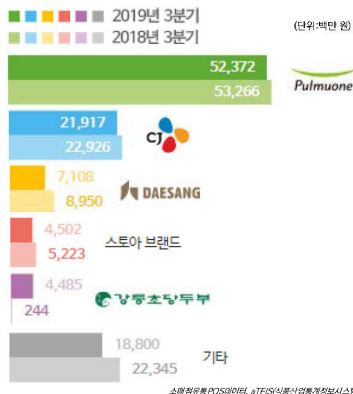


그림. 두부 제조사별 매출 규모



그림. 풀무원에서 출시한 두부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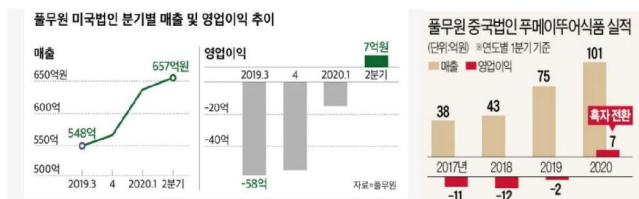


그림. 풀무원 미국법인과 중국법인 매출 및 영업이익

한식 세계화 사례

4 포장두부

세계화 성공요인

● 소비자가 안심하는 바른 먹거리

- 2001년 미국 코셔인증, 2005년 생산이력제 도입, 2006년 완전표시제 시행
- 2007년 생식품(냉장식품) 업계 최초 제품 유통기한·제조일자 병행 표기
- 2013년 풀무원 두부 전제품 친환경 포장 기술 적용
- 유기농 두부 2종에 저탄소인증, 탄소중립제품 인증 획득
- 무소포제 적용기술 및 무유화제 응고제 제조기술 보유
- 생산, 유통, 보관 등 전 과정에서 콜드체인 시스템 운영



그림. 풀무원 두부의 중국, 미국, 일본 수출 제품



그림. 풀무원 무소포제 적용 두부



그림. 풀무원 두부의 생산이력제



그림. 풀무원의 콜드체인 시스템

한식 세계화 사례

5 막걸리

상품 소개 및 시장분석

-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국내 막걸리 열풍으로 소비 성황
- FTA 체결국이 늘어나면서 막걸리 대체재를 이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막걸리 소비가 줄기 시작하였으나, 2016년 소폭 반등세를 보이며 2020년 일부 성장세가 유지됨
- 2020년부터 중가세에서 중량세로 변경됨으로 프리미엄 막걸리 생산 환경이 조성되어 막걸리 고급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

표. 막걸리 생산동향

구분		'15	'16	'17	'18	'19	'20
출고량(kg)		416,046	399,667	409,407	402,580	370,500	-
출고금액(천원)		470,061	454,068	446,852	459,066	442,967	-
수출	불량(톤)	13,898	13,054	12,904	12,848	12,772	12,556
	금액(천원)	12,902	12,868	12,247	12,410	12,191	12,469
단가/kg	수출단가(원)	0.98	0.94	0.95	0.97	0.95	-
원/liter	국내가격(원)	1,129	1,136	1,091	1,140	1,196	-

자료원: 2019년 국제통계연보(국제통계), 수출통계(KA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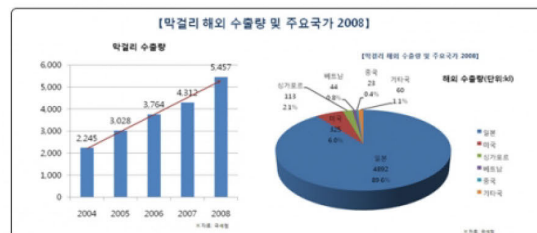


그림. 프리미엄 막걸리

한식 세계화 사례

5 맥걸리

세계화 성공요인

▶ 맥걸리의 출시

- 1992년 탁주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맥걸리(농주) 출시
- 뉴욕 한미식품협회 식품전시회 및 FODEX JAPAN93 등 해외 식품 전시회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
- 2011년 출하량 45만 Kℓ, 수출액 5273만 5000달러 육박함

▶ 소비자 니즈를 맞춘 다양한 제품 생산

- 기존 제품을 알코올 4~5도로 리뉴얼하여 고객층 다변화
- 낮은 도수의 맥걸리와 무알코올 맥걸리까지 다양화
- 프리미엄 맥걸리를 비롯한 특산물 맥걸리가 출시되며 MZ세대 소비자 확보



그림. 인천탁주의 농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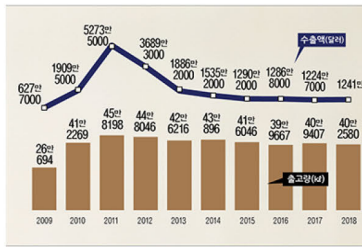


그림. 맥걸리 출고량·수출액 추이



그림. 맥걸리의 제품 다양화

한식 세계화 사례

6 소스류

상품 소개 및 시장분석

- ▶ 전세계적으로 슬로우푸드에 건강에 좋다는 인식에 의해 발효식품이 주목받았는데,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은 '발효'에 있음
- ▶ 2011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생산량이 주춤되었으나 프리미엄화에 의해 판매액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임
- ▶ 최근 장류 수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한류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음

표. 장류 5개년 수출 실적 (단위: 톤, 천불)

구분	2016		2017		201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계	35,132	62,327	36,820	62,117	39,988	70,246
고추장	14,011	31,329	14,710	31,966	16,737	36,813
기타장(쌈장)	3,440	7,916	3,409	7,548	3,528	7,789
간장	12,408	13,440	13,699	13,971	13,655	14,438
된장	4,519	8,098	4,368	7,236	5,257	9,189
춘장	754	1,544	634	1,396	811	2,017

구분	2019		2020 9월(잠정)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계	45,559	76,541	38,372	73,420
고추장	17,686	37,667	16,082	37,976
기타장(쌈장)	5,961	12,143	5,602	12,746
간장	15,377	15,225	11,073	11,560
된장	5,376	9,078	4,582	8,668
춘장	1,159	2,428	1,033	2,470

* 자료원 : 무역통계진흥원, KATI



그림. 샘플 수출용 간장 및 고추장

한식 세계화 사례

6 소스류

세계화 성공요인

● 탑 다운(Top-Down) 전략 도입

- 유럽, 미주 등지에서는 셰프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슐랭 셰프들에게 장을 소개하고 사용하는 전략 도입



그림. 샘표 '마드리드 퓨전' 한국대표 참가

● 장 페어링 맵 개발

- 외국인에게 장이 가지고 있는 맛, 향미, 사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장의 성격을 맛, 질감, 향미로 표현하고 익숙한 재료와 조리법을 설명한 장의 맛지도를 개발



그림. 샘표의 장 페어링 맵

한식 세계화 사례

7 구이김

상품 소개 및 시장분석

- 국내 조미김 시장은 1986년 동방유량이 해표김을 출시했고, 해태, 대한종합식품, 동원, 대상, 사조가 합류하여 치열한 경쟁
- 동원은 우수한 기술진 확보, 일본 최고의 위생적 생산라인 도입, 알루미늄 포장지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고, 현재까지도 김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김 수출은 BIG 5 중 미국, 일본을 제외한 중국, 태국, 대만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신흥국인 러시아의 부상에 따라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6억불 달성

표. 김의 수출동향

구분	'16	'17	'18	단위: 원천, 미단율 등					
				'19		'20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353.0	513.2	525.6	26.9	579.2	24.9	600.4	△7.4	3.7
미국	70.3	86.6	95.2	5.4	113.1	4.9	138.0	△8.3	22.0
일본	78.2	114.8	117.8	5.3	131.8	5.3	132.9	1.0	0.8
중국	68.2	88.9	84.0	4.9	112.2	3.8	100.8	△21.4	△10.1
태국	55.1	72.9	82.0	3.8	61.9	2.7	42.2	△28.6	△31.8
러시아	4.3	18.2	16.2	1.1	24.3	1.5	31.2	34.4	28.2
대만	18.9	33.0	32.2	1.2	27.9	1.2	26.5	△4.1	△5.1

자료원: KATI(AQ3도 기준)



그림. 양반김 매출액 추이 및 국내 조미김 시장 점유율

한식 세계화 사례

7 구이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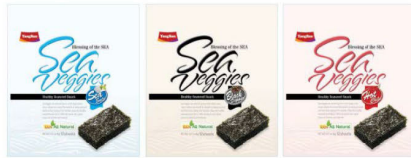
세계화 성공요인

- 현지 시장을 고려한 제품의 다양화
 - 일본은 김을 주로 술안주로 소비한다는 점을 착안해 2004년 아사히와 손잡고 김치맛, 와사비맛 김을 발매하여 인기
 - 미국의 경우 오리지널, 흑후추, 칠리맛의 김을 판매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생소한 조미김을 '바다야채'란 개념으로 홍보



(러시아) Sibuki 인삼김

(동남아) Kimmy(원쪽부터 클래식, 와사비, 김치)



(미주) Sea Veggies SEA SALT / BLACK PEPPER / HOT CHILI

그림. 동원 양반김의 다양한 수출용 제품

● 좋은 원초 찾기

- 엄격한 품질 조건에 맞는 김을 수매하기 위해 다양한 산지를 돌아다니며 각 김 양식장마다의 특징점을 분석하고 관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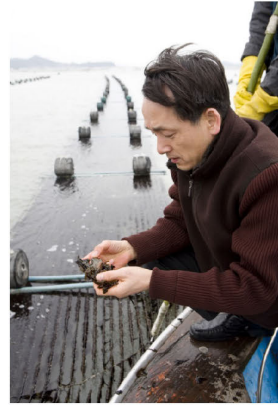


그림. 김산지에서 원초 품질 확인하는 국내 최초 김 원초감별사인 김예환 동원F&B 청주공장장

한식 세계화 사례

8 냉동만두

상품 소개 및 시장분석

- 국내 냉동만두 시장은 2013년까지 '고향만두'를 보유하고 있는 해태제과였으나, 2013년 CJ제일제당 '비비고 왕교자'를 출시하면서 이 후 시장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며 원톱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국내 냉동만두 시장 규모는 약 5455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HMR과 농산가공식품의 해외 수요가 증가되면서 한국 냉동만두의 인기 급등하였고,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냉동만두 시장이 크게 성장함



국내 만두 매출 현황 및 추이
(단위: 억 원)



그림. 국내 만두 매출 현황 및 추이

국내 냉동만두 판매 점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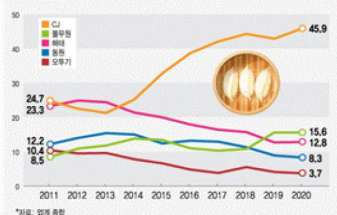


그림. 국내 냉동만두 판매 점유율

(단위: 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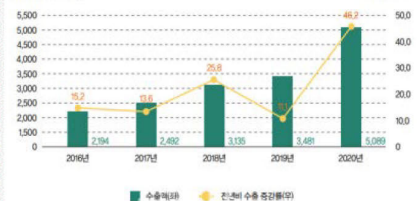


그림. 냉동만두 수출 동향

한식 세계화 사례

8 냉동만두

세계화 성공요인

● 국가별 현지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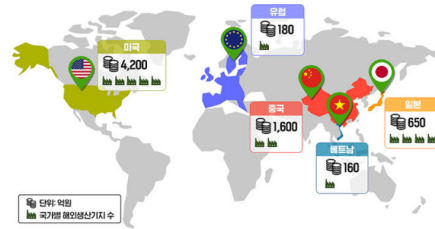
- 미국에서는 현지인에게 익숙한 한입 크기 비비고 미니완탕에 집중하여 'mandu(만두)'로 표기한 제품을 노출시켜 친밀도 높임
- 중국에서는 피가 얇고 고기와 야채가 많이 들어가 건강식 이미지 제고
- 유럽에선 아시아 식문화 수용도가 높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유통 채널 확대



그림.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수출용 제품

●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 2013년 한국, 미국, 중국 등 5개국에 있던 생산공장을 베트남, 일본, 독일 등 15개국으로 확대
- 미국에서는 2018년 인수한 냉동식품 기업(슈완스)의 유통망을 이용해 공급의 공격적 확대, 일본에서는 2019년 인수한 냉동 만두 기업(교자계획)의 영업망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



CJ제일제당 국내외 만두 매출(소비자가 환산) 및 글로벌 매출 비중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기)
총 매출	3,020	3,870	5,060	6,600	8,680	10,300
국내 매출	1,780	2,210	2,650	2,910	3,160	3,600
글로벌 매출	1,240	1,660	2,410	3,690	5,520	6,700
(해외비중)	(41.1%)	(42.9%)	(47.6%)	(55.9%)	(63.6%)	(65%)

그림. 비비고 만두 주요국 매출액 및 해외 생산기지

한식의 우수성과 경쟁력

3.1. 한식의 특징

① 주식과 부식의 조화

- 주식(쌀밥, 잡곡밥 등)과 부식(국, 찌개, 육류 등)을 같이 곁들여 먹음
-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펼쳐놓고 먹음

② 육류와 채소의 균형

- 한국의 대표 음식임 비빔밥, 잡채, 갈비찜 등의 재료를 보면 곡류, 채소류, 어육류 등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이 혼합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③ 담백한 조리법

- 한식은 주로 구이, 찜, 데치기 등의 담백한 조리법을 사용하여 지방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방도 주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음

④ 발효 위주의 식품

- 김치, 된장, 청국장, 고추장, 젓갈 등의 다양함 발효식품이 있으며 그 중, 김치는 세계 5대 식품 중 하나임

한식의 우수성과 경쟁력

3.1. 한식의 특징

표. 한식과 양식의 비교

	한식	양식
상차림	공간 전개형	시간 전개형
칼로리	400~500 kcal (비빔밥)	600~700 kcal (안심스테이크)
식물성 식품 비율	80%	40%
조리법	삶기, 찌기, 굽기 등 조리법이 다양함	굽기, 튀기기 등
음식재료	채소, 육류, 해산물, 곡류 등	육류, 채소
양념 종류	고추장, 식초, 간장 등	버터, 파슬리, 허브, 페이스트 등
주된 요리	비빔밥, 불고기, 찌개, 잡채 등	스테이크, 스프, 파스타 등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식의 우수성과 경쟁력

3.2. 영양의 균형

한식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구성 비율이 65%:15%:20%로 권장비율에 가까운 주식(곡류)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다양한 반찬(채소류/육류/생선류 등)으로 영양의 균형 식물성과 동물성 식품의 비율이 8:2로 적정(채소 위주의 반찬문화)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으며, 파이토케미컬이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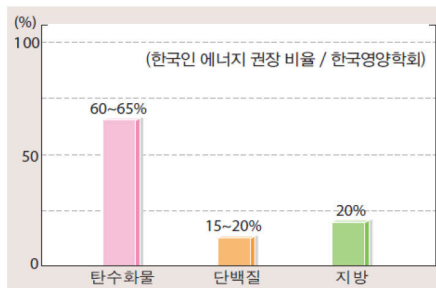


표. 지중해식과 한식의 비교

	지중해식	한식
정의	* 그리스의 크레타 섬과 남부 이탈리아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 * 올리브를 주로 경작하는 지중해 지역의 전통적인 식사 패턴	* 한민족이 수천 년간 먹어 온 고유한 음식이나 식사 * 우리나라의 고유 또는 이와 유사한 식재료 및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먹어 왔거나 현재 널리 먹고 있는 음식
구성	* 식물성 식품(과일, 채소, 빵, 곡류, 감자, 콩, 견과류, 종실류) * 올리브유 * 적정량의 유제품(치즈와 요거트) * 적정량의 생선 * 가금류 * 식사에 곁들이는 와인	* 곡류(쌀, 보리 등) * 채소류 * 두류 * 생선류 * 해조류 * 식물성 지방(참기름, 들기름 등)
영양	*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패턴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 38% : 16% : 46%)	*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사패턴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 55~70% : 7~20% : 15~25%)

→ 영양과 건강을 추구하는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

한식의 우수성과 경쟁력

3.3. 건강상 이점

약식동원(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음) : 파/마늘/생강/도라지/버섯/숙 등의 약용재료의 건강기능성
 한식이 공복혈당/콜레스테롤/고혈압 수치를 낮춘다는 임상 연구보고
 한식을 먹은 경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유익한 균이 증가(Nutrients)

한식 우수성 "미국 영양전문가도 인정했다"

— 미국인 대상 임상실험 통해 콜레스테롤·혈당 감소 확인 —



한식 (Korean Diet)

미국권장식 (US DGA)

미국일반식 (US TA)



그림. 식사별 장내 미생물 종의 수 변화

→ 한식의 본질, 어떤 식품, 어떤 영양소가 건강에 유익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영양학적 연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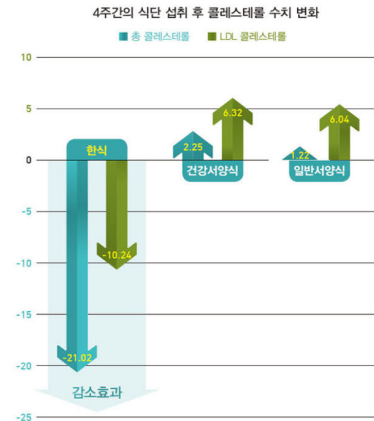


그림. 한식 임상시험연구 결과('17. 농촌진흥청)

한식의 우수성과 경쟁력

3.4. 저열량 식품

한식(통곡물/채소)은 서양식보다 저열량 식품(농림부, 한식 우수성 기능성 연구사업, 2012)
 구이, 찜, 데쳐서 무치는 등의 습열 조리법이 많아 조리 시 과량의 열량이 첨가되지 않음
 한식이 서양식보다 체중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Nutri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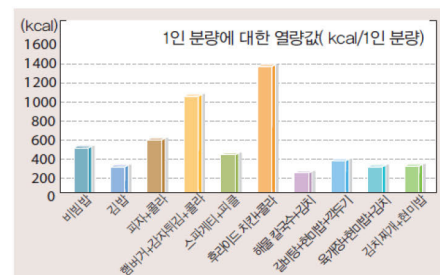
인체의 열량대사측면에서 서양식에 비해 저열량 건강식

— 한식의 열량이 식품성분에 따라 산출한 열량값보다 10%

적음(한국식품연구원)

— 서양 음식은 탄수화물과 지방 성분이 많아 실험값이 10% 정도 높고,

한식은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이섬유가 탄수화물과 지방의 인체 흡수를 줄이는 역할을 해 10%가량 낮음



→ K-다이어트로 브랜드화 가능성 : 통곡물/콩/채소의 포만감으로 인한 다이어트

3.5. 전통발효 식품

장류(된장/고추장/청국장/간장), 김치, 막걸리, 젓갈 등 다양한 전통발효식품이 한식의 주재료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발효 후에도 살아있는 유익균에 의한 장건강 증진

- 발효된 김치를 섭취한 그룹에서 비만관련 군주가 감소 (Mol. Nutr. Food Res., 2015)

발효를 통한 건강기능성의 증진 : 항산화/항암/항비만/면역 증강 효과

- 콩 발효음식은 B12(신경기능 유지·혈액생성·성장에 관여)가 풍부

세계 5대 건강식품 (미국 2006년 Health Magazine 선정)



한국의 대미 김치 수출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내 김치 판매 급증

(단위 : 백만 달러)



→ 발효식품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감사합니다.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김 정 년





Profile

김정년

학력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석사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박사

MIT biological engineering Post-doc

경력

前)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

前) 식약처 축산물위생심의위원

現)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장

現) 보건복지부 항생제내성포럼위원

現)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위원

現) 식약처 정책연구심의위원회위원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망

글로벌 코로나-19 장기화와 물류위기 속에서도 우리 농식품 산업은 2021년 역대 최초로 수출액 100억 불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K-food 열풍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수출증대를 위한 기회요인과 위기/제약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리 농식품은 '12년 수출액 80억불을 돌파한지 불과 10년만인 '21년에 113억불 수출을 달성하여 약 41%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과거 일본에 집중되었던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중국·미국이 일본과 더불어 3대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였으며, 對ASEAN 수출이 급속히 확대되어 최대 수출권역으로 부상하였다. 수출품목도 다양해져 라면, 음료, 김치, 장류 등 14개 품목이 연간 1억불 이상 수출되고 있다. 또한, 우리 식품기업들의 현지화 노력에 따라, 중국, 일본, 동남아부터 미주, 유럽, 대양주까지 전 세계 15개국에서 해외 생산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이다. 코로나-19의 따른 이동통제와 비대면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온라인마켓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소비자들은 편의성과 건강지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식품기업은 내수시장에서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e커머스 활용능력이 우수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은 발효식품·식물성식품·건강지향식품이 다양함에 따라, 이러한 글로벌트렌드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한류열풍 확산에 따른 국가브랜드 강화’이다. BTS 등 K-POP과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K-컨텐츠의 인기로 힘입어 음반, 영상물 수출액이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K-컬처 인기로 인해 해외 소비자들의 K-food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셋째, ‘메가 FTA체결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EU 등 58개국과 FTA를 이미 체결하고 있으며, 거대 신규경제권을 형성하는 메가 FTA체결에도 적극적이다. 세계최대 메가FTA인 RCEP이 올해 2월 발효되었으며, CPTPP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 농식품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21년 4분기 기준 55.8%로 전체

평균 75.7%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반면,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기 및 제약요인도 존재한다.

먼저, ‘세계 각국의 SPS 및 TBT 등 무역장벽의 확대’이다. SPS와 TBT는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까다롭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과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으로 전체 TBT 중 농식의약품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SPS 통보건수 중 식품안전분야 관련 비중은 무려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해외 주요국 통관 부적합 증가’이다. '18년~'20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5개국의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총 835건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가공식품 관련이었으며, 주요 부적합 원인으로는 표시기준, 식품첨가물·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요 비관세장벽 미해결 지속’이다.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신규 수출판로 개척 및 수출품목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육류 및 육류함유 제품의 경우 EU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도 가금육 외 타 육류(함유제품 포함) 수출이 불가한 실정이다. 인·홍삼의 경우에도 CODEX에서 식품으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국가에서 의약품 및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인허가 취득에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에도 일부 국가에서 과도한 위생기준 및 수입규격을 적용하여 통관거부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K-food 수출 증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출 확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각 기업은 급속히 확대되는 온라인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 수출)를 신규 수출동력으로 발판 삼고, 한류와 접목시킨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편의성·건강지향 등 글로벌 트렌드 흐름에 맞춘 수출품목 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관세혜택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제외국의 신규 비관세장벽에 대해 수출기업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보·공유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수출판로 개척에 제약이 되는 장기 미해결 비관세장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망

 **한국식품산업협회**
Korea Food Industry Association

CONTENTS

KFIA
www.kfia.or.kr

- 01**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 02**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 03**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 04** 제언

I.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농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출처: 국립농산물 수출조사 | © 농림 2022.12.03 13:50 | 5월 0

농수산물 16억 700만 달러 수출 실적 24억 800만 달러 기록



올해 농수산물 수출이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월 27일 기준 농수산물 수출액이 101억5000만 달러(농산물 76억7000만 달러, 수산물 24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농수산물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농수산물 수출액은 역대 최초로 100억불을 넘어 113.6억불 달성

2022.01.0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도 농수산물 수출액(잠정)이 역대 처음으로 100억불을 넘어 전년보다 15.1% 증가한 113.6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 85.4억불(12.9% ↑), 수산물 28.2(22.4% ↑)

농식품 분야에서는 국제적 물류대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 및 가정간편식 인기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고른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 신선농산물 1,571.1백만불(10.0% ↑), 가공식품 6,966.2(13.5 ↑)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치·인삼류 등 건강식품과 라면·과자류·음료·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열대·포도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I.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해외진출현황

수출



현지생산

I.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해외진출현황

수출



현지생산

I.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1. 농식품 수출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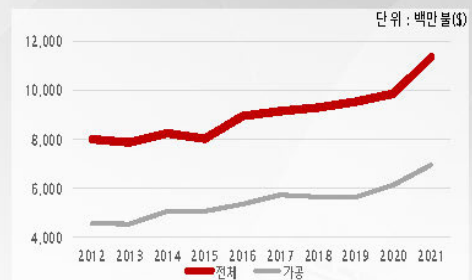
가. 연도별 농식품 수출 통계

*정부부처별 통계가 상이함에 따라, 수출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분석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추이 ('12~'21)>

단위 : 백만불(\$),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8,006.1	7,975.9	8,249.7	8,028.4	8,952.6	9,153.4	9,300.3	9,538.4	9,969.8	11,347.7
	-	(Δ1.63)	(4.75)	(Δ2.88)	(11.51)	(2.24)	(1.60)	(2.56)	(3.48)	(14.99)
농림축산	5,644.8	5,724.6	6,182.7	6,104.0	6,465.0	6,826.5	6,925.7	7,025.7	7,564.3	8,529.1
	-	(1.41)	(8.00)	(Δ1.27)	(5.91)	(5.59)	(1.45)	(1.44)	(7.57)	(12.75)
- 신선	1079.4	1180.5	1121.3	1035.9	1109.4	1095.3	1276	1381.2	1428.2	1570.7
	-	(9.37)	(Δ5.01)	(Δ7.62)	(7.10)	(Δ1.27)	(16.5)	(8.24)	(3.40)	(9.98)
- 가공	4,565.4	4,544.1	5,061.4	5,068.1	5,355.6	5,731.2	5,649.7	5,644.5	6,136.1	6,958.4
	-	(Δ0.47)	(11.38)	(0.13)	(5.67)	(7.01)	(Δ1.42)	(Δ0.09)	(8.71)	(13.40)
수산물	2361.3	-	2067.0	1924.4	2127.6	2326.9	2374.4	2503.5	2304.4	2818.6
	-	-	-	(Δ6.90)	(10.56)	(9.37)	(2.04)	(5.44)	(Δ7.95)	(22.31)



- ✓ 10년간 농식품 수출액 증가 추세
- ✓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폭 확대
- ✓ 2021년 수출액 100억불 돌파 (113억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aT, '12년~'21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참고하여 재구성

I.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나. 주요국가/권역별 농식품 수출 통계

- ✓ 일, 중, 미 3대 수출시장 형성
- ✓ ASEAN, 2021년 최대 수출권역으로 부상

<국가별 농식품 수출액 추이('12~'21) >

단위: 백만불(\$),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일본	1,407.6	25	1,286.6	22	1,316.3	21	1,832.2	23	1,158.7	18	1,313.7	19	1,323.8	19	1,426.9	20	1,336.4	18	1,422.6	17
중국	906.4	16	947.5	17	987.1	16	1,360.5	17	1,097.0	17	986.4	14	1,110.9	16	1,106.0	16	1,138.1	15	1,339.7	16
ASEAN	828.1	15	985.1	17	1,054.2	17	1,327.6	17	1,107.9	17	1,210.0	18	1,306.7	19	1,425.8	20	1,404.1	20	1,768.3	21
미국	473.1	8	522.7	9	594.3	10	859.0	11	715.9	11	745.7	11	802.0	12	874.2	12	1,206.2	16	1,262.3	15
EU	312.0	6	299.3	5	322.6	5	462.2	6	422.6	7	460.5	7	414.1	6	385.1	5	381.4	5	455.8	5
홍콩	268.8	5	346.0	6	368.5	6	399.2	5	330.2	5	340.2	5	371.4	5	352.9	5	372.7	5	399.3	5
대만	225.3	4	234.5	4	236.2	4	290.7	4	295.7	5	325.8	5	312.1	5	309.7	4	301.5	4	374.1	4
러시아	251.4	4	244.4	4	221.6	4	140.9	2	120.0	2	145.6	2	188.8	3	168.5	2	144.3	2	189.0	2
기타	972.1	17	858.5	15	1,081.9	17	1,356.1	17	1,217.0	19	1,298.6	19	1,095.9	16	976.6	14	1,199.6	16	1,318.0	15
계	5,644.8	100	5,724.6	100	6,182.7	100	8,028.4	100	6,465.0	100	6,826.5	100	6,925.7	100	7,025.7	100	7,564.3	100	8,529.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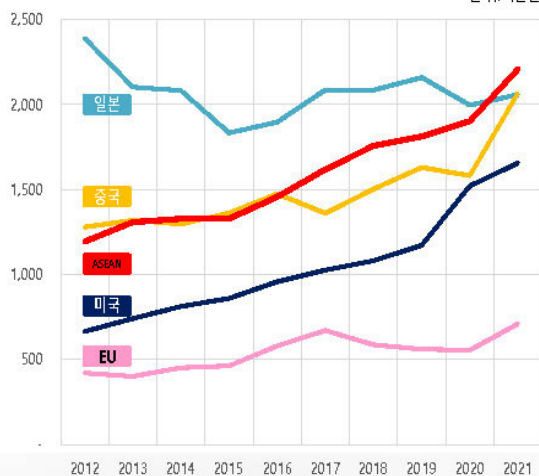
주: 농림축산식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15년은 수산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aT, 농림수산물 수출업동향 및 통계, 2012~2021 참고하여 재구성

I.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나. 주요국가/권역별 농식품 수출 통계

<주요국가/권역별 농식품 수출액 추이('12~'21) >

단위: 백만불(\$)



- ✓ 3대 수출국가 중 일본 수출액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국, 미국은 증가 추세
- ✓ 對ASEAN 수출 급속 확대, 최대 수출권역으로 부상
- ✓ EU시장 개척 아직 미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aT, 농림수산물 수출업동향 및 통계, 2012~2021 참고하여 재구성

I.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해외진출현황

수출



현지생산

I.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2. 주요 식품기업 현지진출 현황

✓ 13개사 15개국 진출 (생산법인 기준)

<주요 식품기업 현지 생산법인 현황>

(괄호는 진출기업 수)



자료: 기업별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재구성

I.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2. 주요 식품기업 현지진출 현황

<주요 식품기업별 현지진출국가>

번호	기업명	진출국가
1	농심	중국,미국
2	대성	중국,미국,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3	롯데제과	중국,미얀마,러시아,카자흐스탄,파키스탄,벨기에,인도
4	롯데칠성음료	중국,필리핀,미얀마,파키스탄
5	CJ제일제당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미얀마,러시아,브라질,미국,독일
6	아워홈	중국
7	SPC그룹	중국,베트남,프랑스
8	오뚜기	중국,베트남,뉴질랜드,미국
9	오리온	중국,베트남,러시아,인도
10	KGC인삼공사	중국
11	팔도	베트남,러시아
12	풀무원	중국,일본,미국
13	동원그룹	중국,미국,세네갈

자료: 기업별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재구성

진출형태별 구분

1. 수출 증가로 대규모시장 형성 후 현지 생산법인 설립 (일반적)
2. 단기간 로컬마켓 진입/안착을 위해 현지기업 M&A
예) CJ제일제당, 미국 슈완스, 러시아 라비올리 인수 등
3. 품목 특성상 현지생산법인 우선 설립/인수
예) 풀무원, 두부공장 설립(일본, 미국, 중국)
4. 원료산지에 생산법인 설립/인수하여 수출전진기지 및 원료조달기지 활용
예) 대성 인도네시아 미원, 오뚜기 뉴질랜드 법인
CJ제일제당 인도네시아 법인, 브라질 셀렉타

CONTENTS

KFIA
www.kfia.or.kr

01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02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03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04 제언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1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

2

한류 열풍 확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강화

3

메가 FTA 체결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1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

가. 온라인 마켓 성장

나. 편의성 증대

다. 건강 지향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1.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

가. 온라인 마켓 성장

<글로벌 e커머스(소매판매) 매출 및 점유율 추이/전망>



자료:ITA(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국), Impact of COVID Pandemic on eCommerce, 2021
 자료:ITA(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국), eCommerce Sales & Size Forecast, 2021

온라인 B2C 마켓

- ✓ 글로벌 e커머스(소매) 지속 성장 전망
- ✓ 특히, 코로나19 직후인 '19년~'20년에 매출 및 점유율 급증

* 매출 ('19) 3조 3천억불 → ('20) 4조 2천억불

* 점유율 ('19) 13.6% → ('20) 18%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코로나-19 전후 국가별 e커머스(B2B) 점유율 비교>



자료: ITA(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국), Impact of COVID Pandemic on eCommerce, 2021.10

온라인 B2B 마켓

- ✓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B2B시장에서도 e커머스 활용 전반적 증가
- 특히, 브라질·스페인·일본에서 급증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온라인마켓 장점

- ✓ 전자상거래 수출(크로스보더)은 직수출 대비
제외국 기준·규격·검역 문제에서 자유로움



K-강점

- ✓ 한국, e커머스 시장 비중 세계 2위
 - 이는 국내기업의 e커머스 활용 완숙도를 반영
 - 다양한 마케팅 기법 이해 및 운영 경험치 누적
(바우처, 카테고리 검색 등)
 - 한류 콘텐츠 활용한 마케팅 가능성 무궁무진

<전세계 주요국가별 e커머스 시장 비중 상위 10개국('21,'22년도)>

	2021	2022
1. China	52.1%	55.6%
2. South Korea	28.9%	31.6%
3. UK	28.3%	28.5%
4. Denmark	19.1%	19.8%
5. Norway	17.5%	17.7%
6. US	15.0%	16.3%
7. Finland	14.3%	14.4%
8. Sweden	13.2%	13.8%
9. France	11.2%	11.7%
10. Spain	10.9%	11.2%

Note: includes products or services ordered using the internet via any device, regardless of the method of payment or fulfillment; excludes travel and event tickets, payments such as bill pay, taxes or money transfers, food services and drinking place sales, gambling and other vice good sales
Source: eMarketer, Dec 2020

eMarketer | InsiderIntelligence.com

자료 : eMarketer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만 건, %)

구분	전자상거래				전체 수출	
	금액	증감률	건수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9년	193	43.0	251	49.8	542,233	△10.4
2020년	409	111.5	456	81.5	512,495	△5.5
2021년	858	109.9	749	64.5	644,439	25.7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5대 품목>

순위	HS CODE	품목명	금액(US\$)						순위		
			2019	2020	2021	증감률%	비중(%)		2019	2020	2021
1	3304	화장품	47,390	144,376	266,579	84.9	31.1		1위	1위	1위
2	8523	음반·영상물	2,070	13,375	70,631	428.1	8.2		19위	6위	2위
3	6211	의류	17,573	28,099	40,457	44.1	4.7		2위	2위	3위
4	3926	플라스틱류	3,905	5,965	40,299	573.4	4.7		10위	13위	4위
5	8507	축전지	7	25	36,315	143,455.2	4.2		50위권 밖		5위

자료 : 한국 무역통계진흥원

제인용 : 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 2021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동향 수출동향, 2022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현황

-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수출 비약적 성장
 - '21년 역대 최대실적 달성(8.6억 달러)
 - * 전년대비 증가율: ('20)111.5% , ('21)109.9%
- ✓ 한류관련 품목이 수출확대 견인 (K-뷰티, K-pop 등)

➡ 식품업종 전자상거래 수출확대 노력 필요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나. 편의성 증대

<집콕 제품 연도별 수출액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즉석조리식품	수출액	25,305	25,848	34,930
	(성장률)	-	(2.2)	(35.1)
라면	수출액	348,133	459,966	687,107
	(성장률)	-	(32.1)	(49.4)
합계		373,438	485,814	722,037

주: 1) 즉석조리식품: 순대, 국, 탕, 수프 등

2) 라면: 유탄면(봉지라면, 용기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를 재구성

현황

✓ 즉석조리식품, 라면 수출액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및 트렌드 변화
(조리 편의성 선호)

K-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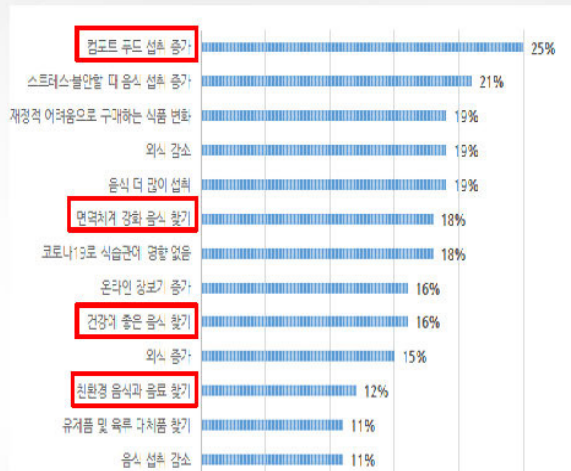
✓ 한국기업,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품력 보유

(맛, 품질, 안전성, 기술력)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다. 건강 지향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식습관>



자료: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제인출: aT뉴욕지사, 2021년 상반기 미국조사 미국 식품 유통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진출전략 조사, 2021

현황

✓ 코로나19 이후 컴포트 푸드,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등 건강 지향 음식 섭취 증가

K-강점

✓ 한국식품은 발효식품 및 식물성 식품이 다양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널리 인식됨

- 홍삼, 김치, 장류, 두부 등

* 중국 SARS사태 시 홍삼, 김치 수출증가와 유사형태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다. 건강 지향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식습관>



SARS에 따른 對중국 수출 증가('02→'03)

✓ 김치 : 전년대비 348.1% 증가

✓ 홍삼 : 전년대비 149.5% 증가

향후

화에 좋은

K-강점

✓ 한국식품은 발효식품 및 식물성 식품이 다양
특히, 면역력 강화에도 이 된다고 널리 인식됨

- 홍삼, 김치, 장류, 두부 등

* 중국 SARS사태 시 홍삼, 김치 수출증가와 유사형태

자료: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제인용: aT농목지사, 2021년 상반기 이습조사 미국 식품 유통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진출전략 조사, 2021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1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

2

한류 열풍 확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강화

3

메가 FTA 체결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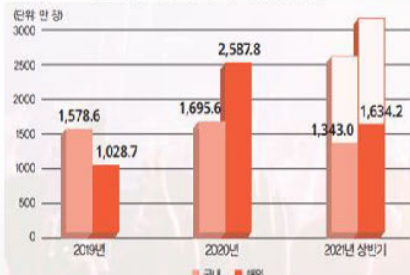
Ⅱ.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 ✓ BTS, 블랙핑크 등 K-POP의 인기에 힘입어 음반과 영상물 수출액이 해마다 역대 최고치 경신
- ✓ '21년, K-POP 음반 수출액이 전년대비 62.1% 급증한 2억 2,000만달러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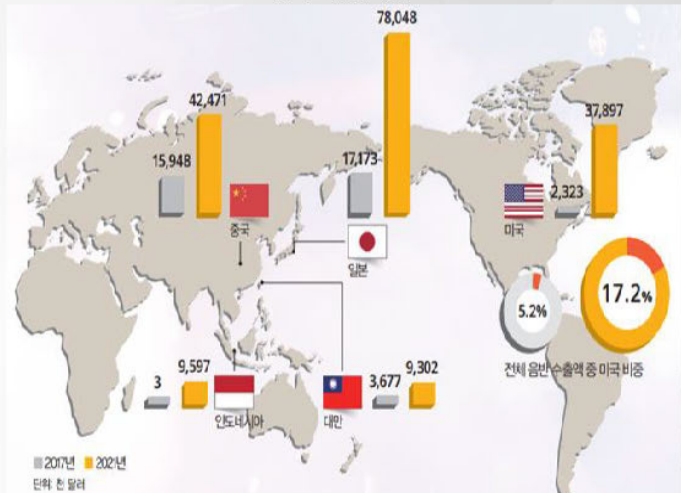
<최근 5개년 K팝 음반 수출액 추이>



<연간 앨범 국내외 판매현황>



<2021년 K팝 음반 수출 TO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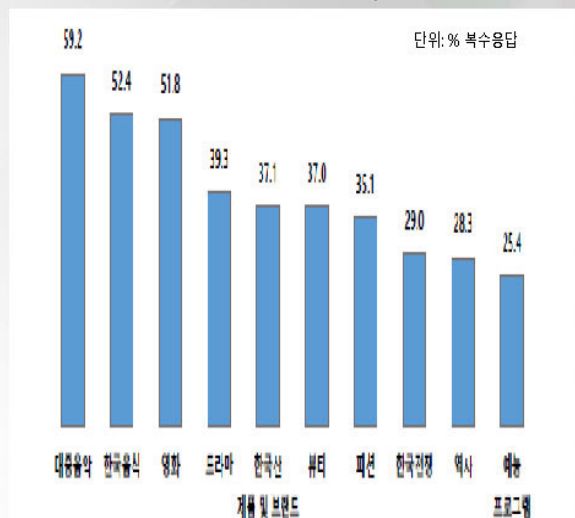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 대중음악, 한국음식, 영화, 드라마, 뷰티, 패션, 예능 등

K-강점

- ✓ 한류열풍이 한국식품 관심 확대 및 수출증가 기여
 - 한류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마케팅 활용 가능

<한국 분야별 인지도 Top10>



자료 : 해외문화홍보원, 2021 국가이미지조사보고서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사례 1

기생충(2019)

- ✓ 영화 '기생충'의 성공여파로 한국라면(짜파구리) 수출 증대
- ✓ 코로나19여파와 짜파구리 효과로 2020년 1~3월 수출 2,502억원으로 전년대비 26.5% 증가



기생충



'오소파구리'

짜파구리

자료:농심홈페이지



시네컬 카페 '기생충 세트' 이어 SNS 티고 인종 유행
"짜장면이랑 달라" "한국 '쌈' 문화 있어" 정보 공유

파라사이트 半地下의家族 COLLABORATION
1/10-1/30

PARASITE SET 1,500-

CLASS SOCIETY: PEACH COCKTAIL 900-

CLASS SOCIETY: PEACH COCKTAIL 900-

CLASS SOCIETY: PEACH COCKTAIL 900-

CLASS SOCIETY: PEACH COCKTAIL 900-

CLASS SOCIETY: PEACH COCKTAIL 900-

CLASS SOCIETY: PEACH COCKTAIL 900-

CLASS SOCIETY: PEACH COCKTAIL 900-

CLASS SOCIETY: PEACH COCKTAIL 900-

CLASS SOCIETY: PEACH COCKTAIL 900-



노르 시네컬 카페 '기생충 세트' 이어 SNS 티고 인종 유행
"짜장면이랑 달라" "한국 '쌈' 문화 있어" 정보 공유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사례 2

오징어게임(2021)

- ✓ '오징어 게임' 한국드라마 최초 전 세계 넷플릭스 인기 TV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흥행 돌풍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 전세계 유튜브버들의 오징어게임 속 식품 먹방 챌린지 대 유행

미국인들, '오징어게임 달고나' 본 뒤 K-과자 찾는다 **수출 40% 급증**

관세청 수출입 통계
오징어게임 개봉전 2021년 9월 이후 급증
오리온 과육산, 롯데제과 아이베이크드, 빙그레 비르나...미주 시장 판매량
농산물 기상급격 꺾쳐 동두 수출 증가세

박지현 기자

한국경제 2021.09.27 08:00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징어 게임'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넷플릭스 연재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미국에서도 '오징어 게임'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넷플릭스 연재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미국에서도 '오징어 게임'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왼쪽부터) 오징어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 (가운데) 오징어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 (오른쪽) 오징어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



출처: YOUTUBE영국남자조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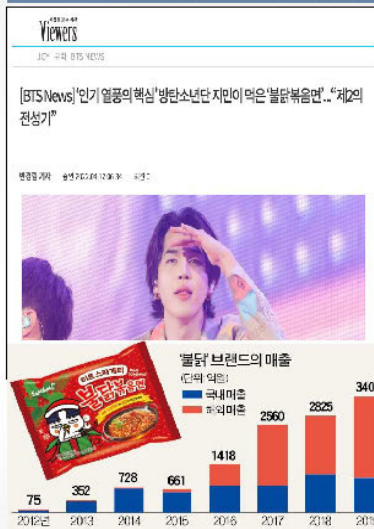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사례 3

BTS

✓ BTS 멤버의 먹방을 통해 '불닭볶음면 챌린지' 전세계 유행 → K-먹방 관심 증가 → K-HOT 카테고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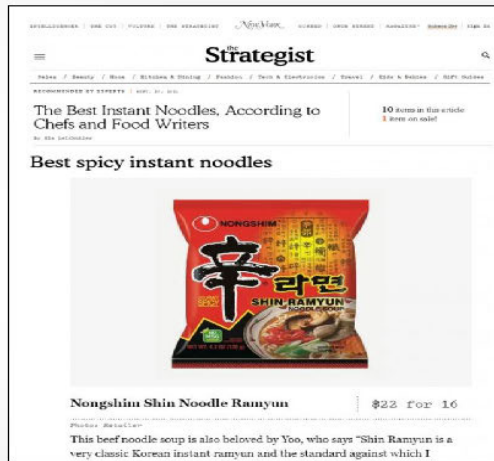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라면시장 성장과 함께, BTS 영상으로 삼양식품 매출 전년대비 미국 243%, 중국 170% 증가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사례 4 해외언론 관심증대

- ✓ 2021년, 미국 한 주간지에서 '최고의 라면 10가지' 중 하나로 신라면을 선정
 -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인 '신라면'은 모든 라면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만한 음식이다"
- ✓ 뉴욕타임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계란밥(Gyeran-bap)'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간장계란밥을 조명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1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

2



한류 열풍 확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강화

3



메가 FTA 체결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3. 메가FTA 체결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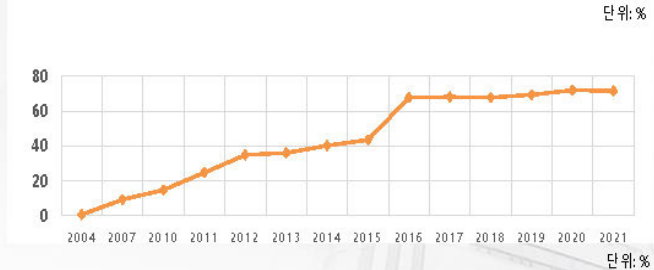
- ✓ '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중국, 미국, EU, 아세안 등 주요 58개 국가와 18건의 FTA를 체결
- ✓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71.6% 달성

<한국 FTA 추진현황>



주: '22.4월 현재 발효 기준(검색일: '22.4.11.)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FTA 현황

<전체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



연도	2004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0.6	9.2	14.7	24.7	34.8	36.0	40.2	43.4	67.8	68.2	67.8	69.4	72.0	71.6

자료: 관세청, 2021년 4분기 FTA 활용지도

II.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메가 FTA

- ✓ 누적원산지 규정에 따라, 관세 혜택수혜 가능성 확대
- ✓ FTA 협정에 중복 체결된 국가의 경우 유리한 협정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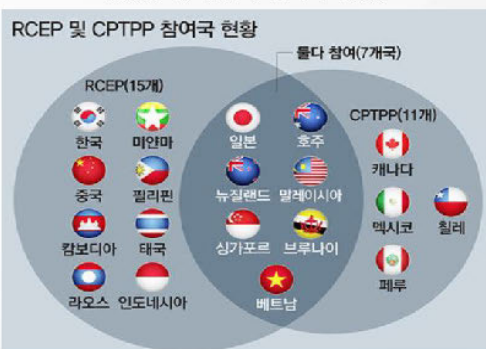
→ 우리나라, RCEP 발효('22 2월) 및 CPTPP 준비 중

식품업계 현황

- ✓ 농식품류 수출 FTA활용률이 타 산업에 비해 저조
 - 원산지 결정기준 등 이해 부족으로 활용 애로
 - * 농식품 FTA활용률: 55.8% (전체평균: 75.7%)

→ FTA 및 메가FTA 향후 활용여지 高

<RCEP 및 CPTPP 참여국 현황>



자료: 구글

<산업별 '21년 4분기 FTA 수출>

구분	FTA 활용대상		FTA 적용		활용률 (%)
	금액	비중 (%)	금액	비중 (%)	
농림수산물	2,554,682	1.4	1,426,583	1.1	55.8
광산업	9,319,624	5.3	7,471,551	5.6	80.1
화학공업제품	42,607,887	24.1	31,467,945	23.5	73.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0,521,113	6.0	7,379,906	5.5	70.1
섬유류	6,258,849	3.5	3,329,381	2.5	53.2
생활용품	3,203,459	1.8	2,110,714	1.6	65.9
철강금속제품	17,458,911	9.9	10,765,354	8.1	61.7
기타류	65,667,410	37.2	56,812,860	42.5	86.5
전자전기제품	18,891,429	10.7	12,912,683	9.7	68.3
합계	127,763	0.1	51,254	0.0	40.1
총합계	176,611,128	100.0	133,728,231	100.0	75.7

자료: 관세청, 2021년 4분기 FTA 활용지도

CONTENTS

KFIA
www.kfia.or.kr

- 01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 02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 03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 04 제언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1

SPS/TBT 확대

2

해외 주요국 통관 부적합 증가

3

주요 비관세장벽 미해결 지속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1

SPS/TBT 확대

2

해외 주요국 통관 부적합 증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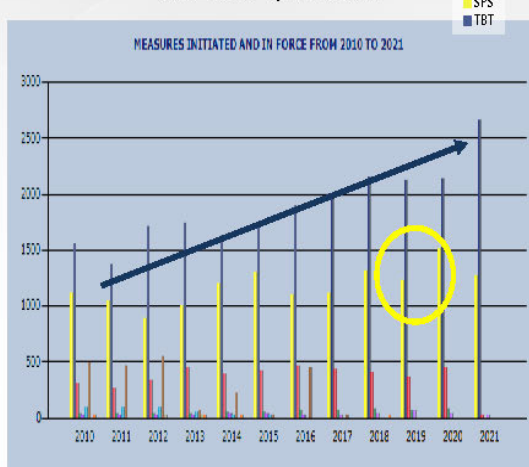
주요 비관세장벽 미해결 지속

© 2022. All rights reserved.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1. SPS/TBT 확대

<연도별 SPS/TBT 동향>



자료: WTO

✓ SPS/TBT 지속적 증가 추세

- 동식물 위생(SPS), 무역기술장벽(TBT)이 까다롭고 복잡해지는 경
향

* 수입 식품 검역 강화, 식품 위생 및 안전강화, 통관 규정 개정 등

© 2022. All rights reserved.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2020년 산업별 TBT 통보문 현황>



*자료: 국가기술표준원(TBT협약사무국), 2020년도 TBT 통보문 동향보고서 12월호(2021. 2.)

✓ TBT 전체 통보문 중 농식의약품 비중,
40% 차지('20년 기준)

- 식의약품 36%, 농수산물 4%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WTO SPS 통보 중 식품안전분야 비중(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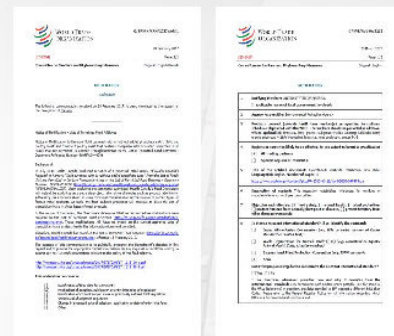
월	총 SPS건수	식품안전 분야	
		건수	비중(%)
1	167	117	70
2	155	96	62
3	171	114	67
4	193	116	60
5	131	79	60
6	132	79	60
7	213	162	76
8	123	86	70
9	174	120	69
10	171	114	67
11	262	176	67
12	161	108	67
합계	2,053	1,367	67

* 자료 : 농식품부 SPS INFO NEWS 월간 월진을 참고하여 재구성

✓ WTO SPS 통보건수 중 식품안전분야 관련 비중
67% 차지 ('20년 기준)

- 총 SPS 통보 2,053건 중 식품안전분야 1,367건

* 그 외 사유 : 동물위생, 식물보호,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의 건강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보호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1

SPS/TBT 확대

2

해외 주요국 통관 부적합 증가

3

주요 비관세장벽 미해결 지속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2. 해외 주요국 통관 부적합 증가

<주요 수출국 부적합 현황('18년~'20년)>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	합계
가공식품	309 (37.0)	150 (18.0)	42 (5.0)	10 (1.2)	8 (1.0)	519 (62.2)
건강식품류	40 (4.5)	1 (0.1)	0	0	1 (0.1)	42 (5.0)
농산물	59 (7.1)	0	7 (0.8)	50 (6.0)	1 (0.1)	117 (14.0)
수산물	108 (12.9)	6 (0.7)	16 (1.9)	0	17 (2.0)	147 (17.6)
기구용기포장	0	0	5 (0.6)	1 (0.1)	0	6 (0.7)
기타	2 (0.2)	1 (0.1)	1 (0.1)	0	0	4 (0.5)
합계	518 (62.0)	158 (18.9)	71 (8.5)	61 (7.3)	27 (3.2)	835 (100)

[단위: 건, ()는 비율, %]

자료: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18년~'20년)

✓ 해외 주요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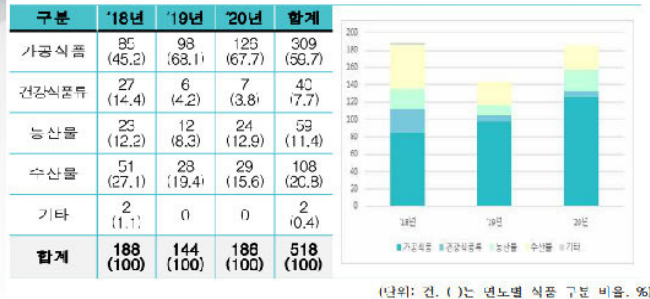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지속 발생

- ('18~'20) 총 835건, 연평균 278건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미 국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연도별/식품유형별)>



<부적합 사유('18~'20)>

구분	가공식품	건강식품류	농산물	수산물	기타	합계
표시기준 위반	595 (57.4)	56 (5.4)	7 (0.7)	21 (2.0)	1 (0.1)	680 (65.6)
비위생적 처리	18 (1.7)	0	31 (3.0)	64 (6.2)	0	113 (10.8)
적용불량	28 (2.7)	0	21 (2.0)	0	0	49 (4.7)
식품첨가물	37 (3.6)	0	2 (0.2)	2 (0.2)	2 (0.2)	43 (4.2)
미생물	6 (0.6)	0	8 (0.8)	37 (3.6)	0	51 (4.9)
유해물질 함유	7 (0.7)	0	12 (1.2)	3 (0.3)	0	22 (2.1)
기타	52 (5.0)	14 (1.4)	8 (0.8)	4 (0.4)	0	78 (7.5)
합계	743 (71.7)	70 (6.8)	89 (8.6)	131 (12.6)	3 (0.3)	1,036 (100)

(단위: 건, ()는 비율, %)

자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18년~'20년)

<미국 부적합 현황('18~'20)>

✓ 품목별 부적합 비중

- 가공식품(59.7%), 건강식품(7.7%) 등

✓ 주요 부적합 원인

- 표시기준 위반(65.6%), 비위생적 처리(10.9%)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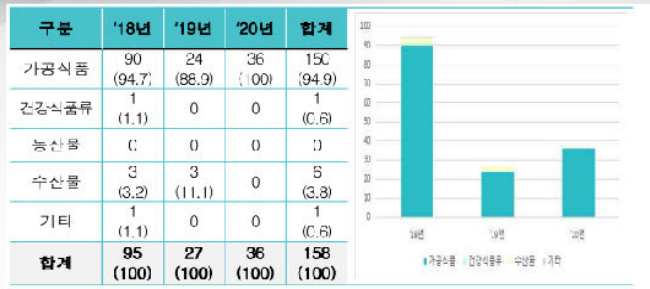
※ 주요 표시기준 위반 사례

- 성분·영양정보·영어·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중 국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연도별/식품유형별)>



<부적합 사유('18~'20)>

구분	가공식품	건강식품류	수산물	기타	합계
기타	57 (33.9)	0	5 (3.6)	1 (0.6)	64 (38.1)
식품첨가물	43 (25.6)	0	0	0	43 (25.6)
미생물	30 (17.9)	0	0	0	30 (17.9)
표시기준 위반	19 (11.3)	1 (0.6)	0	0	20 (11.9)
품질규격	7 (4.2)	0	0	0	7 (4.2)
유해물질 함유	2 (1.2)	0	0	0	2 (1.2)
속냉속	2 (1.2)	0	0	0	2 (1.2)
합계	160 (85.2)	1 (0.6)	6 (3.6)	1 (0.6)	168 (100)

(단위: 건, ()는 비율, %)

자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18년~'20년)

<중국 부적합 현황('18~'20)>

✓ 품목별 부적합 비중

- 가공식품(94.9%), 수산물(3.8%) 등

✓ 주요 부적합 원인

- 식품첨가물(24.6%), 미생물(17.9%) 등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일본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연도별/식품유형별)>

구분	'18년	'19년	'20년	합계
가공식품	14 (56.0)	12 (75.0)	16 (53.3)	42 (59.2)
수산물	7 (28.0)	1 (6.3)	8 (26.7)	16 (22.5)
기후응기 포장	3 (12.0)	2 (12.5)	0	5 (7.0)
농산물	1 (4.0)	0	6 (20.0)	7 (9.9)
기타	0	1 (6.3)	0	1 (1.4)
합계	25 (100)	16 (100)	30 (100)	71 (100)

(단위: 건, ()는 인도별 식품 구분 비율, %)



<부적합 사유('18~'20)>

구분	가공식품	기후응기 포장	농산물	수산물	기타	합계
미생물	30 (38.5)	0	1 (1.3)	8 (10.3)	0	39 (50.0)
식품 첨가물	16 (20.5)	1 (1.3)	0	0	0	17 (21.8)
잔류농약	0	0	8 (10.3)	0	0	8 (10.3)
생물독소	0	0	0	7 (9.0)	0	7 (9.0)
유해물질 함유	0	0	0	2 (2.6)	0	2 (2.6)
중금속	0	2 (2.6)	0	0	0	2 (2.6)
기타	0	2 (2.6)	0	0	1 (1.3)	3 (3.8)
합계	46 (59.0)	5 (6.4)	9 (11.5)	17 (21.8)	1 (1.3)	78 (100)

자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18년~'20년)

(단위: 건, ()는 비율, %)

<일본 부적합 현황('18~'20)>

✓ 품목별 부적합 비중

- 가공식품(59.2%), 수산물(22.5%) 등

✓ 주요 부적합 원인

- 미생물(50%), 식품첨가물(21.8%), 잔류농약(10.3%)

등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1

SPS/TBT 확대

2

해외 주요국 통관 부적합 증가

3

주요 비관세장벽 미해결 지속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3. 주요 비관세장벽 미해결 지속

육류 및 육류함유 제품

➡ 육류 및 육류함유제품 수출 불가로 신규시장 진출 제약



한국산 육류함유 가공식품 수출 불가

- EU 육류 수출허가국의 육류가공품을 사용해도 한국에서 제조 시 수출불가



가금류 가공식품(삼계탕) 외 수출 제약

- 소량육류함유제품(2% > 생육, 3% > 가공육)이 아닌 육류포함제품은 USDA 승인 작업장에서만 허용
- 삼계탕 외 국내 USDA 승인작업장 전무



가금육가공품, 유가공품 외 수출불가



열처리식육가공품(가금육/돈육) 외 수출불가



가금류 외 육류제품 수출불가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인 · 홍삼 제품

➡ CODEX 식품으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가에서 의약품/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인허가 취득 애로 지속



6년근 이상 인삼 함유식품을 보건식품으로 분류 및 규제



진세노사이드의 사용목적 및 함량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 및 규제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증 획득에도 불구하고, 독일 1일 권장량 이상 함유 시 의약품으로 분류



건강보조식품·홍삼분말 포함의 리벨링 규정 및 광고규제 강화



전통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인허가 취득 애로



홍삼제품 약초보충제 분류되어 유통 제약 (캔디/음료만 일반식품으로 분류)

Ⅲ.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김 제품

➡ 일부 국가에서 과도한 위생기준 및 수입규격을 적용, 통관거부사례 발생



조미김에 과도한 세균수 기준 적용에 따른 통관거부사례 빈번 발생



EU 차원 해조류 요오드 함량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오드 과다검출로 인한 통관거부 빈번
- 해조류 제품에 요오드 함량 및 주의사항 등 표기필수 섭취량 20mg/kg 초과 식품 판매불가



무기비소 최대 잔류허용기준 증명 성적서 요구



마른김에 대한 일반 세균수 기준 설정으로 통관애로 발생

© 2022.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KFIA
www.kfia.or.kr

01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02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03 수출확대에 대한 위기/제약요인

04 제언

© 2022. All rights reserved.

IV. 제 언

기회요인 적극 활용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크로스보더/e커머스 적극 활용

글로벌 트렌드 흐름에 맞춘 수출품목 개발 지속 노력

한류와 접목시킨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안 적극 활용

제약요인 해소 노력

상대국 기준, 규격에 부합하도록 수출 사전준비 철저

신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정보공유 필요

정부의 미해결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절실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 시장 확대 기대

감사합니다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부장 윤 은 옥





Profile

윤 은 옥

학력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 박사(수료)

경력

前) 한국외식정보(주) 월간식당 취재부 차장

現)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부장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국내 외식산업은 2019년 기준 매출액 144조원, 사업체수 73만여개, 종사자수 219만여명으로 외형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외식산업의 선진화 평가 지수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 산업 역시 2021년 기준 4973개로 최근 8년간 연평균 8.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외식산업의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국내 외식산업의 해외진출로 2019년 기준 39개국에 135개 브랜드, 3409개 점포가 진출(aT외식기업해외진출실태조사)해 있으며, 국내 진출 뿐 아니라 현지에서 오픈한 한식당을 종합해 보면 2020년 4만여개로 추정(한식진흥원)됨. aT 조사 기준 해외진출 외식기업 현황을 보면 브랜드 수와 점포수 기준 모두 중국, 미국, 베트남 등에 주로 진출해 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등의 진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요 진출국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업종별로 보면 과거 한식 중심에서 기업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SNS 등을 통해 한식 및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한국형 서양식과 디저트 업종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이러한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됐으며, 이후 국내 외식산업의 성장 및 선진화, 치열해지는 국내 시장을 벗어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과 함께 한식 세계화 선포식 및 해외진출 외식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육성 정책, 그리고 드라마, 팝, 음식 등 K-culture 등으로 인해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형태도 현지의 산업현황 및 트렌드, 대한민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한류의 지속성 및 다양성, SNS 등 정보공유 속도 및 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업종 및 업태, 메뉴 뿐 아니라 운영방식, 컨셉, 진출 국가, 마케팅 전략 등에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음.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한류라 할 수 있는데, 11개 분야의 한국문화 콘텐츠 브랜드 파워 지수를 보면 음식이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미슐린 가이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에 선정되는 한식당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한식당을 경험해 본 외국인들의 비율도 지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현지의 외식산업 현황 및 트렌드,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역시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 외식산업의 경쟁력 구축 및 안정화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함.

한편 aT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해외진출의 외식기업 수 및 점포수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점포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7.6개의 기업이 철수하는 등 진출 못지 않게 철수기업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외식기업의 철수 및 영업부진에는 진출 국가에 대한 불충분한 사전 조사, 국가별 맞춤형 전략 부재, 현지화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 aT 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 중 절반 가까이가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도 67%에 이룸. 이 외에 인력관리, 법 및 제도, 현지문화, 코로나-19 등 해외진출 외식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산재해 있음.

국내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은 외식기업 뿐 아니라 외식산업,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효과를 보이고 있음. 외식기업 측면에서는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익구조 개선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가 있으며,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의 성장과 선진화 도모, 그리고 국가 측면에서는 식재료 및 기기/기물 등의 수출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한국 외식브랜드 경험을 통한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은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 변화와 함께 국내 외식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선진화, 해외 시장 현황 및 니즈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 전략 역시 과거의 전략이 아닌, 변화를 감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이에 따라 외식기업들은 해외진출을 계획함에 있어 해외진출의 목적이 무엇인지, 현지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브랜드만의 포지셔닝과 경쟁력은 무엇인지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조사, 계획 수립이 필요함.

특히 해외 시장은 현지 브랜드 뿐 아니라 각국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의 진출이 계속 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빠른 트렌드 변화, 외식 소비자들의 니즈 다양화, 그리고 국내와는 또 다른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 수립 보다는 관점을 바꿔 ‘우리 브랜드가 해외에서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실패 요인을 없앨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2022. 06. 23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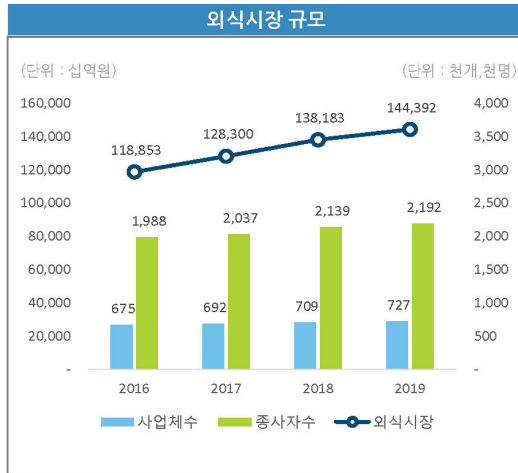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과제



CONTENTS

- 01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 02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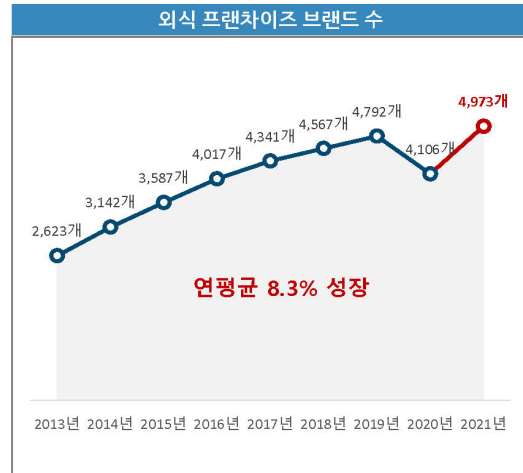
01 국내 외식산업 규모



2019년 외식시장 규모

- 매출액 : 144조원
- 사업체수 : 약 73만개
- 종사자수 : 약 219만명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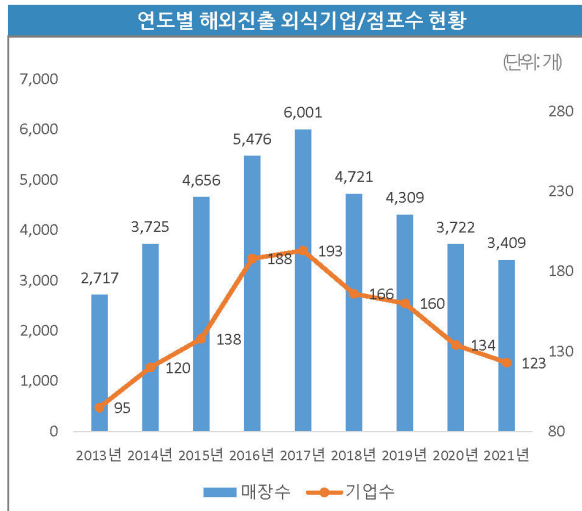
2021년 외식 프랜차이즈 규모

- 브랜드 수 : 4,973개
- 연평균 성장률 8.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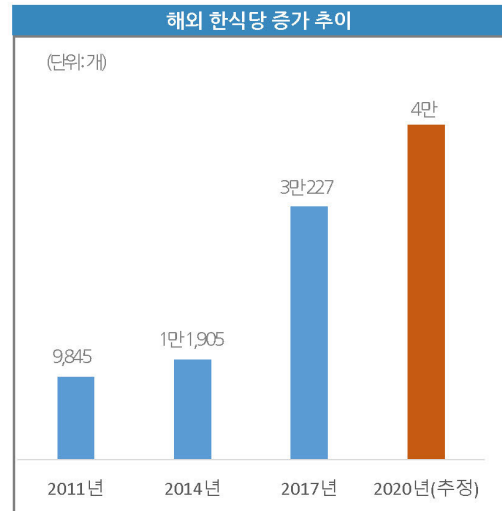
02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2021년 9월 조사 기준

- 해외진출 기업 : 123개
- 해외진출 브랜드 : 135개
- 해외진출 매장수 : 39개국 3,409개

*자료: a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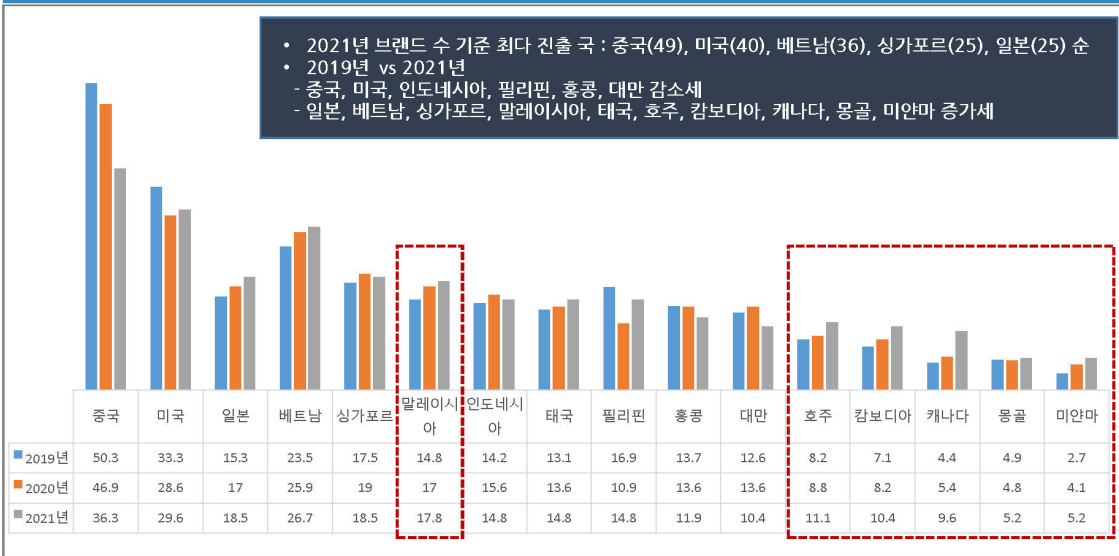
- 해외 한식당 수 : 2011년 9,845개에서 2020년 4만개

*자료: 한식진흥원

4

02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주요 국가별/연도별 진출 현황 - 총 브랜드 수 기준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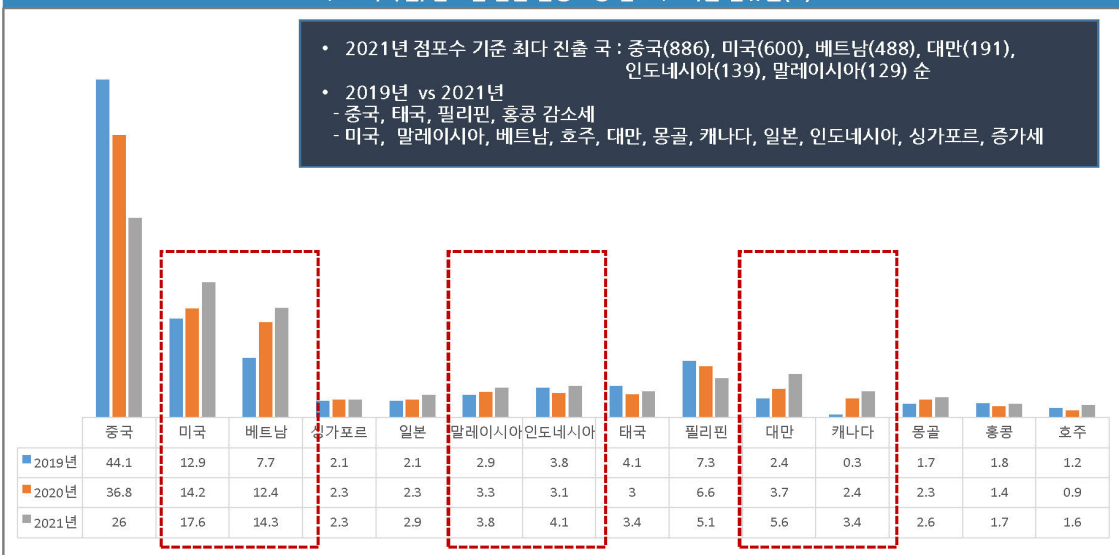
*자료 : aT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총 브랜드 수 기준 : 2019년 183개, 2020년 147개, 2021년 135개 기준

5

02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주요 국가별/연도별 진출 현황 - 총 점포수 기준 점유율(%)



*자료 : aT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총 점포수 기준 : 2019년 4,309개, 2020년 3,722개, 2021년 3,409개 기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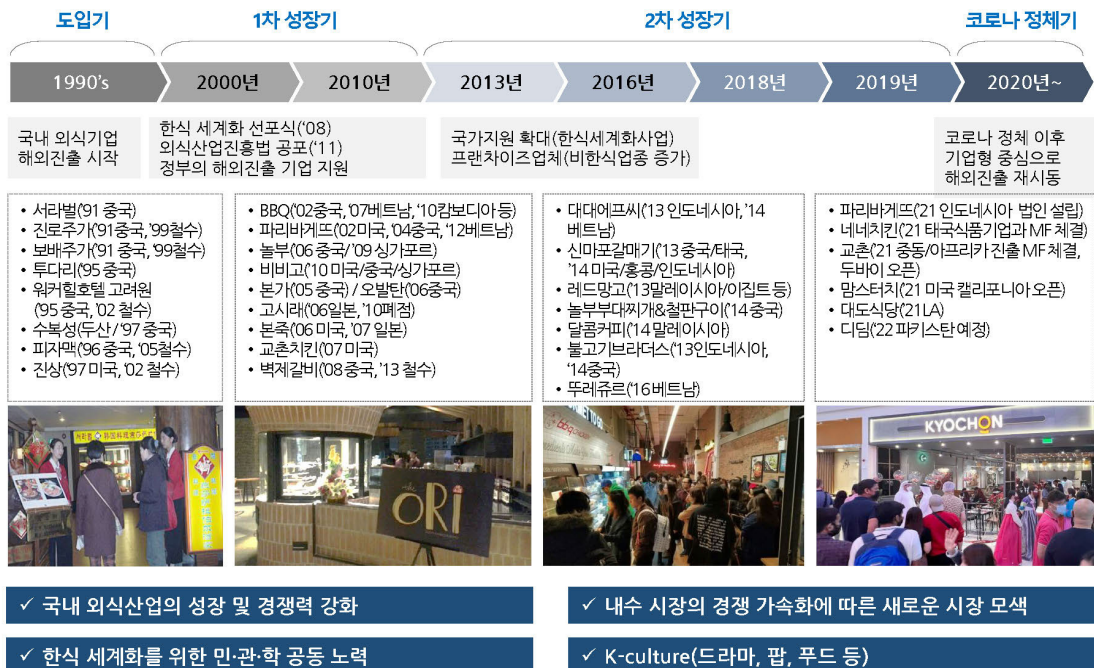
02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자료 : aT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7

02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8

03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형태 변화



9

03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형태 변화

영상 수 순위	2019 1H	2019 2H	2020 1H	2020 2H	2021 1H
1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2	갈비	갈비	갈비	갈비	떡볶이
3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떡볶이	갈비
4	비빔밥	소주	김밥	떡	김밥
5	떡	비빔밥	비빔밥	불고기	전
6	소주	김밥	떡볶이	김밥	떡
7	김밥	떡볶이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비빔밥
8	떡볶이	떡	떡	부대찌개	불고기
9	막걸리	막걸리	부대찌개	비빔밥	소주
10	부대찌개	부대찌개	김치찌개	소주	삼겹살
11	만두	순두부찌개	소주	잡채	부대찌개
12	닭갈비	닭갈비	전	김치찌개	막걸리
13	전	간장게장	삼겹살	닭갈비	잡채
14	잡채	전	막걸리	원장찌개	김치찌개
15	순두부찌개	원장찌개	원장찌개	전	원장찌개
16	삼겹살	호떡	닭갈비	막걸리	순두부찌개
17	호떡	잡채	잡채	삼겹살	호떡
18	원장찌개	삼계탕	호떡	삼계탕	만두
19	갈비찜	삼겹살	만두	호떡	닭갈비
20	삼계탕	김치찌개	삼계탕	갈비찜	국수

영상 수 순위	2019 1H	2019 2H	2020 1H	2020 2H	2021 1H
1	한국식 치킨	한국식 치킨	한국식 치킨	한국식 치킨	한국식 치킨
2	한국식 바비큐	한국식 바비큐	한국식 바비큐	한국식 바비큐	한국식 바비큐
3	한국식 라면	한국식 술	달고나커피	빙수	한국식 핫도그
4	한국 과자	한국 과자	한국식 라면	한국 과자	한국식 라면
5	빙수	치맥	달고나	치맥	한국 과자
6	한국식 술	빙수	한국 과자	달고나	빙수
7	치맥	한국식 라면	빙수	한국식 라면	한국식 술
8	설빙	달고나	한국식 핫도그	짜장면	짜장면
9	한국식 핫도그	한국식 토스트	불닭볶음면	한국식 술	치맥
10	불닭볶음면	짜장면	치맥	한국식 토스트	달고나
11	한국식 타코	설빙	짜장면	달고나커피	한국식 토스트
12	짜장면	한국식 맥주	한국식 술	한국식 핫도그	소맥
13	달고나	한국식 핫도그	한국식 토스트	소맥	설빙
14	소맥	소맥	설빙	한국식 맥주	불닭볶음면
15	한국식 토스트	한국식 타코	한국식 타코	설빙	한국식 타코
16	한국식 맥주	달고나커피	소맥	불닭볶음면	달고나커피
17	달고나커피	볶음면	짜장면	볶음면	한국식 맥주
18	볶음면	회오리감자	한국식 맥주	한국식 타코	짜장면
19	짜장면	불닭볶음면	볶음면	회오리감자	회오리감자
20	회오리감자	짜장면	회오리감자	짜장면	볶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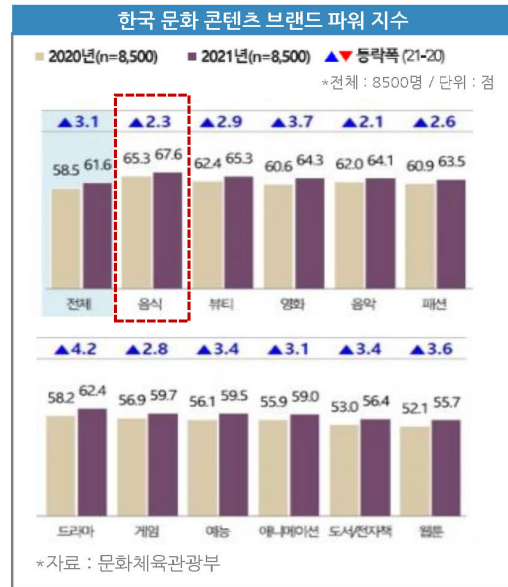
*자료 : 해외 한식문화산업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2022. 한식진흥원)

- 정통한식
 - 김치, 떡볶이, 갈비, 김밥, 전이 상위 5위에 랭크
 - 대표적인 한류 메뉴인 비빔밥과 불고기의 조회수 하락

- 유행한식, 새로운 K-푸드 형성
 - 한국식 치킨, 바비큐, 핫도그, 라면 등이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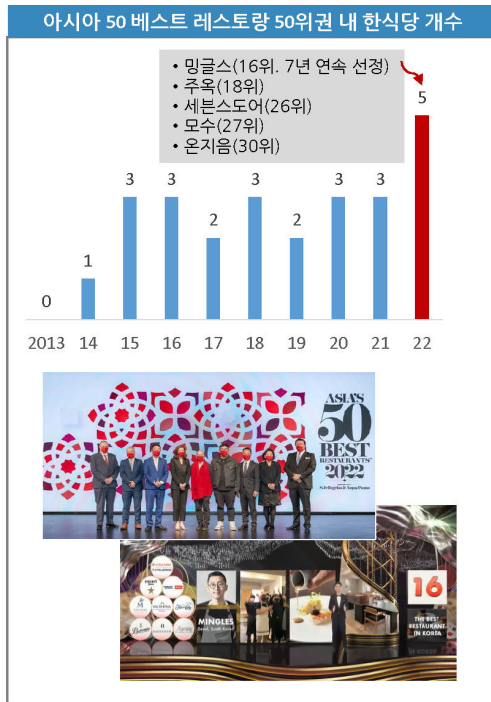
10

04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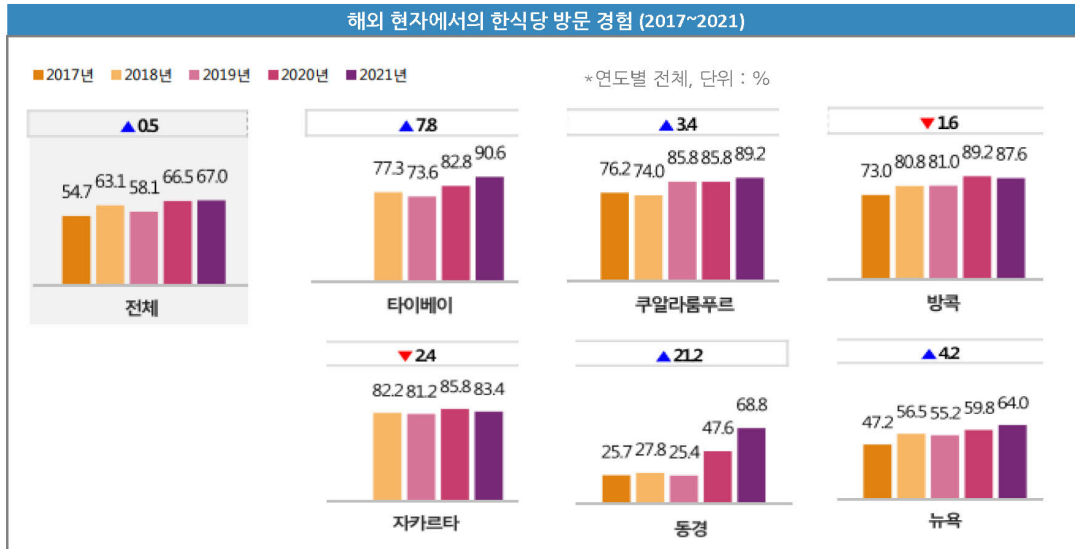
11

04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영향 요인



12

04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영향 요인



- 2021년 전체 한식당 방문 경험 67.0%로 지난 5년간 가장 높음
- 타이베이(90.6%), 쿠알라룸푸르(89.2%), 방콕(87.6%), 자카르타(83.4%)로 경험을 가장 높음
- 동경(21.2%), 타이베이(7.8%), 뉴욕(4.2%) : 2020 vs 2021 증가폭 높음

*자료 : 한식진흥원 '2021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13

04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영향 요인



14

04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영향 요인

국내와의 정세 및 경제 현황

국내 외식기업 측면에서의 중국 시장 현황

-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반한 분위기
 - 한국 기업 철수 및 강력한 환경감찰
 - : 옥외 바비큐 제한을 도심에서 외곽으로 확대(베이징시)
 - 위반 시 벌금(한화 약 3500만원) 또는 영업정지, 폐쇄
-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지속
 - 2021년 1~11월 중국내 폐점 음식점 수 80만999개
 - : 사부사부 사업 축소, 하이디라오 300개점 폐점 등
 - 국내 FC 업체들 매장 휴업, 폐업, 사업 철수
 - : (2020년 기준) BBQ 중국내 50개 전 매장 임시휴업 등
- 중국 내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자국 브랜드 선호(귀차요)
 - 해외 브랜드 현지화 전략의 필요성 대두



코로나로 인해 휴업중인 한식당



코로나 전 하이디라오의 대기고객

국내 외식기업 측면에서의 미국 시장 현황

- 2024년까지 코로나 19 이전에 근접한 회복 전망
 - 코로나 이후 회식 및 배달 주문량 증가
 - *surprise ingredients in the post-pandemic food. Deloitte
 - '21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외식업소 고객수 5% 증가, 거래금액 13% 증가 *시장조사업체 NPD
- 한국치킨의 선전
 - 제너시스 BBQ, 2021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 브랜드 5위, 매출 기준 미국 내 500대 외식기업 등극 (미국 15개 주에 51개 매장 운영)
 - *Nation's Restaurant News
 - BBQ, 그랩앤고(Grab&Go) 방식 도입



15

05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해외진출 사례1 - 디딤

브랜드	주요 진출 국가	매장 수
마포갈매기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8개
애플산겹살	말레이시아	3개
공화춘	홍콩	1개

* 디딤 : 10개국에 42개 매장 운영 중('22. 4월 기준)
'22년까지 50개점, '26년까지 100개점 목표

디딤 대표 브랜드 연합 컨셉으로 차별화

- 2016년 LA 진출, 총 4개 매장 운영
 - 한식 BBQ 브랜드 Top 15 선정(LA 레스토랑 전문지)
 - 2021년 3분기 흑자 전환, 매출 전년동기 대비 149.1% 증가
- 경쟁력
 - 초기, 한국 마포갈매기와 유사한 단출한 메뉴 컨셉
 - 디딤의 인기 브랜드 메뉴 연합 컨셉으로 전환(차별화)
 - : BBQ(마포갈매기) + 꼬막/멍게비빔밥(연안식당)



*자료:월간식당 2022.1월호



현지화 전략

- 진출국의 문화적 특성 고려한 컨셉과 운영 전략
 - 미국, 다양한 고객층 수용 위한 캐주얼 컨셉
 - 인도네시아, 가족 타깃의 패밀리레스토랑 컨셉
 - 말레이시아, 중국인 관광객 대상
 - 싱가포르, 30~40대 직장인과 배달주문 선호하는 한국인 타깃

국가별 운영형태 차별화

- 미국, 4개점 모두 100% 출자 직영
 - 주마다 다른 가맹사업법 등 FC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고려
- 미국 외 국가: 가맹사업 추진

16

05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해외진출 사례2 - 곱창이야기

	한국	미국
점포현황	2004년 1호점 오픈 80개점 운영 중	2017년 뉴욕 1호점 오픈 4개점 운영 중
주요객층	20~40대 남녀	한국인 80: 현지인 20
주요 메뉴	곱창, 대창, 양, 염통	곱창, 소고기, 돼지고기
현지화 전략	곱창 전문점 표방	곱창+구이메뉴로 다양한 고객층 흡수
향후 계획	연내 150호점	연내 30호점



전수창업으로 미국 진출

- 2017년, 뉴욕 거주 한국인으로 부터 러브콜
- 메뉴와 인테리어 등 노하우 전수, 식재료는 현지 조달
- 오픈 초 60평 매장에서 월평균 3억 매출 달성
- 이후 동일 형태의 매장 오픈 통해 4개점으로 확장

미국 가맹사업 본격화

- 가맹사업으로 미국내 비즈니스 방향
- 전수창업의 성공으로 가맹사업 문의
- 미국 법인설립, 미국 프랜차이즈협회 등록 후 가맹사업 본격화

메뉴 다양화로 현지화 전략

-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타깃
- 곱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 감안해 소고기, 돼지고기 추가
- 전체 고객 중 70%가 곱창, 30%가 소/돼지고기

원가구조와 수익률

- 식재료 경쟁력 통한 원가율 10% 미만
- 곱창선호 인구가 많지 않은 미국 특성 상 부속물 가격 저렴
- 원가가 낮은 곱창의 판매율이 70%로 높아 수익률 제고



*자료: 월간식당 2022.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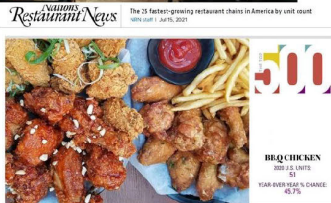
17

05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해외진출 사례 3 - K-치킨

제너시스비비큐 - BBQ 치킨

- 2016년, 미국 맨하탄에 직영 1호점 오픈
- 뉴욕,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80여개점 운영
- 2021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 브랜드 5위, 매출 기준 미국 내 500대 외식기업 등록(Nation's Restaurant News)
- 경쟁력
 - 현지 외식시장 및 고객층에 대한 지속적 분석
 - 배달 등 온라인 시스템 도입 :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연계
 - BSK(BBQ smart kitchen), Grab&Go 방식 도입



*자료: 월간식당 2022.1월호

교촌F&B - 교촌치킨

-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진출
- 2021년 4월, 중동/아프리카 9개국 진출 위한 MF 체결
- 갈라다리 브라더스 그룹, 중동지역에서 40여년간 글로벌 아이스크림 전문점 운영 등 중동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증된 파트너 선정
- 2021년 12월, 두바이 1호점 오픈
- 50평, 58석 규모에 배달을 겸한 캐주얼 다이닝 컨셉
- UAE 등 다양한 중동국가로 확대 예정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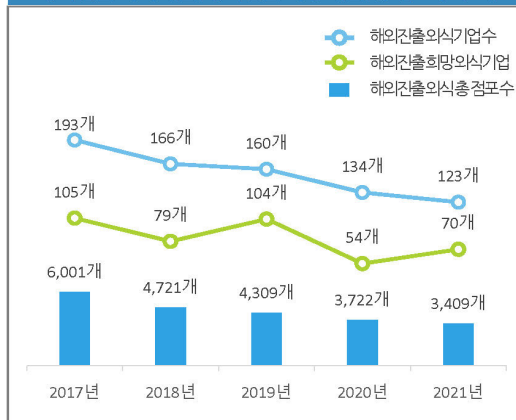
- 맘스터치
 - 2021년 6월, LA에 1호점 오픈(MF)
 - 현지 매체에 치킨 맛집으로 소개
 - 2025년까지 미국 전역에 100호점 오픈 목표
- 네네치킨
 - 2021년 11월, 태국 식품기업가 MF 체결
 - 방콕 1호점을 시작으로 태국내 가맹점 확대



18

06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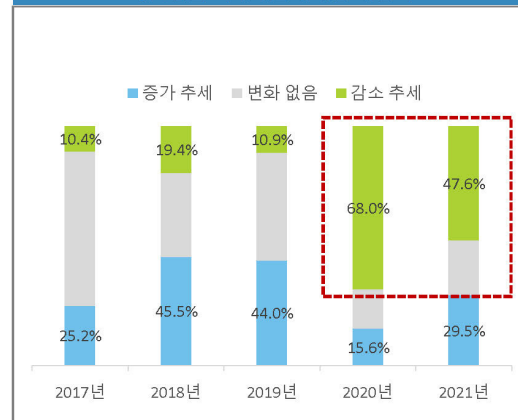
해외진출 외식기업/해외진출 희망기업/총 점포수 추이



*자료: 2017~2021년 a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 2017년 이후 해외진출 업체수 감소세
- 외식기업 수 연평균 10.7% 감소, 총 점포수 13.2% 감소

해외진출 외식기업의 매출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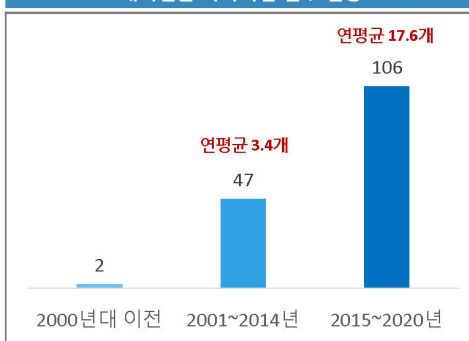


- '17~'19년 매출 증가세 vs '20년 이후 매출 감소 현상
-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점포 영업 난항

19

06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해외진출 외식기업 철수 현황



*자료: 2015한국외식연합, 2015~2021 a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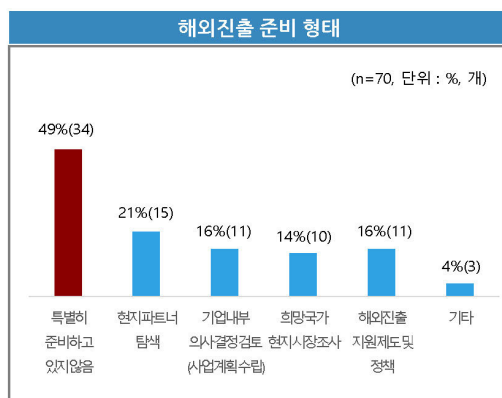
07 해외진출 외식기업의 부진 요인

해외진출 외식기업의 철수 및 영업 부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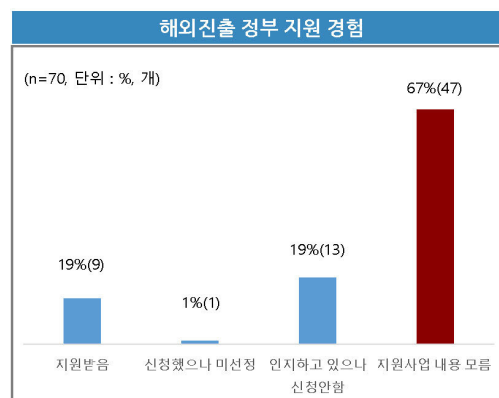
21

07 해외진출 외식기업의 부진 요인



*자료: 2021년 a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 준비없는 해외진출 문제
- 해외진출 희망기업 중 49%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있다'



- 해외진출 외식기업 위한 정부지원 홍보 부족
- 67%가 해외진출 위한 정부지원 사업 미인지
-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미인지
- 지원 경험은 19%에 불과

22

08 해외진출 외식기업의 애로사항

해외진출 외식기업의 애로사항



- 동남아/중국 : 직원 턴오버가 심해 퀄리티 유지 어려움
- 미주/유럽 : 높은 인건비 문제



-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객은 물론 직원관리에도 애로사항 발생



- 현지 외식/점포 운영 관련 제도/규제사항/세금 관련 정보 부족
- 자문 가능한 업체 부족 및 전문성의 한계



- 점포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한계



- 현지 뱅킹시스템 차이로 인한 외화송금, 자금관리 등의 어려움



-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현지에서 적합한 대안을 강구하기 어려움

23

09 외식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효과



-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수익구조 개선



- 외식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
- 해외진출을 통한 현지 노하우 습득으로 산업 선진화 도모



- 국내산 식재료 및 기기·기물 수출
- 국가 이미지 제고
- 해외에서의 한국 브랜드 경험을 통한 인바운드 음식관광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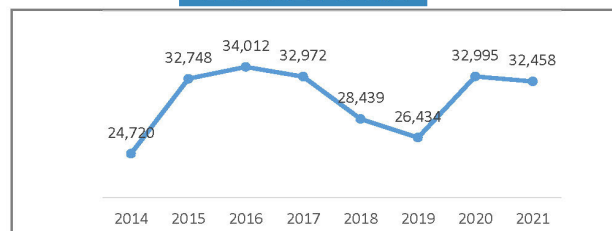
해외진출의 효과 정도



*5점척도 기준

*자료: aT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연도별 식재료 수출액 규모



단위 : 백만원
수출금액 응답 브랜드 기준

24

10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

1990년대 이전 - 현지에서 자생한 생계형 한식당 중심

1992년 중국수교 -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형 외식 브랜드의 해외 진출 시작

2008년 - 한식 세계화 선포식

2011년 - 외식산업진흥법 공포

정부 - 한식 세계화 사업 등 통해 해외진출 기업 지원

한류의 중심 K-Food, 한국 외식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

해외 외식산업 및 트렌드, 외식 니즈, 고객층의 변화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외식문화의 실시간 공유



시대의 흐름, 해외 시장 및 니즈 변화에 따라
해외진출 전략에도 변화 필요

25

10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과제

✓ 해외 진출 목적은 무엇인가

- 명확한 목표 설정
- 국내 시장에서의 도피가 아닌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확대 목적 필요

✓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 우위 위한 브랜드 포지셔닝과 경쟁력은 무엇인가

- 현지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한 포지셔닝 및 경쟁력 구축
- 타깃층, 타깃층이 선호하는 컨셉(상품/분위기/가격 등)

✓ 해외진출을 위한 충분한 준비/조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충분한 준비과정, 현지 방문을 통한 시장 조사, 현지에 맞는 운영 시스템 구축, 식자재 유통 및 구매 시스템 구축
- 국가별/도시별로 다른 법령
- 현지화의 80%는 진출 전 국내에서, 나머지 20%는 현지에서 (현지에서 모두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 소요)
- 정부지원 제도 활용

✓ 우리 브랜드가 현지에서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 성공전략 보다 중요한 실패전략 분석을 통한 리스크 감소

26

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E&S 컨설팅 대표 이 효 정





Profile

이 효 정

학력

건국대학교 원예과학과

서울대학교 원예학과 석사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이학박사)

경력

前) 한국국제협력단 경제개발실 과장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現) E&S 컨설팅 대표 (ODA 정책연구, 프로젝트 기획, 평가 전문)

現)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객원연구원

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영양안보

- (p.4)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불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p.5) COVID-19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곡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17개의 SDG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식량영양안보와 관련한 SDG 2번 목표는 보건 분야(SDG 4)와 더불어 가장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음.
- (p.6) 식량불안정 지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대륙별로 살펴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
- (p. 7~11) SDG는 목표별 세부목표, 측정 지표로 구성되며, SDG 2번의 목표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COVID-19 이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대륙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
- (p. 12~3) 기후변화는 특히 농업부문에 크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며, 식량시스템 전반에 걸쳐 SDG는 많은 연관성이 있어, 단순히 SDG 2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표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임.

□ 농업부문의 국제개발협력

- (p. 14-21)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이며, 특히 냉전시대 이후 개발도상국을 식민 지배했던 서구 열강들의 보상 측면에서 나아가, 글로벌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의 관계 속에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임.
- (p. 22~26)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소위 ‘선진공여국’으로써 활동해오고 있으며, GNI 대비 DAC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지원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22년 4조 42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7개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농업부문은 7~10%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 (p. 27~31) 기존 ODA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식품가치사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함.

□ 개발도상국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농식품분야 협력방안

- 민간부문(특히 농식품기업)과의 협력은 식품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공급망의 위험관리, 인권, 환경, 젠더 등과 같이 개발협력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
- 국내외에서 ESG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도 개발협력분야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 수행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추진해야함.
-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상원조, 기획재정부 중심의 유상원조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성해야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간의대화 채널 마련,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화와 지구촌 식량영양안보를 위한 기여

(4) 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2022.6.23.

이효정

E&S 컨설팅 대표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센터 객원연구원

차 례

1. 연구 개요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안보 논의 동향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4. 개발도상국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농식품분야 협력 방안

1. 연구 개요

연구제목

- 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연구목표

- 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분야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도출

연구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17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그 중 식량영양안보는 SDG 2번 목표에 해당함.
- SDG 2번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기후변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영양안보의 영향을 살펴보고, 선진국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안보 논의 동향

새천년발전목표(M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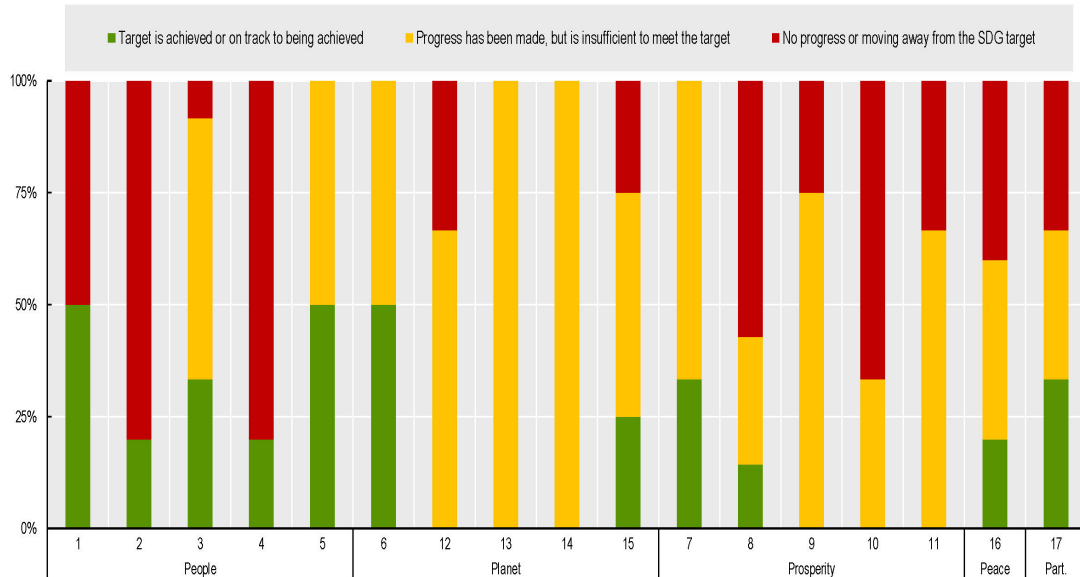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ource: <http://www.globalgoals.org/>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안보 논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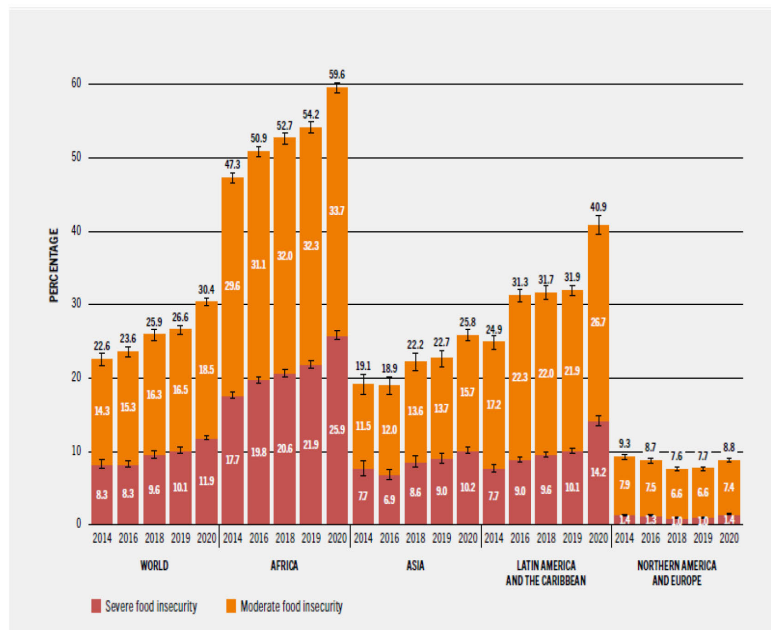
SDGs 17개 목표별 이행현황



Source: All data is taken and adapted from UNDESA (2021), SDG Global Database, <https://unstats.un.org/sdgs/unsdg> and OECD (2021), OECD.Stat, <https://stats.oecd.org/>.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안보 논의 동향

대륙별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 변화 추이



Source: FAO, IFAD, UNICEF, WFP and WHO. 2021.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1.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food security, improved nutrition and affordable healthy diets for all*. Rome, FAO.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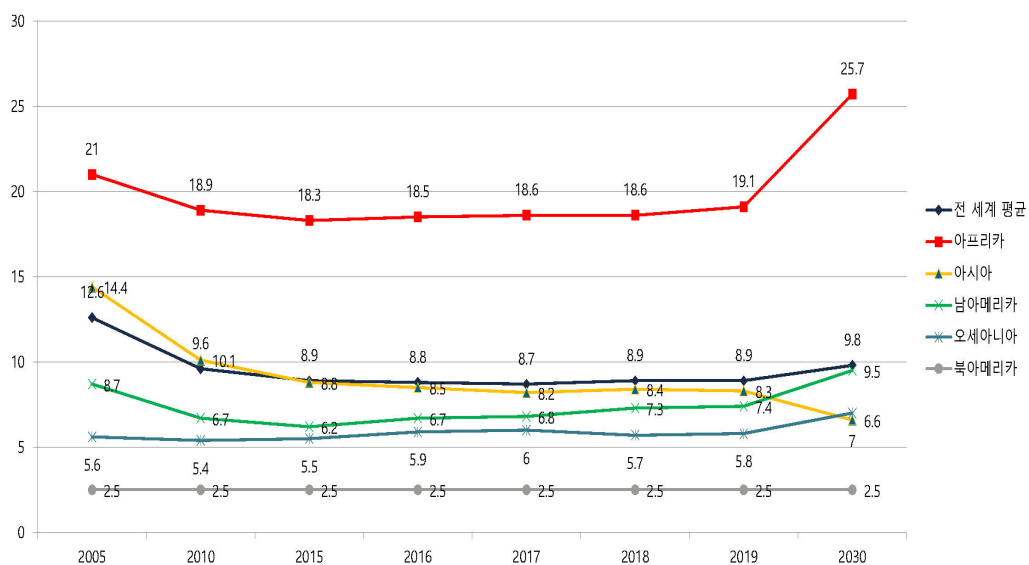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안보 논의 동향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구분	세부 목표	측정지표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1.1. 영양결핍 유병률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 2.1.2. 식량불안정경험치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필요성에 대응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불량을 종식시킨다.	2.2.1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연령대비 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2.2.2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 (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 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소농,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업인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2.3.1 노동단위당 생산량 (농업, 축산업, 임업 사업체 규모별) 2.3.2 소농의 평균 소득 (성별, 토착상태별)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안보 논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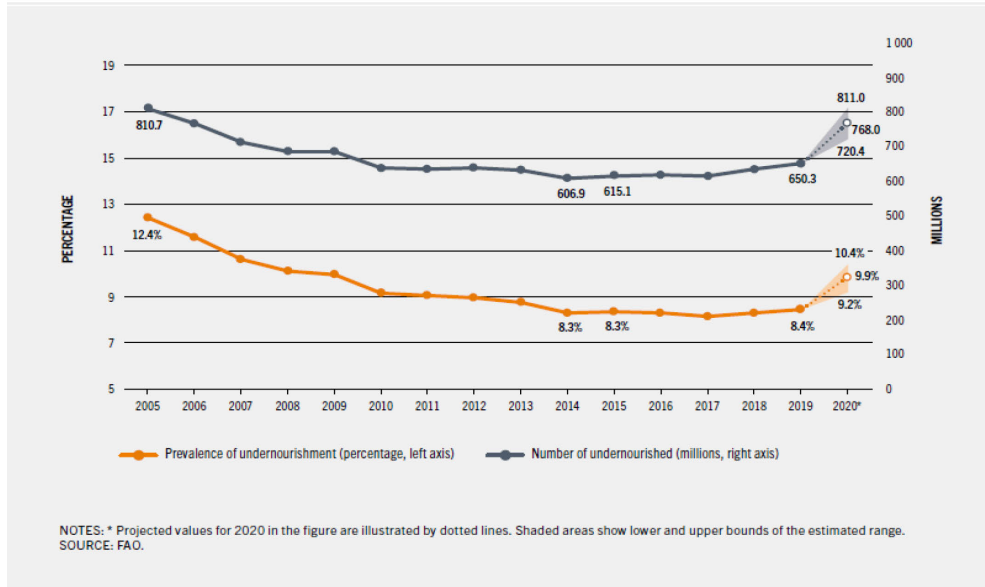
대륙별 영양결핍 유병률 변화추이(2005~2019)와 2030년의 전망



Source: FAO, IFAD, UNICEF, WFP and WHO. 2020.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0 :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affordable healthy diets'. Rome, FAO.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안보 논의 동향

전 세계 영양결핍 유병률 변화추이(2005~2020)



Source: FAO, IFAD, UNICEF, WFP and WHO. 2021.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1.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food security, improved nutrition and affordable healthy diets for all*. Rome, FAO. (P. 10)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안보 논의 동향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구분	세부 목표	측정지표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한다.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의 농지면적 비율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종자,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분야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 축산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a.1 정부지출의농업지향지수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AOI) 2.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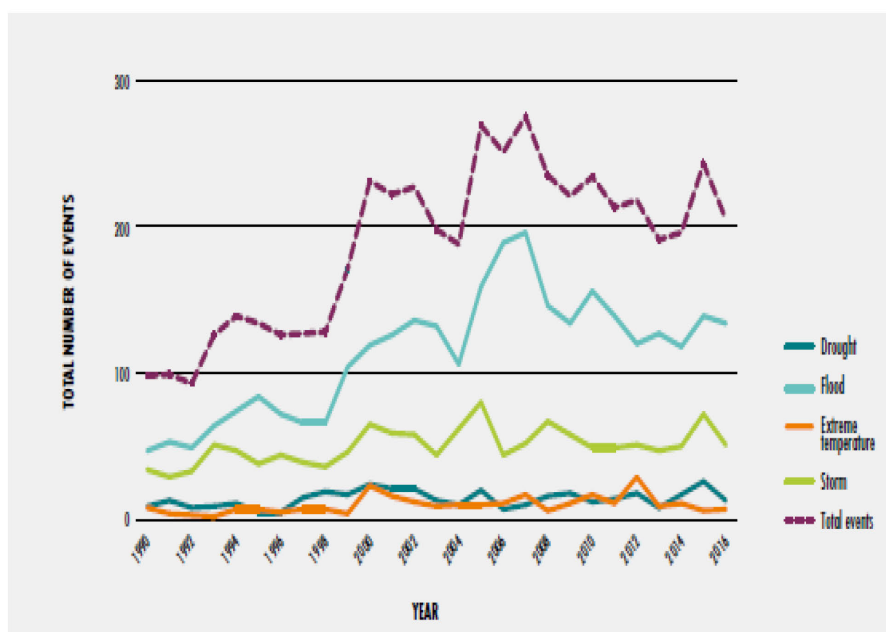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안보 논의 동향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구분	세부 목표	측정지표
2.b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조치의 병행적 제거를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바로 잡고 예방한다.	2.b.1 농업수출 보조금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2.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 (Indicator of food price anomalies: IPA)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안보 논의 동향

기후 관련 재난 발생 추이(1990-2016)



Source: FAO, 2018.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안보 논의 동향

SDG	농업과 식량시스템, 영양 연관 내용
1	전세계 빈곤인구의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우수한 영양은 높은 노동생산성, 정신력, 건강한 삶을 유도.
2	전세계적으로는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8억 명은 만성적인 영양결핍 상태임.
3	영양불량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 40억 명은 미량원소 결핍 또는 과체중을 겪고 있음.
4	영양불량은 5세 미만 아동의 1/4의 학업성취도, 두뇌발달에 영향을 줌.
5	여성은 농업 생산활동의 4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기술, 시장 등의 자원 접근성에 있어 차별 받고 있음. 여성과 어린이의 영양 개선은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 양성 불평등 감소에 기여함.
6	식량시스템은 전세계 담수의 70%를 이용하고 있음. 우수한 영양 공급을 위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 필요함.
7	현대화된 식량시스템은 전세계 에너지의 30%를 소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함.
8	농업은 전세계 고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중 60%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임.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는 경제 생산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보건 비용의 상승 초래함.
9	9억 명의 농촌지역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전기 접근성 없음. 생애에 걸친 영양증진은 학습과 혁신 잠재력을 향상시킴.
10	10명중 7명이 지난 30년간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 불평등. 영양 불평등의 감축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킴.
11	2030년까지 전세계 인구의 6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시장의 변화, 토지와 자원의 이용에 대한 부담 증대
12	전세계 생산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13억 톤의 식량이 낭비되거나 손실되고 있음.
13	식량시스템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차지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생산성이 25%이상 감소됨.
14	어류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17%를 차지하나, 이 중 30%가 남획된 자원임.
15	농업은 산림녹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2016년 기준 3천만 ha 이상으로 녹화가 진행중임. 토양손실과 생물다양성 감소는 식량 생산 능력을 저해함.
16	8억 1천 5백만 명은 영양부족 상태로서, 식량불안정은 분쟁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음.
17	파트너십은 식량시스템 전환의 결정적인 요소임. 2030년까지 민간부문에서 매년 2조 3천 억 달러 투자를 계획 중임.

출처: FAO et al. 2018,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Rome: FAO.
World Economic Forum, 2018, Innovation with a Purpose: The role of technology innovation in accelerating food systems transformation.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함.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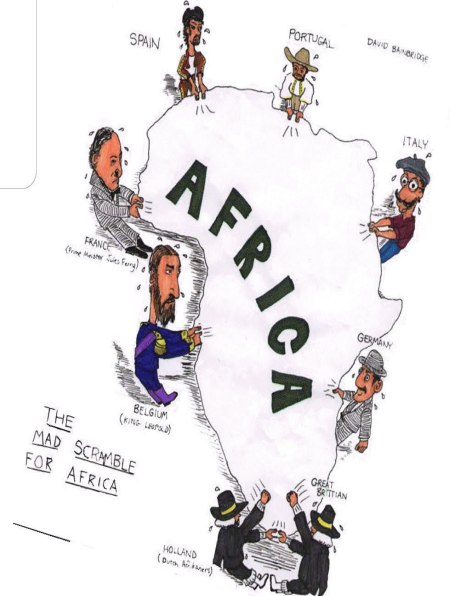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임.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OECD DAC에 2009년 가입,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 DAC 회원국으로 활동중임(24번째 회원국)

Source: ODA Korea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개발도상국 빈곤의 원인

- 식민주의, 냉전, 안보, 국익, 세계화와 원조관계
- 관료주의와 원조종속 문제
- 정부간 원조의 한계
- 개도국의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 등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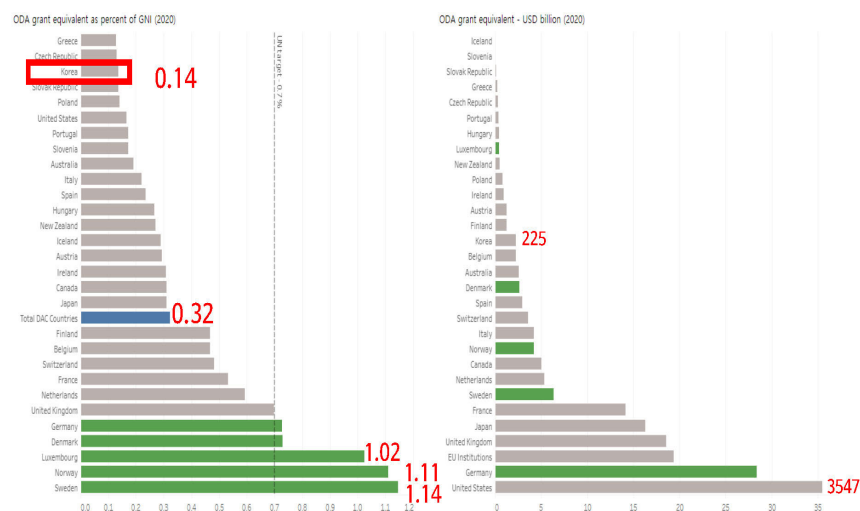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ODA 지원 목적

인도주의적 동기 (이상주의)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해소,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
국가안보·외교적 동기 (현실주의)	- 마셜플랜, 미국의 대 한국 원조, 구 식민지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영향력 유지 - 수원국으로부터의 국제적 지지 기대(UN 표 획득, 국제기구 선거, 국제행사 유치 등) -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영향력 제고(G-7 국가, 중국의 원조 등)
경제적 동기 (현실주의)	원조를 통해 공여국의 제품 수출 및 기업 진출, 자원 확보 등 자국의 경제 이익 확보(Tied Aid 등의 수단 활용)
모든 사람들간의 연대 (상호이익론)	- 세계적 과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가치의 확장 - 환경보호, 인구통제, 핵확산 방지, 마약 및 질병 통제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OECD DAC 회원국의 2020년 ODA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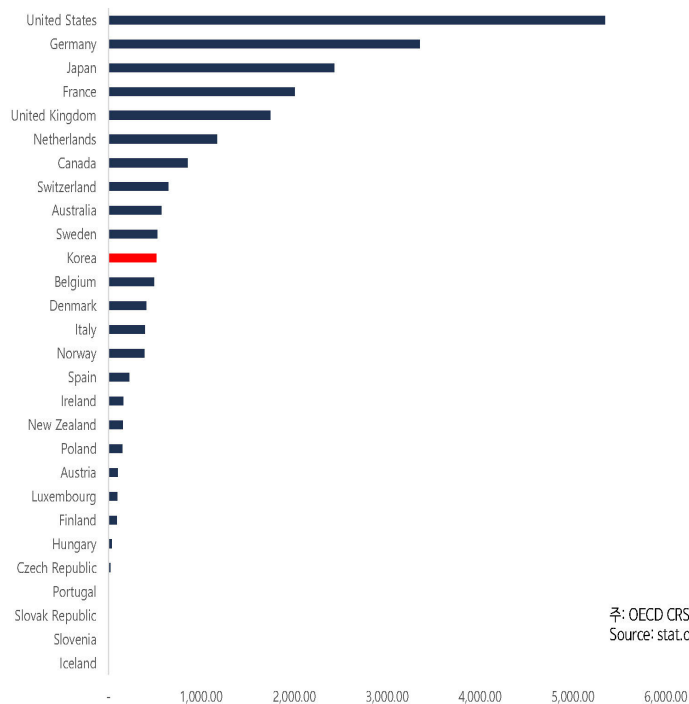
ODA on a grant equivalent measure by members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as percent of gross national income (GNI). Preliminary data for 2020.

Source: OECD (2020), DAC Statistics

Data source: DAC 1 - Total official and private flows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OECD DAC 회원국 농업 분야 공여 총계(20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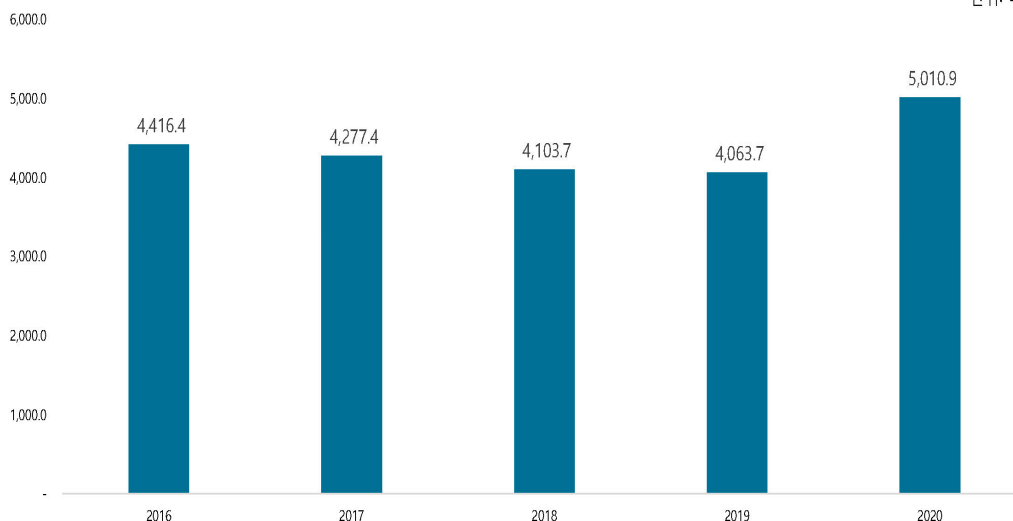


주: OECD CRS 목적코드(311 기준)
Source: stat.oecd.org (Date of extracted: 20 May 2022)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농업 분야 ODA 공여 총계 추이(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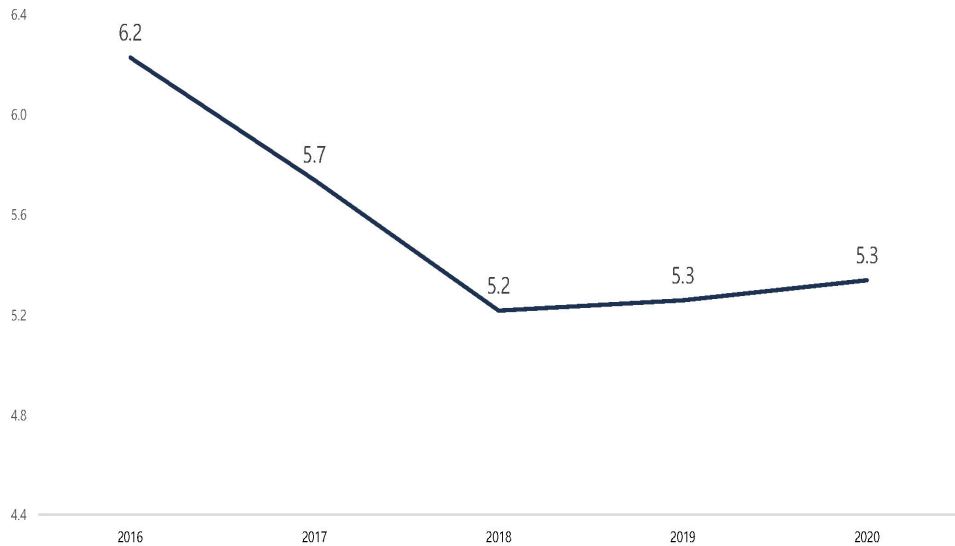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OECD CRS 목적코드(311 기준)
Source: stat.oecd.org (Date of extracted: 20 May 2022)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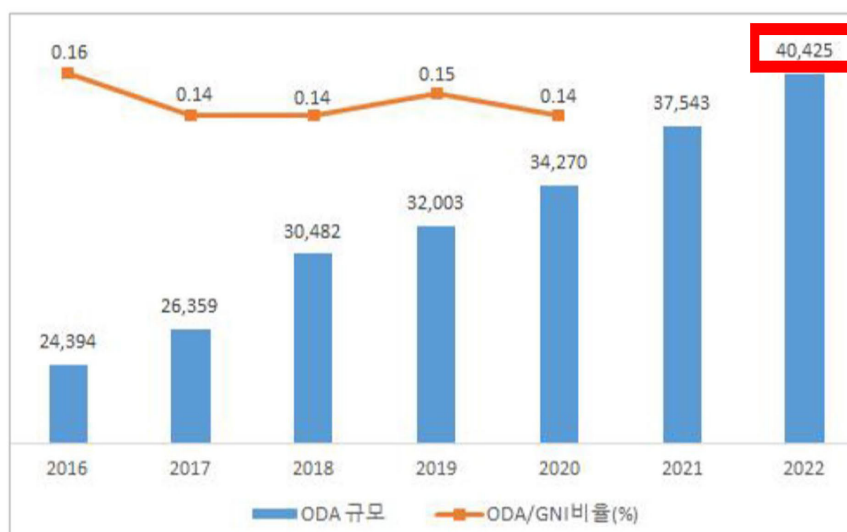
OECD 개발원조위원회 국가의 전체 공여액 대비 농업 분야 비중(%) 추이



주: OECD CRS 목적코드(311 기준)
Source: stat.oecd.org (Date of extracted: 20 May 2022)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우리나라의 2022년 ODA 지원 현황



출처: 국무조정실,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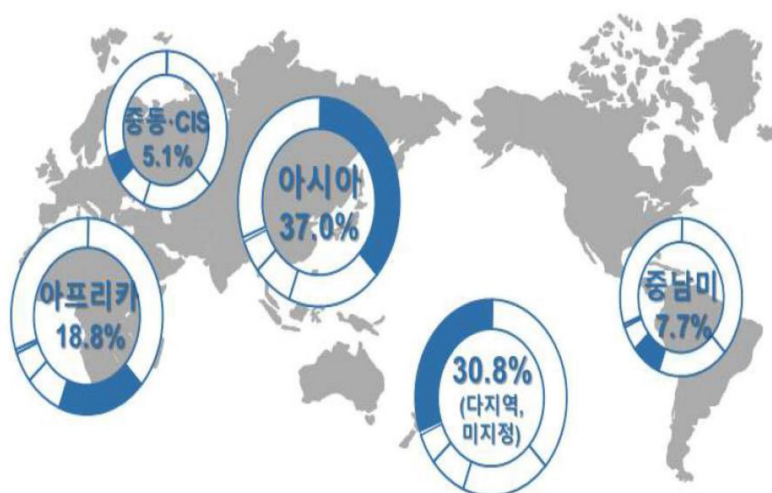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2022년 ODA 지원 현황

구분	구분	보건	교통	인도적 지원	교육	수자원 및 임업	공공 행정	농림 수산	에너지	환경 보호	산업	통신	기타
규모 (억원)	유상	2,470	3,776	-	571	2,242	891	610	1,470	394	-	200	710
	무상	1,780	448	3,163	2,362	244	1,581	1,788	425	441	820	34	5,779
	총계	4,250	4,224	3,163	2,933	2,486	2,472	2,398	1,894	836	820	234	6,489
비중 (%)	유상	18.5	28.3	-	4.3	16.8	6.7	4.6	11.0	3.0	-	1.5	5.3
	무상	9.4	2.4	16.8	12.5	1.3	8.4	9.5	2.3	2.3	4.3	0.2	30.6
	총계	13.2	13.1	9.8	9.1	7.7	7.7	7.4	5.9	2.6	2.5	0.7	20.2

출처: 국무조정실,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우리나라의 2022년 ODA 지원 현황



*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1%(유상 84.5%, 무상 71.0%) 지원(다국가 사업 제외)

출처: 국무조정실,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제3차 ODA 중점협력국 (총 27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12	7	4	4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출처: 국무조정실, 2021. ODA 중점협력국 개선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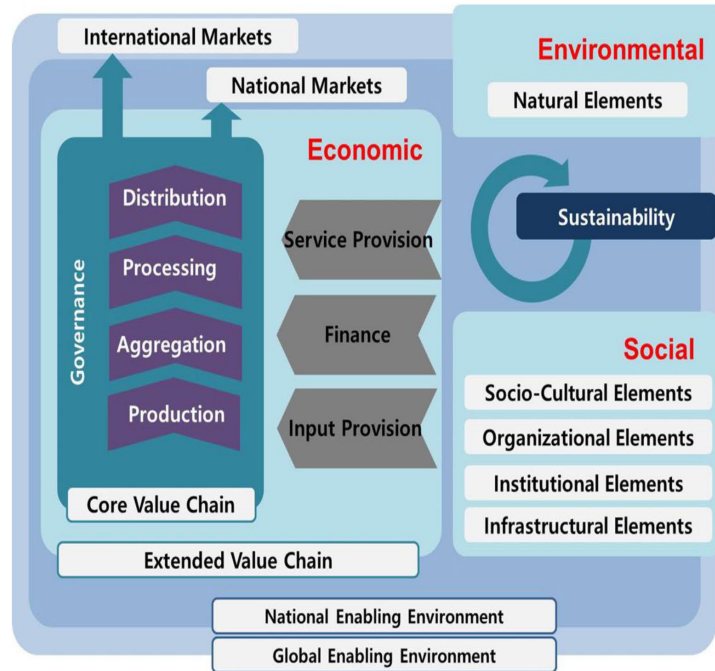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OECD/DAC 회원국 및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최빈국	기타 저소득국	중저소득국	고중소득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GNI(\$1,004)	Other Low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I(\$1,005 in 2016)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 capita GNI \$1,006-3,955 in 2016)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I \$3,956-12,235 in 2016)
아프가니스탄 / 방글라데시 / 베넌 / 부탄 / 부 르키니파소 부룬디 /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차드 코모로스 / 콩고민주공화국 자부티 /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 감비아 / 기니아 기니비사우 / 아이티 키리바시 / 라오스 레소토 /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말리 / 모리타니아 / 모잠비크 미얀마 / 네팔 니제르 /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시에라리온 /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 남수단 수단 / 탄자니아 동티모르 / 토고 투발루 / 우간다 / 예멘 / 잠비아	북한 짐바브웨	앙골라 / 아르메니아 / 볼리비아 바코베르데 / 카메룬 콩고 /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 엘살바도르 / 에스와티니 조지아 / 가나 파테말라 / 온두라스 / 인도 인도네시아 / 요르단 / 케냐 / 코소보 / 키르기스스탄 /미크로네시아 / 몰도바 / 몽골 모로코 / 나카라과 나이지리아 /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 필리핀 / 스리랑카 시리아공화국 / 타지키스탄 / 토켈라우 / 튀니지 / 우크라이나 / 우즈베키스탄 / 바누아투 베트남 / 서안과 가자지구 키르기스스탄 / 우크라이나 / 타지키스탄 / 이집트	알바니아 / 알제리 안티구아 & 바부다 /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 벨라루스 벨리즈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 브라질 칠레 / 중국 /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쿠바 도미니카 /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 에콰도르 기니아 / 피지 가봉 / 그레나다 / 구아나 / 이란 / 이라크 /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 레바논 리비아 / 말레이시아 / 몰디브 말살 군도 / 마우리티우스 / 멕시코 몬테네그로 / 몬트세라트 나미비아 / 나우루 니우에 / 북마케도니아 / 팔라우 파나마 / 파라과이 페루 / 세인트헬레나 /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 그레나딘 / 사모아 세르비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수리남 / 태국 / 통가 터키 /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 웨리스푸투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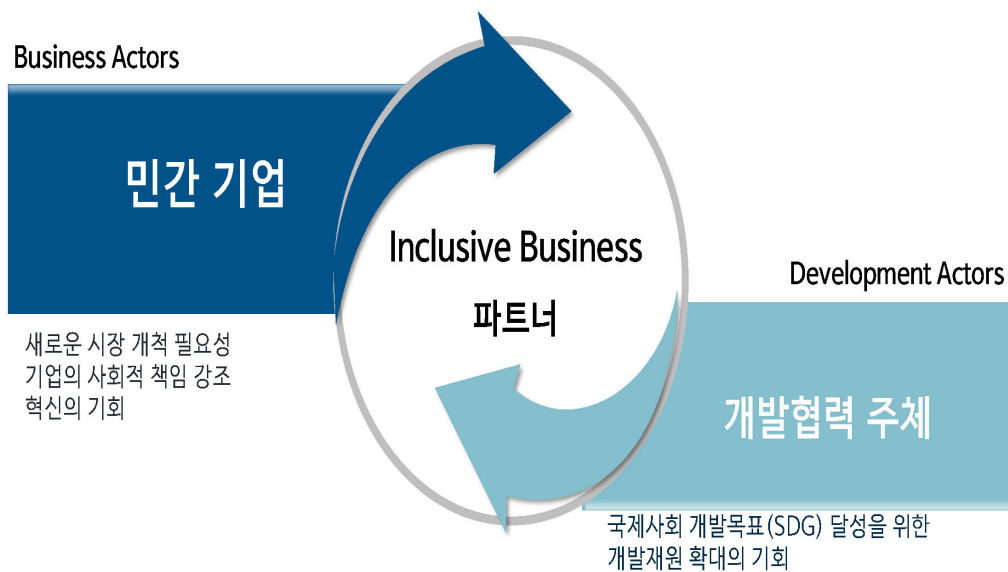
출처: OECD DAC, DAC List of ODA Recipient for reporting on aid in 2021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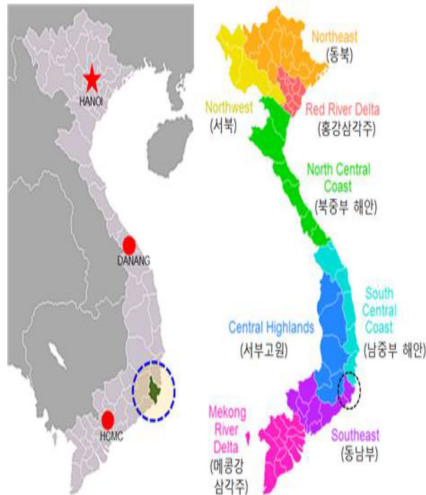


Source: FAO Sustainable Food Value Chains Knowledge Platform (<http://www.fao.org/sustainable-food-value-chains/what-is-it/en/>)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프로젝트명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
사업대상지	닌투언(Ninh Thuan)성 닌선(Ninh Son)현 럽선(Lam Son)면 팜웅(Tam Ugan) 2 마을
사업기간	2014. 5. - 2017. 4 (3년간)
예산	23억3천2백만원
사업 목적	베트남 최빈 지역 농촌개발 및 지속가능한 소득 증진
주요 이해관계자	CJ, KOICA, 닌투언성, K-WATER
사업 활동	마을자치 역량강화, 마을환경개선, 농업생산성 증대, CJ 고추작물 계약재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주요 성과	빈곤가구 비율 33%에서 16%이하로 감소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구분	활동내용
농촌발전 자생력 강화	마을 자치역량 강화
	지역발전 기금 운용
	유치원 개보수
	마을회관 리모델링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농업소득증대	수도관 연결
	영농교육 실시
	관개용수로 개선
	고추작물 모델 농가 육성
	CJ 고추작물 계약재배
	CJ 수요작물 계약재배
	CJ R&D 농장 운영
	농기계뱅크 운영
	소액금융 대출 실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공동작업장 설치
	건조장 건립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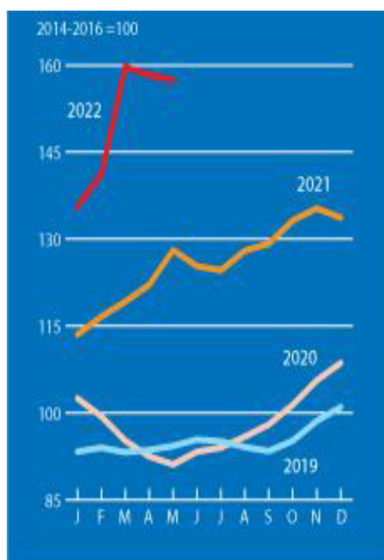
3. 농업분야 ODA 지원 현황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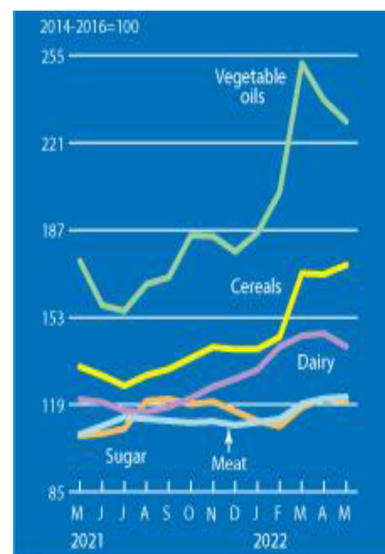
사진: 이효경 개인 촬영

4. 개발도상국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농식품분야 협력 방안

FAO 식량가격지수



FAO 식품가격지수



4. 개발도상국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농식품분야 협력 방안

1) 식량 긴급구호

농식품부 '개발도상국 대상 식량원조사업'

- WFP를 통한 우리나라 쌀(전년도 산) 5만톤 지원
- ('18~'20) 예멘,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 ('21~) 기존 4개국+시리아, 라오스

국가	예멘	시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라오스	합계
21년물량(톤)	18,000	3,000	9,500	13,680	4,500	1,320	50,000



WFP 식량원조를 받은 후 웃고 있는
한국 여성 (1972)



WFP를 통해 한국 쌀 원조를 받고 환하게
웃는 에리트리아 난민 케디아 (2021)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한국, 매년 쌀 5만톤 원조를 포함 전세계 기아해소를 위해 노력' (2021. 10. 15일자)

4. 개발도상국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농식품분야 협력 방안

2) 국익과 ODA의 연계

'국가식량계획(2021-2025)':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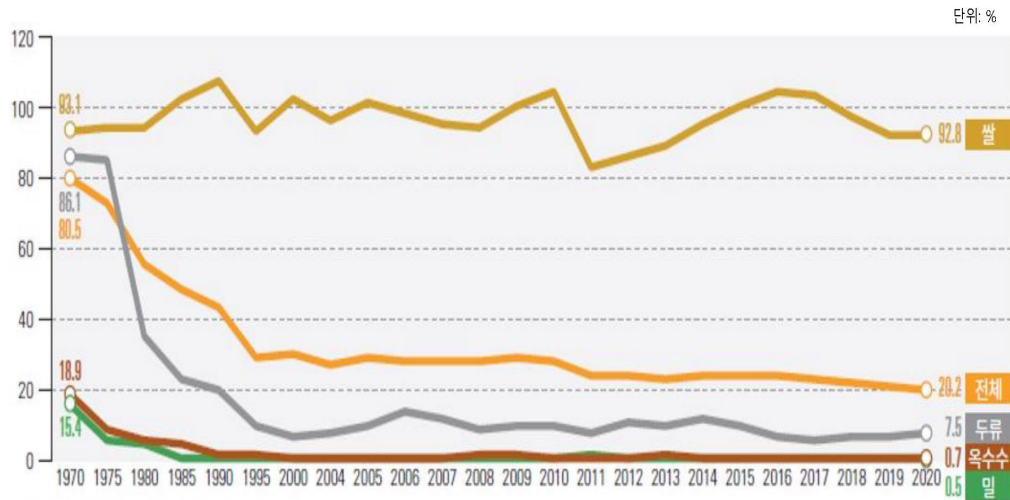
- ① 전략 1: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위기 대응력 강화, 공급기반 확보, 지역단위 자급력
- ② 전략 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 및 소비: 친환경 생산 및 소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 ③ 전략 3: 먹거리 접근성 보장: 먹거리 통합지원, 건강 및 영양개선, 농식품 안전관리

위기 대응력 강화: 비축제도 개선, 해외 공급망 확보, 국제협력 강화

- 해외 곡물의 국내 안정적 반입을 위한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 지원, 국제 협력 강화
- 국내 업계의 해외 주요국 곡물 공급망 지분 확보 소요자금 일부 융자 지원 및 투자 환경/인프라 사전조사 지원 확대 (연간 4억원, 50%70%)
- 주요 수출국 대상 수출규제 금지 촉구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식량원조, ODA를 통해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

4. 개발도상국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농식품분야 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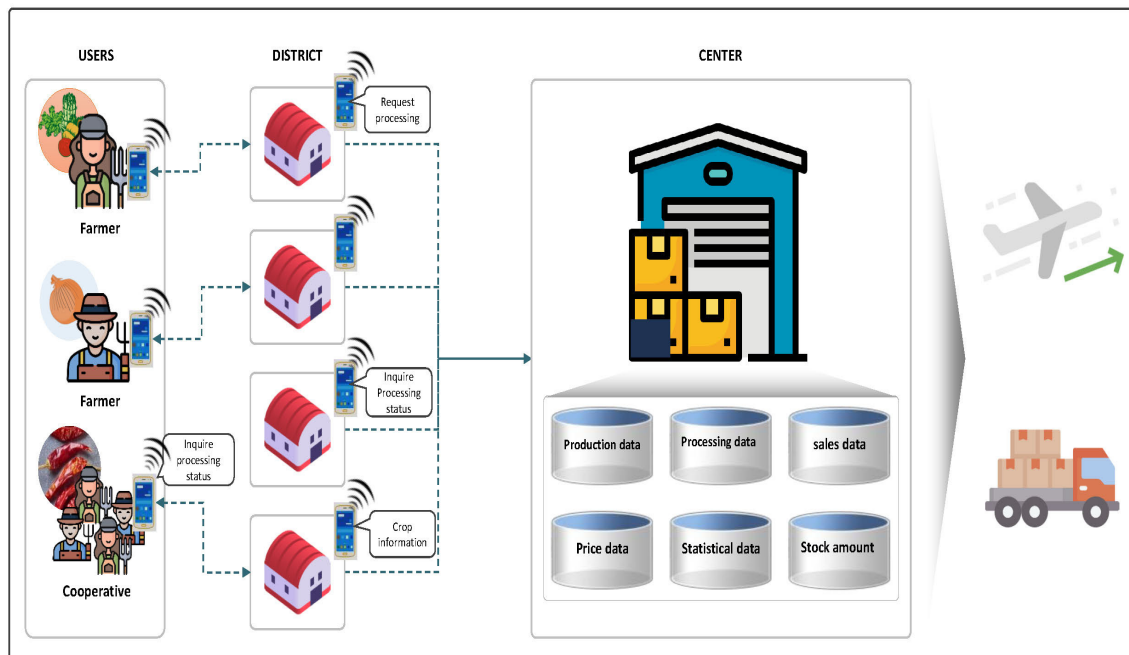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추이(1970-2020)



주: 2020년 데이터는 잠정치, 양곡년도(전년 11.1~당년 10.31) 기준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 통계, 각 연도

4. 개발도상국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농식품분야 협력 방안

3)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4. 개발도상국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농식품분야 협력 방안

4) 국내 농식품분야 파트너간 협력 방안

- 농식품기업과의 협력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민간부문(특히 농식품기업) 개발재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공급망의 위험관리, 인권, 환경, 젠더 등과 같이 개발협력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
- 국내외에서 ESG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도 개발협력분야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공공부문(외교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등)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 수행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추진해야함.
-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상원조, 기획재정부 중심의 유상원조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성해야함.
- 이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간의 대화 채널 마련,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감사합니다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협력의 현재와 미래

GS&J 인스티튜트 박사 권 태 진





Profile

권 태 진

학력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워싱턴주립대학교 농경제학과 농경제학 박사

경력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現)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북한의 식량 사정과 남북협력의 현재와 미래(요약문)

북한의 농업 부문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75~80%밖에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농업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면서 관심과 투자를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으면서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후 농업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여 부분적으로 성과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김정일 정권의 대표적인 농업 정책으로는 이모작 확대, 감자 농사 확대, 초식가축 사육 확대, 대규모 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시장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은 협동농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분조관리제의 개편과 함께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였으나 물적 기반이 미약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아들인 김정은에게 경제 침체와 식량 부족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한 고물가와 사회적 신뢰 부족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김정은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으로 정권을 출범시켜 초기 5년은 농업 부문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시장의 확대를 수용하면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려는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써 김정은의 개혁과 개방 시도가 실패하면서 경제 침체와 함께 농업 부문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점차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부족한 식량의 수입이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마저 급감하여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중 교역이 단절되다시피 하면서 식량의 부족과 함께 주요 식품 가격의 급등은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이 주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 채 자력갱생이라는 틀에 갇혀 정권 유지를 국가 운영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북한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1의 목표로 삼아 남북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협력의 현재와 미래

연구책임자: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발표 순서

1. 서론

- 1-1. 연구 배경
- 1-2. 연구 목적, 내용, 방법

2. 농업 및 식량 사정

- 2-1. 농업 실태
- 2-2. 식량 사정

3. 농업정책 동향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5. 결론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내용, 방법

2. 농업 및 식량 사정

2-1. 농업 실태

2-2. 식량 사정

3. 농업정책 동향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5. 결론

1-1. 연구 배경

❖ 북한은 2021년 7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제출

- SDGs 17개 목표 중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대해 북한은 아직 목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2.12.27 - 12.31)

- 5일간 총 6개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농업 및 농촌문제 해결이 핵심 의제
- 향후 10년을 목표로 식량자급 달성
 - 쌀과 밀가루를 중심으로 식생활을 개선
 - 축산물, 채소, 과일, 버섯, 콩, 감자 생산 확대
 - 4화(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 실현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
 - 종자혁명을 비롯한 과학농사 강조
 - 정보화와 정밀 기상관측을 통한 디지털 농업
 -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재해의 감축
 - 협동농장의 빛 탕감을 통한 경영개선



1-2. 연구 목적, 내용, 방법

❖ 연구목적

- 고난의 행군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 식량사정과 농업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한 사이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방향을 제시

❖ 연구내용

- 북한의 식량 수급 동향
- 북한의 농업 정책 동향
- 남북한 농업협력 동향과 전망

❖ 연구방법

- 북한의 식량수급 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원전 및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정성적으로 분석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내용, 방법

2. 농업 및 식량 사정

2-1. 농업 실태

2-2. 식량 사정

3. 농업정책 동향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5. 결론

2-1. 농업 실태

- 농업부문은 GDP의 20~2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 ✓ 협동농장(90%)과 국영농장(10%)의 두 축으로 집단 생산체제 구축
 - ✓ 계획과 시장의 두 축을 통해 농업경영의 성과 확대
 - ✓ 농지의 80%를 식량생산에 활용하지만 만성적 식량 부족
 - ✓ 쌀과 옥수수를 기본 식량, 축산물, 채소, 과일, 버섯 등의 공급 확대
 - ✓ 주체농법의 한계와 영농기술의 낙후로 농업생산성 저위
 - ✓ 낮은 농업 생산성과 무리한 정부수매로 농민의 삶의 질은 최하층
- 4화 정책(수리화, 전기화, 화학화,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이 미비하며 농업 전후방 산업이 낙후
 - ✓ 후방산업의 낙후로 영농자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함
 - ✓ 식품가공업 등 전방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으나 아직은 미약
 - ✓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가치사슬이 미흡
 - ✓ 산림 황폐화와 경사지 이용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나 쉽사리 개선되지 못함

2-1. 농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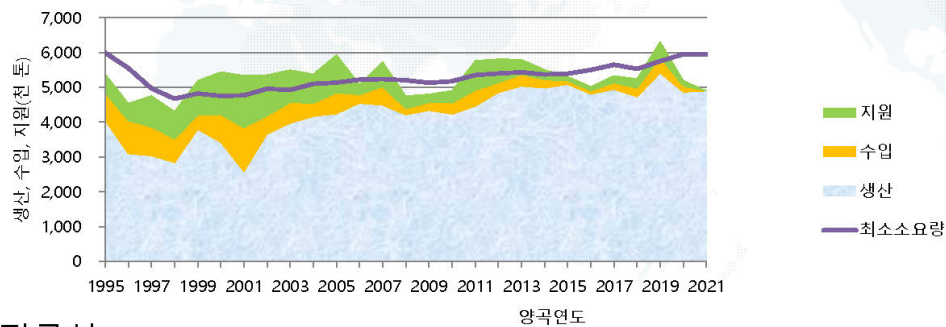
2020년 기준	남한(A)	북한(B)	B/A
농경지 면적(천ha)	1,565	1,891	1.2
식량작물 재배면적(천ha)	906	1,838	2.0
농가호수(천호)	1,035	1,993	2.0
호당 경지면적(ha)	1.51	0.96(2008년)	0.6
농가인구(천명)	2,314	8,573(2008년)	3.7
농가인구비중(%)	4.5	36.8(2008년)	8.2
농림어업비중(%)	2.0	22.4	11.2
식량작물 생산량(천톤)	4,047	4,398	1.1
식량작물 생산성(톤/ha)	4.47	2.42	0.54

2-2. 식량 사정

- 북한은 만성 식량부족 국가로 상업적 수입과 외부 지원이 불가피
 - ✓ 1990년대 중후반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였으나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에서 탈출
 - ✓ 연간 식량 소요량은 600여 만 톤이지만 자체 생산량은 500만 톤을 밑돌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
 -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량사정이 더욱 열악
- 식량안보 구성요소(FAO)
 - ✓ 가용성(Availability)
 - ✓ 접근성(Market access)
 - ✓ 이용성(Utilization)
 - ✓ 안정성(Stability)
 - ✓ 유엔 세계식량안전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식량 안전 보장은 모든 사람이 항상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분 있는 음식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성을 가짐으로써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음식 선호 및 식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

2-2. 식량 사정

- 가용성: 자체 식량 생산은 미미하나마 증가, 수입과 지원은 감소



- 접근성
 - ✓ 식량배급제도의 붕괴
 - ✓ 주민의 경제활동 후퇴와 소득 감소로 식량 구입능력의 저하
- 이용성이란 신체적 요구에 맞게 영양가 있는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정도
- 안정성이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

식량수급 실태

GS&J 인스티튜트

- 식량배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간, 계층간 영양불균형이 존재
 - ✓ 지역적으로는 자강도 등 시장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지역이 취약
 - ✓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식량사정이 취약
 - ✓ 섭취하는 식품의 질은 농민이 가장 열악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감소, 작황 부진으로 주민의 식생활 수준이 악화
 - ✓ 섭취하는 식품의 질이 떨어지고 칼로리 측면에서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추세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중 국경이 오랫동안 봉쇄되어 중국으로부터 식품과 생필품 유입이 감소하여 이들 가격이 급등
 -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다 코로나의 영향까지 겹쳐 주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식량 접근성이 악화
 - ✓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가정의 중요 부업원인 양돈 소득이 감소, 일반 주민의 식량 구입능력이 위축

GS&J 인스티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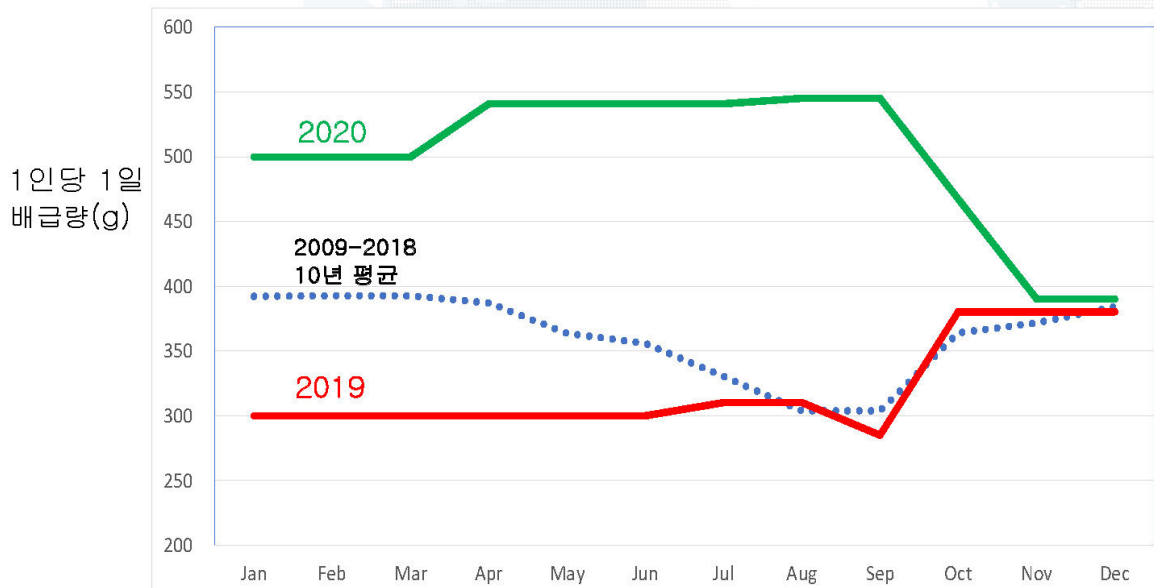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11/43

식량배급 추이

GS&J 인스티튜트

- 2009-2018년 평균, 2019년, 2020년 PDS Ration



자료: WFP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12/43

식량 공급 및 가격 동향

GS&J 인스티튜트

-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 식량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악화되기 시작
 - ✓ 2019년 곡물 생산량은 비교적 견조한 것으로 평가
 -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 대풍이라고 평가하고 당분간 국가 수매량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주문
 - ✓ 농진청 추정치 기준, 2022년 북한의 곡물 부족량은 100만 톤으로 평가
 - 2020년 이후 작황은 다시 악화되고 상업적 수입과 외부의 지원도 함께 감소
- 곡물의 수급 격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쌀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 가격은 변동성이 큼
 - ✓ 쌀의 kg당 가격은 한동안 5,000원 아래로 유지되다가 최근 상승 국면
 - ✓ 북·중 교역의 침체로 달러화 수요가 줄어 달러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상승 국면으로 전환
 - ✓ 곡물을 포함하여 2020년 이후 시장의 상품가격은 변동성이 큼
 -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식용유, 설탕, 밀가루 등)의 가격은 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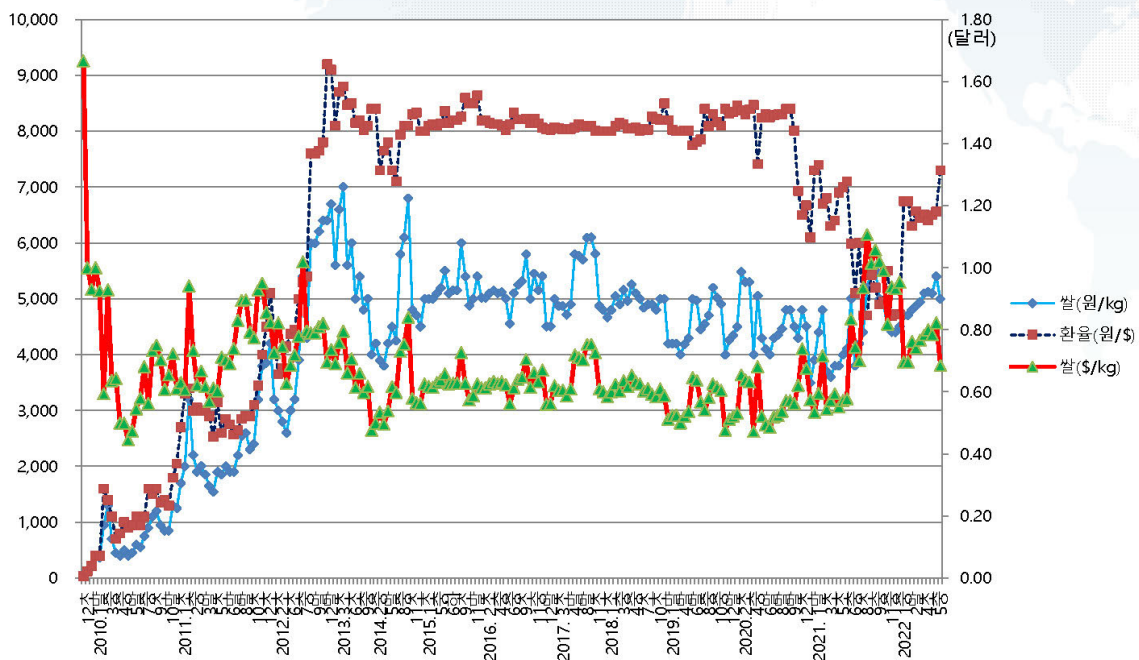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13/43

북한 시장의 곡물 가격 동향

GS&J 인스티튜트



Source: Daily NK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14/43

식품 소비 추이

GS&J 인스티튜트

2019

11% poor FCS
29% accep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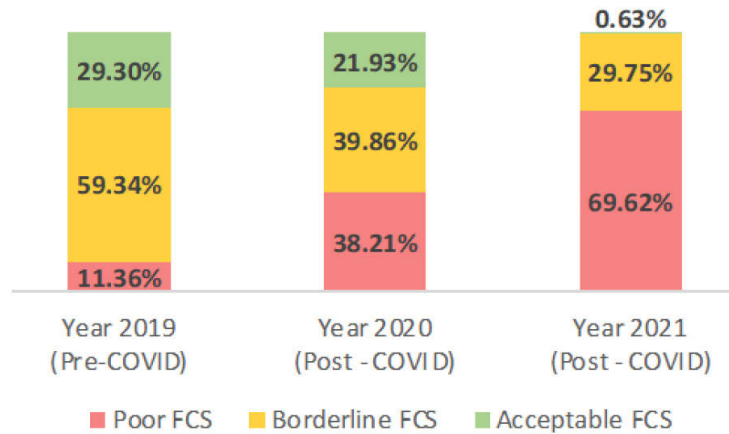
2020

70% poor FCS
1% acceptable

WFP의 모니터링 결과
2020년의 식품소비점수
(Food Consumption Score)
는 악화, 2021년은
더욱 악화

- Dietary diversity
- Food frequency
- Food group
- Food item
- Condiment

Food Consumption Score



자료: WFP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1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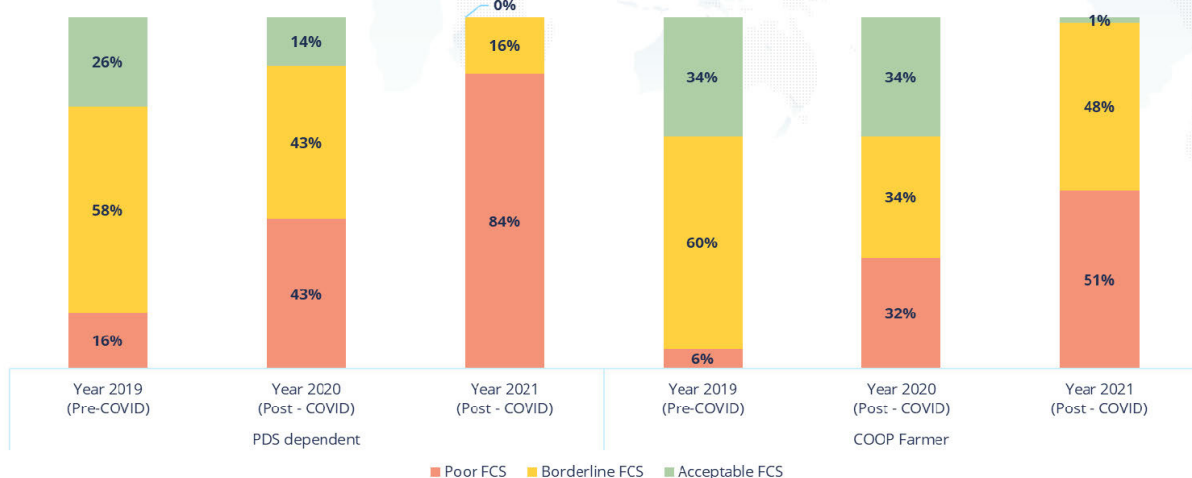
도농간 식품소비 비교

GS&J 인스티튜트

❖ 도시와 협동농장 가구의 식품소비 적합도 비교

- 2021년 식량배급 대상 가구의 84%가 부적합한 식품소비

Food Consumption Score by Beneficiary Group



자료: WFP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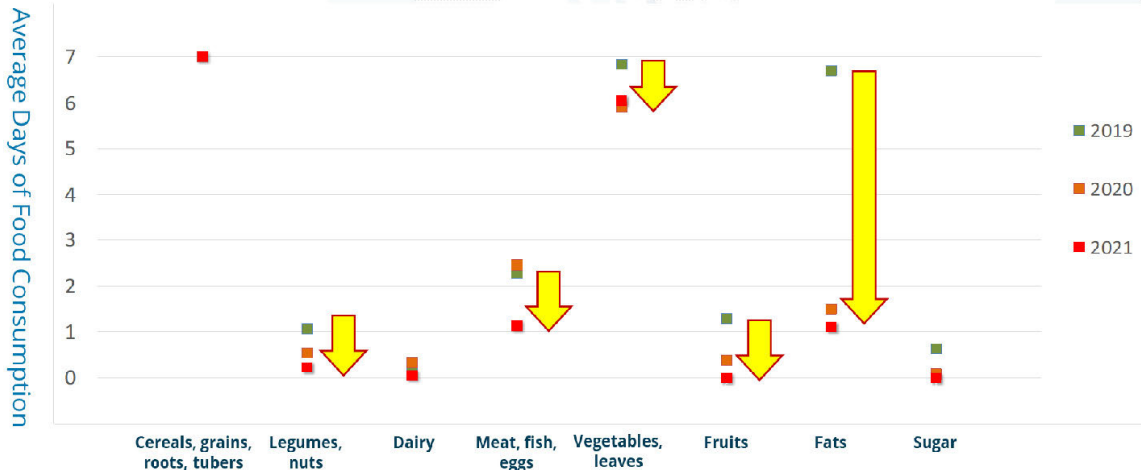
I 16/43

품목별 식품소비 동향

GS&J 인스티튜트

❖ 섭취하는 식품의 다양성이 축소

- 2021년 콩, 육류, 어류, 계란, 과일, 채소, 지방질 섭취가 현저히 감소



자료: WFP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17/43

2021년 식량수급 전망

GS&J 인스티튜트

- 농촌진흥청은 2020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440만 톤으로 2019년 대비 5.2% 감소한 440만 톤(정곡 기준)으로 추정함에 따라 연간 곡물 부족량은 100만 톤으로 추정

구 분		계	쌀	옥수수	서류	맥류	두류	잡곡
재배면적(천ha)		1,838	511	740	343	85	131	28
수 량(kg/10a)		-	395	204	157	188	115	71
2020년 생산량(만 톤) (A)		440	202	151	54	16	15	2
2019년 생산량(만 톤) (B)		464	224	152	57	15	14	2
2019년 대비	증감량(만 톤) (A-B)	-24	-22	-1	-3	1	1	0
	증감비율(%)	-5.2	-9.8	-0.7	-5.3	6.7	7.1	0
	[(A-B)/B×100]							

- 쌀: 정곡기준(쌀 수량 = 조곡 × 0.72)
- 서류: 감자(생체중의 25%), 고구마(생체중의 30%)
- 곡물 소요량: 570만 톤(정곡 기준)
- 공급량(자체 생산+상업적 수입+지원): 470만 톤
- 전년 이월: 0 (?)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18/43

2022년 식량수급 전망

GS&J 인스티튜트

- 농촌진흥청은 2021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2020년 대비 7% 증가한 469만 톤으로 추정
 - ✓ 2022 양곡연도의 곡물 소요량은 600만 톤으로 100만 톤 이상 부족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중 국경이 폐쇄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 실적이 저조
 - ✓ 2020년 북한은 중국에서 총 113,480톤(2019/20 양곡연도 기준 187,000톤)의 식량을 수입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수준
 - ✓ 2021년에는 총 7,487톤(밀가루 980톤, 콩 6,491톤)의 식량을 수입
- 2022년 1-4월 동안 북한은 중국에서 25,000여 톤(900만 달러)의 식량을 수입하였으며 그중 95%가 밀가루
 - ✓ 2021년 같은 기간에는 식량 수입량이 전무
- 2022년 1-4월 동안 북한은 12,000톤(요소 5,000톤, 유안 7,000톤)의 비료를 수입
 - ✓ 2021년 같은 기간 북한은 52,000여 톤(요소 26,500톤, 복합비료 25,500톤)을 수입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19/43

2022년 식량수급 전망

GS&J 인스티튜트

- 2022년 4월 이후 봄가뭄이 이어진 데다 코로나19까지 확산되어 올해 농사 전망이 불투명하며 전체적인 식량수급 상황이 악화될 전망
 - ✓ 밀과 보리 등 이모작 작황까지 부진하여 식량난이 가중
 - 밀과 보리가 팽 시기에 가뭄이 지속되어 종실이 충분히 여물지 못함
 - ✓ 봄가뭄과 더불어 영농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해 가을 작황 전망도 부정적
 - 주요 곡창지대의 4월 강수량은 평년의 20~30%에 불과
 - 못자리용 비닐박막 공급이 부족한 데다 냉해가 겹쳐 모내기 작업이 지연
 - ✓ 2020년 이후 자체 비료 생산이 감소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수입도 급감하였으며 비닐박막 및 농기계 연료 부족으로 영농작업이 지연
 - 2022년 1-4월 동안의 비료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23%에 불과
 - ✓ 대규모 인력 동원을 시도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에 차질 발생
 - 농기계 연료 부족으로 인력을 동원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 시, 군 경계 밖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노력지원이 어려움
 - ✓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시장의 폐쇄나 이동 제한은 주민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여 식량 구매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
 - ✓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실적은 매우 저조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20/43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내용, 방법

2.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사정

2-1. 농업 실태

2-2. 식량 사정

3. 북한 농업 정책 동향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5. 결론

3. 농업 정책 동향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2~2016)

- **계획과 시장의 조화를 통해 경제발전 추구**
 -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
 - ✓ 생산단위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기본 취지
 - ✓ 노동평가와 분배 원칙 확립: 일한만큼, 번만큼 보수 지급
- **농업은 집단영농체제 유지: 현행 분조제 유지**
 - ✓ 비공식적으로는 가족영농제에 근접한 형태로 운영
-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
 - ✓ 분조제의 틀을 유지한 채 포전담당책임제 시행
 - ✓ 분배제도의 획기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 시도
- **농업부문 분배 원칙**
 - ✓ 국가의 영농자재 공급 실적에 따라 국가:협동농장 분배 몫 조정
 - ✓ 농민 몫에 대한 농민의 자율처분권 부여

3. 농업 정책 동향

GS&J 인스티튜트

-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의 기초
 - 알곡 생산을 증대하고 양곡수매사업을 개선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면서 축산물, 과일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대
 -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
 - 산림복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국토와 환경을 보호
-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서 농업부문의 목표와 방향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를 통해 성과를 달성
 - ✓ 우량품종 육종 및 종자 생산
 - ✓ 남새온실과 버섯공장의 생산 정상화
 - 축산부문은 집짐승 종자와 먹이 문제 해결 및 과학적 사양관리
 - ✓ 협동농장의 공동축산과 개별 축산 동시 발전
 -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 수준 제고
 - 종합적 기계화를 통해 기계화 비중 60~70% 수준으로 향상
 - ✓ 협동농장의 농기계 가동률 향상과 영농공정의 기계화 확대
- ❖ 후속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 추진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23/43

3. 농업 정책 동향

GS&J 인스티튜트

- ❖ 노동당 제8차 대회(2021. 1. 5 – 1. 12)
 -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2016-2020)의 실패
 - 불리한 외부적 여건
 - 자력갱생의 한계
 -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을 채택
 - 인민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해결책 제시
 - 상세한 계획 내용은 비공개
 - 경제발전 계획의 기본 방향
 - 목표: 자립경제와 계획경제
 - 수단: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 농업부문 계획
 - 식량문제의 우선 해결
 - 2019년 국가 곡물수매 목표 유지
 - 농업부문 5대 요소 강조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24/43

3. 농업 정책 동향

GS&J 인스티튜트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2021.9.29 – 9.30)

-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정연설
 - ✓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
 - ✓ 경제사업의 우선 해결 과제는 원료와 자재, 동력과 설비의 보장
 - ✓ 사회주의 건설의 우선 과제는 인민생활의 안정과 발전
- 농업부문의 우선 추진 과제
 - ✓ 재해성 이상기후에 견디는 우량 종자의 육종과 개량
 - ✓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로의 방향 전환과 생산성 증대
 - ✓ 물 관리체계의 개선과 물 문제 해결
 - ✓ 기상장비 현대화와 기상예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개선
 - ✓ 풀 사료 위주의 축산물 생산과 수의방역사업 개선
 - ✓ 대규모 남새 온실농장의 건설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25/43

3. 농업 정책 동향

GS&J 인스티튜트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 12. 27 – 31)

-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 6개 의제 중 농업 및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
 -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위한 강령” 3대 목표
 - 농촌근로자의 사상 의식 제고
 -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 농촌 생활환경의 근본적 개변
- 현재의 농촌문제 해결에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 단기적으로는 알곡 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 농사를 강하게 추진
 - 보리와 밀 재배면적 2배 이상 증가
 - 황해남도를 식량생산의 중심 기지로 지정
 - 전국적으로 콩 농사, 감자 농사 열풍을 고조
 - 저수확지를 개량하며 농장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임
 - 축산기지를 현대화하고 축산발전에 유리한 군을 ‘축산군’으로 전환
 - 우량 과일 품종을 확산하고 신선한 과일과 과일 가공품을 공급
 - 남새밭 관수체계를 복구하고 현대적인 대규모 남새온실 농장을 확대
 -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온실농장 착공(2022. 2. 18)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26/43

3. 농업 정책 동향

GS&J 인스티튜트

-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 농촌경영의 물질 토대를 강화
 - 농업경영의 4화(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 실현
 - 자연재해에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관개체계 확충
 - 비료와 효능 높은 농약의 충분한 공급
 - 현대적인 전력설비와 전기기계 공급으로 생산과 문화생활 개선
-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농촌발전전략 10년 투쟁
 - 모내기과 가을걷이 등 주요 영농시기에 국가적인 역량과 수단 동원
 - 주민 동원의 고착화?
 - 협동농장의 국가 대부금 탕감
 - 돈주나 물주로부터의 염(돈이나 물자, 낱알 빌리기) 증가와 이자 부담(30~50%)
- 농촌 생활환경 개선
 - 삼지연 수준의 현대적 살림집 건설
 - 협동농장 및 농장원의 부담 증가
- 배경?
 - 도농 격차에 따른 농민과 농촌사회의 불만 제기
 - 현 상황에서 농업부문을 통한 경제개발이 상대적으로 유리
 -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칭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 27/43

3. 농업 정책 동향

GS&J 인스티튜트

❖ 김정은의 농정평가(긍정적인 측면)

- 시장 기능의 확대
 - 협동농장의 책임경영제 도입과 자율권 확대
 - 시장을 통한 주민의 경제활동 확대와 식량조달
- 제도 개혁과 개방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계획
 -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의 도입
 -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과 정착
- 경제에 주력하려 했으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와 어려움 확대
 - 무역의 축소와 재정난
 -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자력갱생 주창
- 협동농장 내 계획과 시장 요소의 공존
 - 계획보다는 시장 소요의 상대적 확대와 회귀
 - ✓ 생산물의 선택, 생산물의 판매, 생산요소의 조달, 자금의 조달 등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 28/43

3. 농업 정책 동향

❖ 김정은의 농정평가(부정적인 측면)

- 민생문제의 해결에 주력하였으나 성과는 미흡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 되면서 어려움에 봉착
 - ✓ 민생문제 해결 시도는 결국 민생에 대한 부담 증가로 귀착
- 계획과 시장의 부조화
 - 계획과 시장의 조화를 통해 나름의 성과를 확인하였으나 머뭇거림
 - ✓ 시장의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해야
- 개혁과 개방의 불균형
 - 개혁과 개방은 수레의 양 축
 - ✓ 개혁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나 개방은 미진
 - ✓ 개방을 통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해야
- 자력갱생의 한계
 -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스핀오프(spin-off) 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
 - ✓ 군수공업과 과학화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모색하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함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하에서 자본 조달의 어려움
 - ✓ 외부의 자본 조달이 어려운 가운데 자체 자본 조달의 한계를 실감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내용, 방법

2.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사정

2-1. 농업 실태

2-2. 식량 사정

3. 북한 농업 정책 동향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5. 결론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GS&J 인스티튜트

❖ 교류협력의 분류

협력의 형태		주체	주요 사업	정부 역할
지원	인도지원	정부/민간	식량, 비료지원 긴급구호 지원	직접지원 재정지원
	기술교류	정부/민간	농자재 지원 농업기술 교류	인프라구축 기술지원
	개발지원	정부/민간	생산기반 복구 산림환경 조성	직접지원 재정지원
상업적	교역	기업	농산물 교역 임가공/계약재배	제도구축 협업
	경협	기업	투자(합작/합영)	제도구축 인프라 구축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31/43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GS&J 인스티튜트

❖ 인도적 지원(1995~2016)

- 대북 인도적 지원 중 정부지원 72.7%, 민간지원 27.3%
- 정부 차원의 지원: 총 2조 3,897억원
 - ✓ 식량지원 및 비료지원에 주력
 - 당국 지원: 식량 25만 톤, 비료 255만 톤 등 총 1조 1,249억원(47.1%)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식량 54만 톤 등 총 2,742억원(11.5%)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178억원(4.9%)
 - 식량차관: 식량 260만 톤(8,728억원)(36.5%)
- 민간 차원의 지원(무상): 총 8,957억원
 - ✓ 재해 및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물자 지원
 - ✓ 민간단체의 모금 및 지자체의 후원금이 주된 자원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32/43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GS&J 인스티튜트

❖ 개발 협력

- 민간단체가 주된 역할을 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 주요 민간단체의 농업부문 개발지원사업

단체명	연도	관심분야
국제기아대책기구	1997	지하수 개발, 유기질 비료 지원
국제옥수수재단	1998	옥수수 신품종 개발
굿네이버스	1998	축산개발, 사료공장 건설 및 지원
남북나눔	1996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자재 및 농기구 지원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1999	씨감자, 농자재 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7	옥수수 및 콩 종자 지원, 축산개발
북고성군농업협력단	2002	온실 농자재 및 기술 지원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지역개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7	축산개발, 농기계조립공장, 양묘장, 농촌개발
월드비전	1998	씨감자 수경재배 온실, 인력훈련, 농촌개발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2000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씨감자 조직배양
통일농수산사업단	2004	시범농장사업, 양돈장 지원
평화의 숲/겨레의 숲	1999	조림사업, 양묘장 복구, 산림병해충 방제

GS&J 인스티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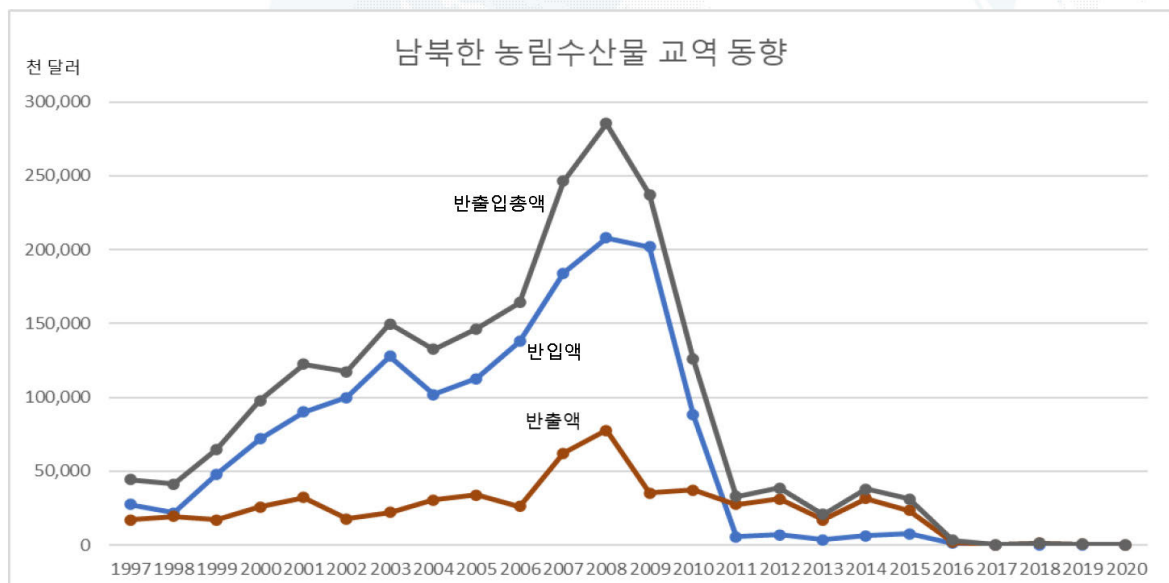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 33/43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GS&J 인스티튜트

❖ 교역: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자료: 통계청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 34/43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GS&J 인스티튜트

❖ 경험

- 위탁가공사업, 계약재배, 합영 및 합작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 ✓ 연불수출 방식: 현대아산의 고성남새온실농장
 - ✓ 임가공 방식: KT&G의 담배 제조
- 농식품 분야에서 25개 정도의 경험사업이 승인을 받음
 - ✓ 성공: (주)태창의 금강수, (주)경 평인터내셔날의 평양통배추김치
 - ✓ 실패: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
- 실패 원인
 - ✓ 경험사업자의 준비 부족
 - ✓ 북한의 인프라 미비
 - ✓ 사업 자금 부족과 시장 개척의 어려움
 - ✓ 남북한 사이의 정치 환경의 변화
 - ✓ 경험을 위한 남북한의 제도적 미비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35/43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GS&J 인스티튜트

❖ 남북협력 추진을 위한 고려 사항

- 남한의 관심 사항
 - ✓ 남북한 합의 사항
- 북한의 관심 사항
 -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경제개발구(중앙 및 지방)
- 국제제재
 - ✓ 유엔안보리 및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
- 국제사회와의 협력
 -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SDGs) 의제
 -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의제
 - ✓ 국가간, 사업간 연계성 확대와 중복성 조정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I 36/43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GS&J 인스티튜트

❖ 남북농업협력의 과제

- 지속성 확보
 - ✓ 정치와 경제의 분리
- 가능한 협력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 인도적 지원 → 개발협력 → 교역 → 경험
- 제도의 정비
 - ✓ 남북이 함께 추진
- 상호보완적 협력
 - ✓ 한반도 통합을 지향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 37/43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GS&J 인스티튜트

- 북한의 경제개발 의지와 농업분야의 발전계획에 비추어 농기계, 온실·축사·창고 등 시설, 수송 및 운반 도구, 다양한 농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 이 분야의 협력은 경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당장 경험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우므로 물자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전문가 교류,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하며 향후 종합적인 협력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향후의 남북 농업협력은 과거의 프로젝트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기로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초점을 맞춤
 - ✓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협력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조성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및 농촌개발협력, 교역,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정비,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
 - 국제사회와 함께 전 지구적 과제인 지속가능개발(SDGs) 목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추진

GS&J 인스티튜트

Copyright (c) 2022 by GS&J. All rights reserved.

| 38/43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내용, 방법

2.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사정

2-1. 농업 실태

2-2. 식량 사정

3. 북한 농업 정책 동향

4. 남북한 농업협력의 현재와 미래

5. 결론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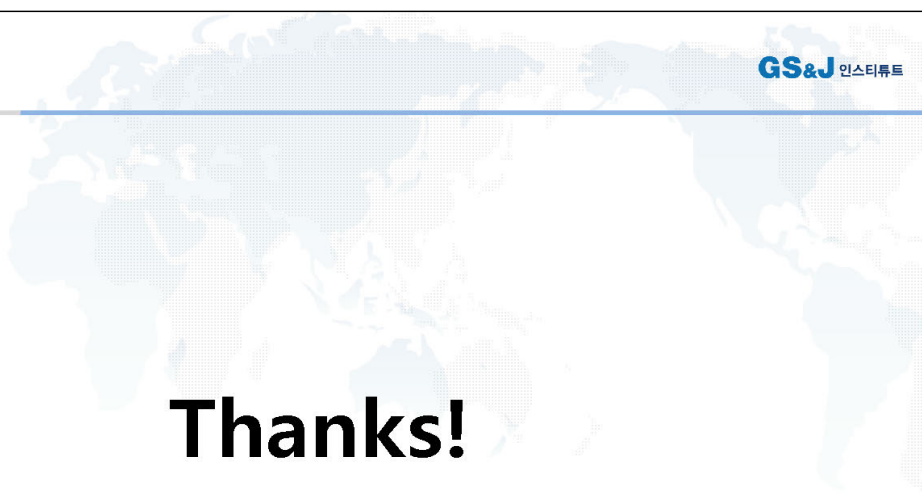
-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 확대,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 농업관리방식의 개선: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에 시장 요소 확대
 - ✓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과학화를 투자 확대
 - ✓ 효과적인 농업정책: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성공적 추진
 - ✓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확립이 가장 중요: 향후 과제
 - 가족농, 토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 시장화, 이중가격제 개선
 -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 내부자원만으로는 농업성장에 한계
 - ✓ 과학화만으로는 한계
 - ✓ 자력갱생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
 - ✓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자원 및 기술의 유입과 활용이 필수적
 - ✓ 농업 내부 자원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5. 결론

- 자본 및 자원의 확보
 - ✓ 내부자원의 효과적 활용: 토지, 인력, 내부자본
 - ✓ 외부자원의 유치: 농업인프라 개선, 농자재 산업, 기술 등
- 내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 ✓ 시장 중심의 개혁
 - ✓ 이중가격의 극복
-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북한은 법과 제도의 개편과 함께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어야
 - ✓ 국제기준 적용을 통한 개방이 필수
 - ✓ 남북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 ✓ 국제개발은행 가입을 통해 개발 재원을 차입할 수 있어야

5. 결론

- 시장을 경제운용의 핵심 기제로 활용
 - ✓ 현재 북한 당국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 활동을 암묵적 또는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시장이 국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
 - ✓ 북한 당국은 시장을 단순히 계획경제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계획과 병행하는 전략
 - ✓ 시장을 통한 재정수입이 막대하기 때문에 시장이 없을 경우 계획경제 자체가 위협받음
 - ✓ 따라서 순수한 계획경제로의 회기는 불가능하며 시장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농업부문도 시장화에 대응한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
 - ✓ 시장화 진전의 결과 농민은 경제적으로 최하층민으로 추락
 - 농업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계획경제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제적 활동은 비농민에 비해 제약이 큼
 - ✓ 5.30조치로 협동농장의 독립채산제 및 자율처분권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농자재는 여전히 국가공급체계의 틀 안에 갇혀 있음



Thanks!

종합토론 좌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교수

학 력

고려대학교 농화학과(농학사)
덴마크 왕립수의농과대학 대학원 식품저장학교실(농학박사)

경 력

前) 미국 M.I.T.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원
前)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前) 고려대학교 부설 식품가공핵심기술연구센터 소장
前)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前)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회장
前)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미생물학회연합 회장
前) 한국식품과학회장, 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 초대회장
前)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 회장
前) Codex 제15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의장
前)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민간위원협의회 의장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前) 한국인정원 식품안전미래포럼 위원장
前) UN식량농업기구(FAO) 고문관(Consultant)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現) 국제식품과학기술한림원(IAFoST) 회원
現) 미국 식품공학회(IFT) Fellow
現)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現)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토/론/문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신 동 화





Profile

신 동 화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공학박사

경력

- 前) (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 前)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 前) (사)한국식품과학회 회장
- 現) (사)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 現) (사)한국장류기술연구회 회장
- 現) 신동화식품연구소 소장
- 現) 식품안전Committee위원장(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 現)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종신회원
- 現)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식품산업은 세계 모든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으로서 인류 출현과 함께 해온 필수분야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의 급격한 발전은 식품원료를 생산하는 농업과 이를 가공, 처리, 유통하는 분야가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되면서 식품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식품산업은 가공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책임의 한계를 넘어 이들 제품을 비축하고 유통함으로써 급변하는 국가 식량안보에도 크게 기여하는 영역으로까지 역할이 확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가공식품의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인 7~80% 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식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영양공급 상황도 고려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식량부족 사태는 전쟁과 기후변화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113조원에 이르며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13억불로 마의 100억불을 넘어서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산업은 전체 매출액이 144.4조원으로, 직접 식품과 관련되는 규모는 25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유통업 분야인 소·도매업의 매출 총합은 264조원으로 이들을 합하면 500조원이 넘는 규모의 거대 산업군이 형성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특히 소득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산된 원물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면서 장기저장 및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상생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식품산업은 소비 대상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포화되고 있는 국내 수요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절박한 처지에 있다. 마침 K-culture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K-Food도 붐을 일으키고 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개발과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업계에 필요한 국가별 수출정보 수집, 제공, 품목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세장벽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해야한다. 연구개발의 산실인 대학과 함께 국가 연구기관도 기술차별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길 확대를 위한 여건 확충에도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외식산업은 상품뿐만 아니라 고유한 우리 식문화를 알려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대비 또한 소홀히 다룰 일이 아니다. 식품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은 우리 정부와 식품산업계가 책임을 공유해야 할 분야이다. 언제가 되려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닥칠 위기에 대비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준비 또한 중요사항이다.

식량 안보는 국방에 버금가는 국가적 책무이나 공기나 물과 같이 우리 주위에 항상 충분하다는 착각으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만 일시적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식량문제는 장기적으로 상시 대비하며 어려움을 예방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식량비축의 개념을 곡물로 한정지우기 보다 가공된 제품까지로 그 영역을 넓혀야 종합적인 국가 식량안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토/론/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박 용 호





Profile

박 용 호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 약리학 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대학원 수의 미생물학 박사

경력

前) (사)대한수의학회 이사장

前)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원장

前)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회장

現) UN/FAO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

現) 국가수의자문회의(NVAC) 의장

現) 미국 미시시피주립대학 겸임교수

現)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겸임교수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現)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식량 안보·안전·안심 그리고 글로벌 체계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경험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식량안보, 식품안전 그리고 국민 안심 시스템 구축으로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를 통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글로벌한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식품안전문화’와 ‘식량안보의식’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식품안전 시스템 관리체계’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생산 농장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식품시스템 체인 별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체인에서 요구되는 식품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호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인 정보 및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식품 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안전과 관리를 담당한 식약처는 물론 수출입전담 기구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센터) 등이 함께 불확실한 미래 식량확보와 식품안전을 위한 국민안심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야만 합니다.

통합 식품관리 및 식량안보 시스템 프레임 접근방식은 다차원적인 사회 생태학적 요소를 결합하여 식량, 식품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태학적 차원의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 정부, 학계, 그리고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바라보는 식품생산 및 소비자 안전 측면의 솔루션을 뛰어넘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및 음식물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 재활, 건강, 웰빙, 초고령사회 대비는 물론 노동자 보호, 식량 원료 확보 등의 다각적인 활로 확보와 같은 현 글로벌 식량 체계에서 제기되는 담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데믹 코로나와 같은 범세계적인 감염병의 출현으로 식량 안보와 식품 안전을 위한 시각은 더욱 다양하여 되어 단순한 식품안전과 식량확보를 넘어서는 글로벌 헬스 차원의 국민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담관리기구가 요구됩니다. 국제적으로는 WHO(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넘어서 안전·안보차원의 국제기구인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의 등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즉, 감염병, 식량, 건강 등을 글로벌 안보 차원으로 승격시켜 UN 이 정한 SDA(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의

내용과 부합하는 미래 비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글로벌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한 현장에서의 적용과 보다 효율적인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식량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한국 식품의 안전과 선진화된 식품안전 및 식량 안보적 기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론/문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이사 원혜영





Profile

원혜영

학력

경기대학교 외식조리관리 관광학 박사

경력

前) 한국외식정보(주) 컨설팅사업본부 책임연구원

現)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총괄이사

現) 경기대학교 외식조리관리학과 겸임교수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의견

국내 외식산업의 연평균 성장세, 그리고 산업의 선진화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수나 해외 진출 브랜드 수를 볼 때 국내 외식산업도 어느 정도 선진화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식진흥원이 조사한 해외 한식당 수 4만여개, aT 조사를 기준으로 한 해외 진출 외식 기업수 123개, 해당 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수 135개와 점포수 3,409개라는 데이터만으로 보면 아직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글로벌 외식기업/브랜드와 비교 시 ‘양적 글로벌화’가 더딘 편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외식 브랜드인 맥도날드는 40,031개(21년 기준), 스타벅스 34,317개(22년 1월 기준), 피자헛 18,381개(21년 기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981개(21년 기준), 웨이크췌버거 377개(22년 2월 기준)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를 리딩해야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형 외식브랜드가 많지 않다는 것도 한계점이다.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히 진행했던 기업형 외식업체들(진로의 진로주가, 두산의 수복성, (주)놀부의 놀부명가, 광주요의 화요, CJ의 비비고 등)은 현재 대부분 철수한 상황이며, 한국 외식기업들의 대표 진출국 중 하나인 중국의 주요 쇼핑몰에는 한국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대신 중국기업들이 운영하는 한식 브랜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한국 외식브랜드들이 눈여겨보는 진출 희망국들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일본의 외식 브랜드들은 주요 몰이나 백화점의 F&B MD 구성 시 우선 입점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실제 일본 브랜드의 입점 비중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외식산업, 외식기업 및 브랜드의 해외 진출은 비단 해당 기업과 브랜드만의 이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효익을 볼 수 있다. 특히 K-Culture를 중심으로 한 한류가 일시적 붐이 아닌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지속되면서 K-Culture의 한 분야인 K-Food(음식 문화, 음식, 브랜드 등) 역시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 음식관광 활성화, 식재료 및 기기·기물의 수출 등의 효익을 보이고 있는 등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문화, 특히 외식산업·외식문화 만큼 효과적인 사업은 없을 것이다. 빅맥지수까지 만들어 낸 맥도날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황금아치만 봐도 맥도날드라는 것을 인지

할 수 있으며, 맥도날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 나라의 외식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선진화 여부가 판단될 정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역시 단순히 해외 진출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글로벌 외식 브랜드, 글로벌 외식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이에 따른 전략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한식 세계화’가 아닌 ‘한국 외식산업의 세계화’로 범위를 확대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재료, 조리방법 등에 있어 ‘정통 한식, 한식 조리법’으로 ‘한식의 범위’를 한정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글로벌 외식시장 및 트렌드에 맞춰 현지화한 컨셉과 형태로 운영하되 근간에 한식·한식문화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한식당 등으로 지원의 대상 역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이라는 개념에서의 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한식산업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분류 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업종(메뉴) 중심의 분류체계가 아닌 서비스 형태(ex: full-service, semi-full service, self-service, etc), 객단가(ex: fine-dining, polished-casual dining, casual dining, fast casual, fast-food) 등을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를 통해 특정 업종의 개념이 아닌 ‘한국 외식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외식기업 차원에서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이들 외식기업들의 현지 진출에 필요한 비즈니스정보와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환경적 변수가 지속되고 있지만 어찌보면 지금이 한식의 해외진출, 한국 외식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호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격상되어 있으며, K-컬처, K-한류문화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 외식산업 역시 이러한 흐름을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호기에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각 나라의 외식산업 현황 및 소비 주체의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한식과 한국 외식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해외진출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소구될 수 있는 표준, 즉 글로벌 브랜드의 핵심인 컨셉·운영전략의 표준화’가 무엇인지 찾고, 이러한 표준을 바탕으로 국가별·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문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센터장 채 수 완





Profile

채 수 완

학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 석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Medical School 의과대학 Post-Doc

경력

前) 전북대학교 의학대학 교수

前) 미국 메릴랜드주 한국무역통상부 자문위원

前) (재)임상시험산업본부 감사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現)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센터장

現)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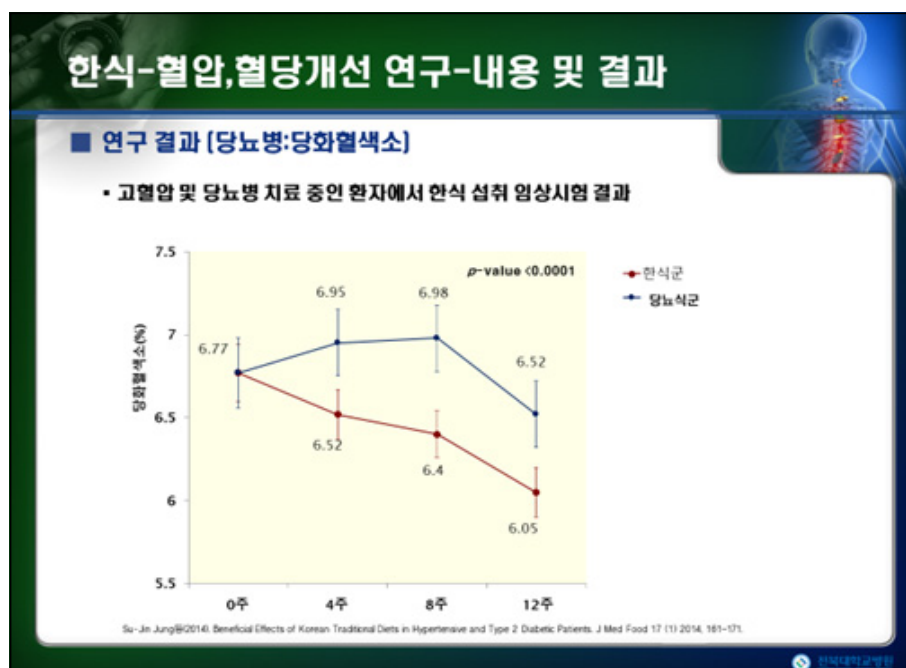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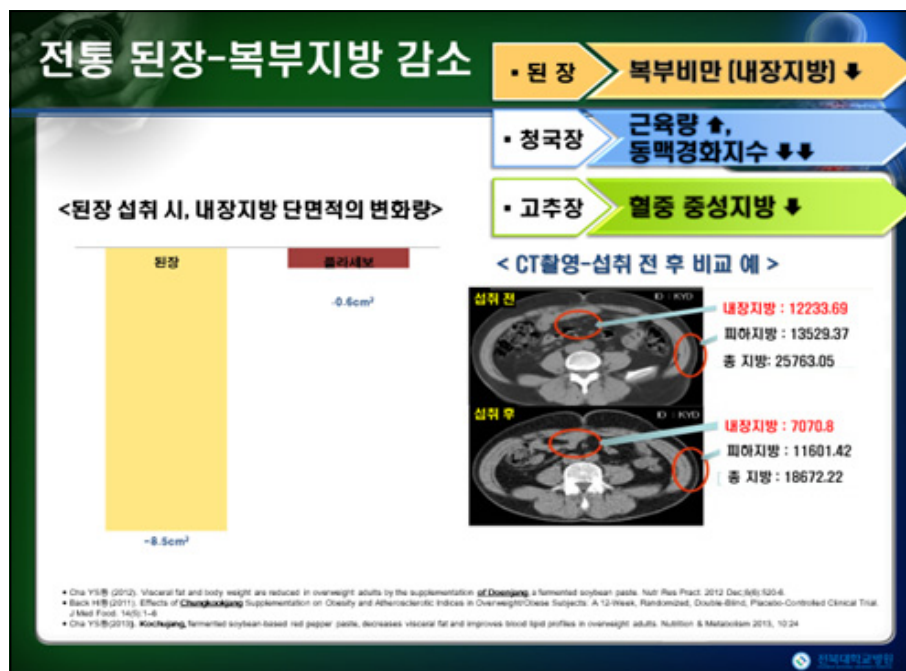
現)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부회장

K-푸드의 건강 가치

한류문화가 천시를 만난 듯 영화, 드라마, 음악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K-푸드는 어떠한가? 한국인은 먹는 것을 중요시하여 나이도 먹고, 육도 먹고, 놀려도 먹고, 골도 먹는다고 표현한다. 한민족은 공자의 사상인 덕(德): 十까지 行하는데 四방에 一(하나) 같이 心(마음)씀 의 정신사상을 먹는 → 떡으로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을 정도로 먹거리에 마음을 담았다.

동쪽으로 계속된 인류이동은 만 이천 년 전까지 지속되었던 빙하기로 북쪽으로는 얼음으로 동쪽으로는 바다로 막혀 석회동굴이 많은 한반도에 머물렀고, 빙하기가 풀렸을 때 한반도 근처의 쌀과 콩, 들깨를 농사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콩과 불, 소금을 이용한 장류를 발달시키고 산과 들에 있는 허브를 장을 이용하여 나물로 만들어 먹을 줄 알았다. 밥, 국, 장, 김치에 나물 등 반찬을 같이 먹는 K-푸드는 지중해식과 비교해도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하나 흰밥과 김치를 주로 섭취하는 전통식군이 대사성증후군이 높다는 보고 등이 있었으나 이를 반론할 수 있는 과학적 임상시험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 이중 맹검, 플라세보대조군을 통한 12주 임상시험결과 된장은 내장비만, 청국장은 근육량, 고추장은 혈중중성지방을 개선하였다. 한식 식사유형지에 들어갈 7가지 항목: 밥류, 국류, 김치류, 장류, 생채/숙채류, 마른반찬/젓갈 7항목과 7항목의 일일섭취도를 점수화하여 80점 만점에 잡곡밥을 20점 가산 총100점으로 하는 한식식사유형지수를 만들어 정조시대의 검박한 3첩 반상차림을 기본으로 구성하여 고혈압 당뇨병을 복용하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12주 무작위 대조군 한식임상시험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현미채식으로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치료하고 약을 끊었다고 메스컴에 소개된 대구의료원을 후향적으로 연구했던바 160명 환자에서 평균 3.5개의 약을 복용하였으나 입원 7일에 50%에서 14일에 80% 환자가 약물복용을 중지하였으나 혈압은 입원시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41명의 당뇨,고혈압약 복용환자를 두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후 한군은 한식을, 다른 한군은 당뇨학회 추천식으로 12주 임상시험하였다. 한식군이 1일 340 Kcal, 소금 4.3g을 더 섭취하였으나 당뇨식군에 비해 유의하게 체지방량, 체중, 당화혈색소, 간효소GGT, 혈압, 심박수가 감소하였다. 한식 식이유형 섭취와 건강지표 관련성을 본결과 나물5, 간장5, 된장3개 지표가 좋아졌고 주요 식품군섭취와 건강지표를 비교한 결과 견과류5, 섬유소5, 해조류3, 채소가 3개 지표를 좋게 하였다. 한식 3첩 반상은 비빔밥 한그릇과 비슷한 영양학적 가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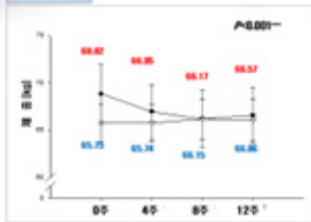
당뇨식군보다 340Kcal , 소금4.3g더 먹은 한식군에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감소, 혈압과 분당맥박수 감소, 혈중지질 개선, 체중 감소, GGT 감소 시켰고, 나물류, 콩발효식품(간장, 된장)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 고지혈지표 HbA1c, TG,TC, Apo E, Apo B가 좋아지게 하였다. 간효소 GGT는 잔류성오염물질시(POPs) 증가시 증가하는데 감소됨은 해독작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대로 된 한식은 고혈압, 당뇨를 예방 관리할 수 있고, 비만과 지방감소에도 도움이 됨을 보여줘 K-푸드도 한류열풍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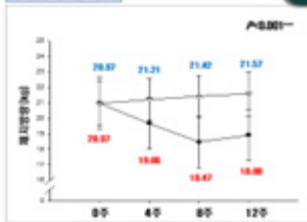
한식-혈압,혈당 개선연구-내용 및 결과

○ 연구 결과 (체중, 체지방량, 골격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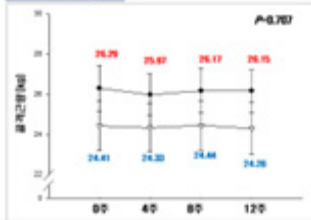
체중 변화



체지방량 변화



골격근량 변화



● Hanseok group
■ Dalgosik group

Su-jin Jung (2014). Beneficial Effects of Korean Traditional Diet in Hypertensive and Type 2 Diabetic Patients. J Med Food 17 (1) 2014, 161-171.

원주대학교병원

< 한식 식이유형 섭취와 건강지표 관련성 >

Korean diets	KDPS	쌀	국	김치	장	마른반찬	나물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Glucose	-0.047	0.092	-0.110	-0.083	-0.269	-0.255	-0.171	-0.144	0.015	-0.154	-0.069
HbA1c	-0.274	0.204	-0.272	-0.002	-0.156	-0.268	-0.362*	-0.362*	-0.192	-0.336*	-0.088
HOMA-IR	-0.068	0.022	0.009	-0.003	-0.008	-0.185	-0.200	-0.259	0.000	-0.140	0.077
HOMA-B	0.008	-0.062	0.063	0.081	0.156	0.095	-0.038	-0.043	0.015	0.025	0.109
hs-CRP	-0.132	0.130	0.208	0.024	-0.243	-0.290	-0.162	-0.189	-0.013	0.010	-0.036
PAI-1	-0.140	0.253	-0.356*	-0.017	0.014	-0.040	-0.360*	-0.315*	-0.356*	-0.226	0.154
Fibrinogen	-0.018	0.063	-0.209	0.044	-0.216	-0.356*	-0.079	-0.189	-0.007	0.054	-0.070
MDA	-0.020	-0.084	0.039	-0.025	-0.131	-0.043	-0.111	0.120	0.010	-0.029	0.129
Apo E	-0.372*	0.099	-0.143	0.097	0.019	0.254	-0.216	-0.228	-0.170	-0.167	-0.038
Apo A1	0.142	-0.212	0.033	-0.293	-0.049	0.061	0.080	0.078	0.010	0.097	0.031
Apo B	-0.400*	0.302	-0.418**	-0.057	0.006	-0.246	-0.442**	-0.321*	-0.322*	-0.287	0.106
Adiponectin	0.277	-0.371*	0.125	-0.085	0.038	0.187	0.260	0.233	0.266	-0.142	0.067
TC	-0.217	0.102	-0.270	-0.154	0.073	-0.179	-0.278	-0.236	-0.229	0.165	0.173
TG	-0.394*	0.278	-0.210	0.109	0.121	-0.050	-0.441**	-0.343*	-0.347*	-0.306	0.010
HDL-C	0.213	-0.262	0.094	-0.311*	-0.100	0.050	0.221	0.127	0.102	0.163	0.034
LDL-C	-0.206	0.116	-0.295	-0.145	0.065	-0.217	-0.282	-0.230	-0.200	-0.140	0.164
ALT	0.084	0.354*	-0.305	-0.050	-0.362*	-0.290	-0.164	-0.082	-0.191	-0.106	-0.068
GGT	-0.244	0.211	-0.271	-0.363*	-0.195	-0.171	-0.426**	-0.339*	-0.227	-0.242	0.049
AST	-0.240	0.317*	-0.340*	-0.275	-0.101	0.000	-0.239	-0.030	-0.220	-0.106	-0.070

*: p<0.05, **: p<0.01

원주대학교병원

토/론/문

Pulmuone Foods USA 박사 한 정 훈





Profile

한 정 훈

학력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농학석사

미국 Purdue University 식품공학과 Ph.D.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인문학석사

경력

前) 캐나다 마니토바대학 식품공학과 조교수/부교수

前) PepsiCo Inc., Global R&D (R&D Principal Engineer)

前) Pulmuone Foods USA (R&D Division Manager)

現) Pulmuone Foods USA (Senior Director)

現) Journal of Food Science (Scientific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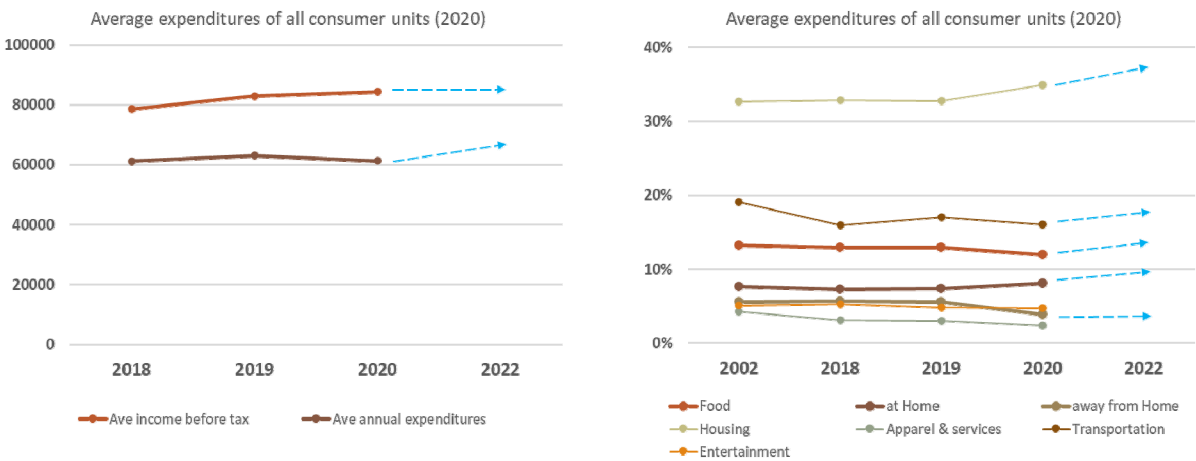
미국시장에서 한국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의 전망과 과제

우리는 현재 인류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SARS-CoV-2 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지나고 있다. 2019년에 발병이 시작된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전세계의 인구가 질병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2022년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적으로 농산물과 식량에 위협을 주는 악재가 되어 COVID-19과 함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본 토론은 COVID-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여 한국 식품산업과 한국 외식산업의 미국 내 사업의 전망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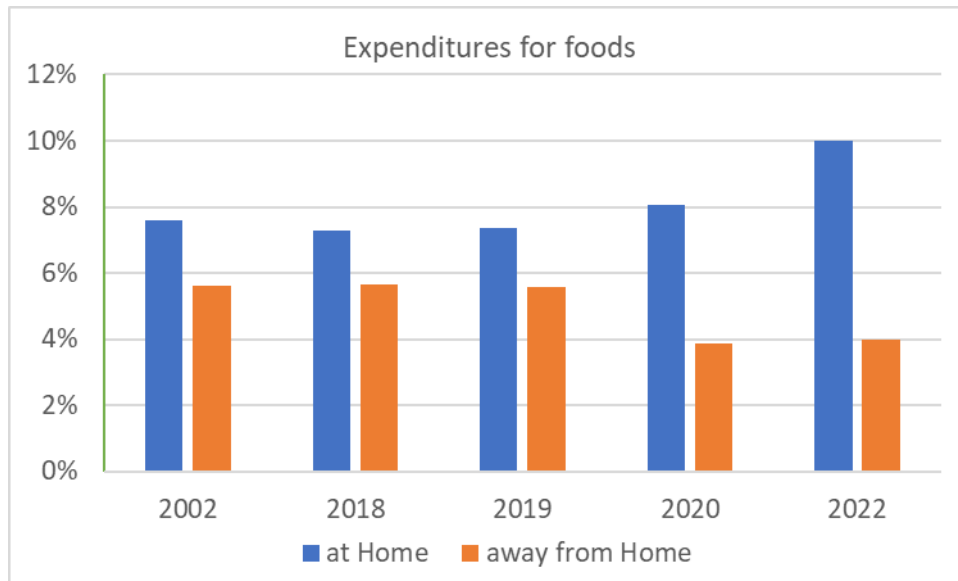
본 토론이 진행되는 2022년 6월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COVID-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자금흐름의 위축으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부양책을 시도하였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장기화된 COVID-19 사태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게다가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 식량경제에 큰 영향을 주어 현재 미국은 극심한 물가상승 특히 농산물, 식품, 에너지 물가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는 2021년 5월 대비 8.6% 상승하였다. COVID-19으로 파생된 문제인 인상된 물가 이외에도 2020년부터 발생한 물류대란은 물자의 수급에 영향을 주어 관련된 산업에 물자부족 현상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원재료뿐 아니라 완제품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현재 미국은 인상된 물가뿐 아니라 부족한 물자로 인한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족한 물자는 당연히 물가 인상의 요인으로 다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일반 가계당 연간소득액이 \$84,320이고 연간소비액이 \$61,334 이다.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많은 사업체의 2022년 연봉은 대부분 동결 수준이다. 즉 연간가계수입의 증가가 미비하다는 의미이다. 물가의 상승은 가계지출의 증가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연간소비액을 100%로 할 때 미국소비자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주거비/주택공과금으로 34.9%를 소비하였고, 교통비로 16.0%, 식품에 11.9%를 소비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 식품으로 소비한 비용은 각각 12.9%와 13.0% 이었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1%p 감소하였다. 이를 슈퍼마켓에서

구매하여 가정에서 소비하는 가정식식품군과 외식을 통해 소비하는 외식식품군으로 구분하면 2020년에는 가정식에 8.1%, 외식에 3.9%를 소비하였다. 2019년에는 각각 7.4%와 5.6%였기에 가정식은 0.7%p 증가하였으나 외식은 1.5%p 감소하였다. 즉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에 미국소비자들은 외식을 줄이고 가정에서 취사하여 식료품비상승에 대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자료는 2020년 자료이다. 2021년의 상세자료는 2021년 세금보고를 기초로 한 모든 자료입력이 완료되는 2022년 말에 분석이 시작되어 2023년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직 공식적인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2021년과 2022년의 상황을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측까지 할 수는 없지만 현지에서 살고 있는 일반노동자면서 일반소비자의 입장으로 경험과 기존 자료들의 경향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는 있다. 우선 가장 큰 지출항목인 주거비용을 살펴보면 2021년 7월 전년 대비 16.6%의 주택가격지수의 상승이 있었으며 또한 10%대의 월세 인상이 있었기에 주거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 34.9%의 주거비지출은 2022년에는 37~39% 사이에 위치할 것이라 가늠된다. 교통비는 가솔린가격의 인상(2020년 대비 45~50% 인상폭)으로 인하여 2020년 16.0%에서 2022년에는 20%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관심사인 식비지출을 예측해보면 물가상승으로 인해 11.9%였던 식비지출(2020년)은 14% 이상(2022년)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중 가정식으로 10%, 외식으로는 4%의 지출이 예측된다. 상기의 자료에 2022년 예측치를 포함시킨 10년간 식비의 지출 경향을 아래 그래프로 다시 구성해 보았다. 2002년부터 pandemic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 식비로 인한 지출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에는 큰 변화를 보인다. 그 주요 원인은 물류대란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 이라고 확신한다.



가정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소비자들이 슈퍼마켓 등의 식료품시장에서 지출하는 비용이고 외식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소비자들이 식당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상기 그래프에서 at Home은 식품산업에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고 away from Home은 외식산업에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의미가 된다. 적어도 미국 내에서 외식산업은 당분간 매우 어려운 사업군이다. 외식을 위한 소비가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그로서리라고 불리는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식료품 즉 식품산업체의 제품에 대한 소비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기의 간단한 분석결과는 미국시장에서의 한국 식품산업과 한국 외식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당분간 현재의 경기가 지속되는 한 미국시장은 그로서리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한국 식품산업 사업체에게는 기회이며 한국 외식산업에게는 극심한 위기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미국시장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식품/외식산업체는 이러한 전망을 고려한 사업전략을 통해 이기고 버티는 게임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도서출판 식안연 책소개



도서출판 식안연

책 소개

식량안보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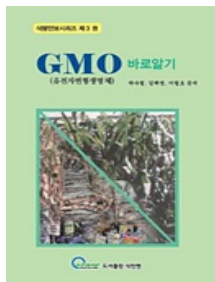
제1권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
이숙중, 이철호 공저
179쪽/정가 8,000원



제2권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김영수, 최재성, 석호문, 신동화 공저
166쪽/정가 8,000원



제3권

GMO 바로알기
박수철, 김해영, 이철호 공저
칼라/253쪽/정가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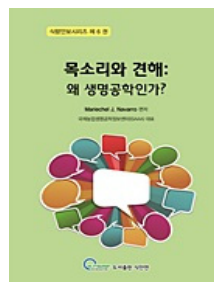
제4권

쌀의 혁명
이철호, 이숙중, 김미령 공저
204쪽/정가 10,000원



제5권

식량낭비 줄이기
채희정, 이숙중, 이철호 공저
244쪽/정가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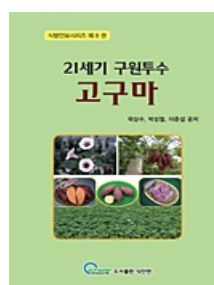
제6권

목소리와 견해: 왜 생명공학인가?
Mariechel J. Navarro
편저/김태산 번역
229쪽/칼라/229쪽/정가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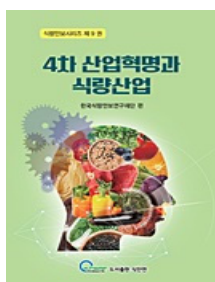
제7권

식량생산 제고를 위한 신(新)육종기술
한지학, 정 민 공저
칼라/153쪽/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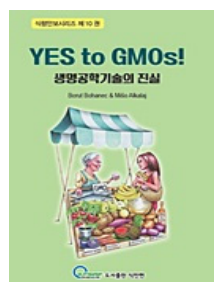
제8권

21세기 구원투수 고구마
곽상수, 박상철, 이준설 공저
칼라/155쪽/12,000원



제9권

4차 산업혁명과 식량산업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316쪽/16,000원



제10권

Yes to GMOs! 생명공학기술의 진실
Borut Bohanec & Miso Alkalaj 공저
김태산 번역
202쪽/12,000원

도서출판 식안연

책 소개



제11권

알기쉬운

방사능·방사선 & 식품안전

권중호 저

국문 / 316쪽

정가: 16,000원

단행본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김세권,
박태균, 권익부 공저

국문판/하드커버

295쪽/정가 16,000원

영문판/하드커버

354쪽/\$30



식량전쟁

이철호 저

국문판/하드커버

238쪽/정가 12,800원

영문판/소프트커버

241쪽/\$20



식품산업 한국

세계화에 날개 달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소프트커버/칼라/373쪽

정가 25,000원



韓·中·日

식량정책 비교

고재모, 김태곤, 이철호 공저

하드커버/338쪽

정가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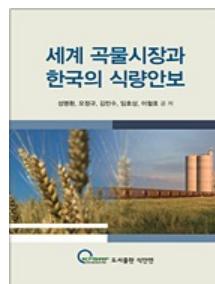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이숙종, 이꽃임 공저

하드커버/223쪽/

정가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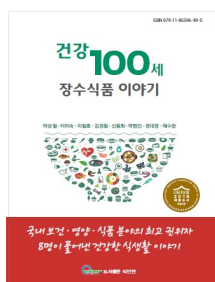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성명환, 오정규, 김민수,
임호상, 이철호 공저

하드커버/357쪽

정가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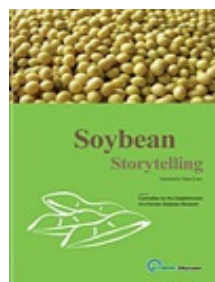


건강100세 장수식품이야기

박상철, 이마숙, 이철호, 김경철,
신동화, 박현진, 권대영, 채수완 공저

국문판/소프트커버

319쪽/정가 18,000원



콩 스토리텔링

한국국립박물관립추진위원회 편

국·영문 합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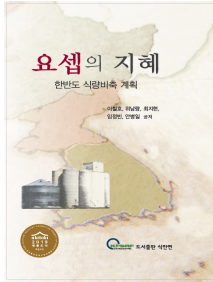
국문 156쪽, 영문 187쪽

소프트커버

정가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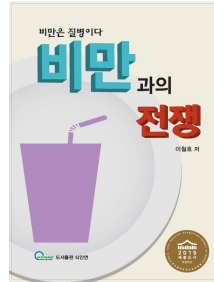
도서출판 식안연

책 소개



요섭의 지혜

이철호, 위남량, 최지현,
임정빈, 안병일 공저
신국판/하드커버/ 237쪽
정가 / 16,000원



비만과의 전쟁

이철호 저
신국판/소프트커버
205쪽/정가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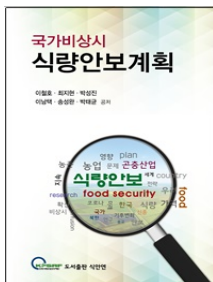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박현진, 김덕호, 권오란
김현옥, 박태균, 이철호 공저
국문판 / 265쪽
정가: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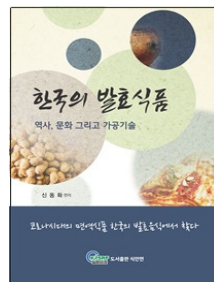
식품미생물학사전

하덕모 저
소프트커버/413쪽
정가 30,000원



국가비상시 식량안보계획

이철호, 최지현, 박성진
이남택, 송성완, 박태균 공저
하드커버/218쪽
정가 18,000원



한국의 발효식품 역사, 문화 그리고 가공기술

신동화 편저
소프트커버/419쪽
정가 20,000원



식품위생안전법규와 제도

전은숙 저
소프트커버/306쪽
정가 18,000원



한국식품사연구

이철호 저
하드커버/438쪽
정가 30,000원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하드커버/279쪽
정가 22,000원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www.foodsecurity.or.kr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

[처음으로](#)
[재단소개](#)
[관리자](#)

[재단소개](#)
[연구지원사업](#)
[출판사업](#)
[국민운동 소개](#)
[세미나](#)
[자료실](#)
[동영상 갤러리](#)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공지사항 바로가기
 *K-Food 세계 거점도시 전주


재단소개
 한국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식량안보정책의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식량낭비 줄이기 국민운동
바로가기

도서 출판 식안연
상/담/문의/전화
 공공하산점 무엇이든 친절히 답변해드립니다.
02.929.2751
 FAX 02.927.5201

대한민국 식량 공급 식품안전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연구지원사업]

- 2022년도 재단 지정연구과제 확정
- 2021년도 지정연구과제 - 대체육 생산 ..
- 식량안보 위기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
- 2021년도 재단 지정연구과제 확정

[+세미나]

- 제28회 식량안보세미나 - 한국 식품산 ..
- 제27회 식량안보세미나 - 우크라이나 ..
- 제26회 식량안보세미나 - 대체육 생산 ..
- 제25회 식량안보세미나 - 국가 비상시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제142호
- 뉴스레터 제141호
- 뉴스레터 제140호
- 뉴스레터 제139호

[+출판사업]

- Korean Food and Foodways (한국식품사 ..
-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 출판 - 보도 ..
- Korean Food and Foodways, contents
- 한국식품사연구 서평 - 한림원의 창 20..

[+논문]

- Food Research International - Cheong ..
- Effect of Hydrocolloids on Rheologic ..
- Regulatory policy on GM breeding
- 성서의 논문로 보는 식량 문제 - 양재 ..

[+뉴스기사]

- 솔직한 논의가 필요한 2가지 농정 의제
- 심각한 식량불안 인구 2억7600만명 ..
- 미국중국EU 등 세계 각국 중산정책 ..
- 우크라이나 곡물수급 비상...오데 ..

동영상

- 제27회 식량..
- 제23차 식량..
- 식품안전과식..

갤러리

- [HIMUN] 제45..
- [HIMUN] 제45..
- [HIMUN] 제45..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109A호
- TEL : 02-929-2751 · FAX : 02-927-5201
- E-mail :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 Homepage : www.foodsecurity.or.kr